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1월 8일)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불교계 나눔 '봇물' '자비 온도' 뜨겁다

주요 사찰 · 복지단체 연말연시 '자비 행사' 잇달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한파주의보가 내린 11월 25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손에는 쌀과 전기장판이 들려있었다. 사직동 골목길 속 작은 단칸방에서 나온 허리가 굽은 할머니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이들, 모두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연말연시를 맞아 불교계가 진행하는 자비나눔 행이 활발하다. 거리에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자들의 오가는 마음 속 자비온도는 뜨겁기만 하다.

꼭 필요한 물품 직접 전달

서울 조계사와 조계사 신도들로 구성된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은 11월 25일 종로구 산하 17개 동에서 차상위계층 및 법정급여자 110가구를 찾아 노후 전기장판을 교체하는 '2019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이번 전기장판 교체는 10년 넘은 오래된 전기장판을 많이 쓰시는데 화재, 화상 위험에 노출됐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단순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을 찾아가서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조계사와 같이 최근 불교계 연말연시 자비나눔행은 금전 지원을 넘어 물품을 받는 이들이 필요로 한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름다운동행의 연탄나눔이다. 아름다운동행은 11월 2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아이연탄맨 사전모금홍보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아이연탄맨 나눔행사에 돌입했다. 아이연탄맨은 후원금을 내면 그만큼 연탄을 기부해 전달하는 행사로 12월 12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연탄나눔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나눔 등 먹거리 후원 확대

불교계의 따뜻한 정은 먹거리 나눔에서도 드러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1월 25일 영등포 보현의집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인 가정의 겨울나기를 위해 김장 7000kg을 장애인 복지시설 10곳에 전달했다. 이날 김장은 장애인들의 밑반찬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졌다.

서울 조계사도 사찰 사상 최대인 6500kg에 달하는 김장을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눴다. 서울 조계사는 11월 28일 대웅전 앞에서 김장나눔전을 열고 5kg의 김치통 1300개를 창신동 쪽방촌과 한부모가족쉼터, 종로노인복지관 관리기구, 종로구 17개 주민센터 등에 전달했다. 특히 조계사와 도농교류를 하는 해남군의 후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50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서울 국제선센터도 12월 4일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30명을 초청해 김장을 담그는 연말행사를 열었다. 한국사회 적응이 필요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김치를 담그고 함께 지역 경로당 등을 찾아 나눔을 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익히게 하는 취지다.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한 이날 자리서 참가한 100여 대중은 1000여 포기를 담가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 스님은 "나눔행사는 한국 고유의 정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 사회 소외 이웃에 따뜻한 식사 한끼를 선물하는 아름다운동행의 찾아가는 짜장공양도 11월 26일 혜명양로원을 찾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서울 봉은사의 경우 12월 7일 봉은사 경내서 봉은사김장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봉은사는 김장축제를 통해 약 90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한 바 있다.

소외이웃 필요물품 취합해 전달
김치, 짜장면 등 먹거리 보시도
온라인 기부통한 기부 증가 추세
"새로운 기부 방식 개발" 필요해

온라인기부도 활성화 추세

최근에는 CMS · ARS 등 전화 등을 활용한 기부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불교계 기부도 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도 2002년부터 '나눔의 등축제' 를 통해 등을 매개로 온라인 기부 등을 받아 매년 1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모연해 사회 소외계층 돌봄에 사용하고 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도 연말을 맞아 해피빈을 통해 쪽방촌 아이들이 읽을 책선물 등을 기부 받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지원사업 '책가방 보내기' 의 경우 모금글 게시 9일만에 해피빈으로 270여만 원이 모였으며,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 청소년 영양지원 '해피콘 옥수수죽' 사업도 매월 평균 후원율 103%를 기록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각종 캠페인을 접하는 경로 또한 기존에는 사찰에서 접했다만 지금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은 모바일 사이트 등을 통해 온다"며 "온라인 기부가 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 자비행'으로 따뜻한 세상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의 김치를 담그는 김장행사가 사찰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1월 28일 행복나눔가피봉사단(단장 김문주)과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한 조계사 김장나눔전' 을 진행했다. 이날 나눔전에는 250명이 참여해 총 5000포기를 담가 주변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했다. 나눔전에 참여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조계사 신도들이 김치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우학 스님 · 윤청광 이사장

포교원 제31회 포교대상 수상자 발표
우학 스님, 지역포교 40년 헌신
윤청광, 문화포교서 활발한 활동
12월 3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시상


우학 스님


윤청광 이사장

포교 전법 현장에서의 공로를 치하하는 조계종 포교대상에 우학 스님과 윤청광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26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31회 포교대상 대상(종정상) 수상자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과 윤청광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학 스님은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 포교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국내외에 10여개 도량을 설립한 도심포교의 선구자다. 특히 한국불교 대관음사를 창건하고 도심포교와 불교교육 혁신에 공을 세워 신해행증 실천의 기치를 높였다. 대관음사는 지역 대표 도심포교당으로 매일 1000여 불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수행 정진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과 NGO BUD를 비롯해 의료법인 무일의료재단 등을 운영하며 불교의 사회적 기여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학교법인 무일학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세계명상센터, 참좋은어린이집, 참좋은요양병원 등도 그 결과다.

특히 우학 스님은 2013년부터 대관음사 감포도량서 무문관 청정결사에 들어가 3년간 정진했다. 이런 구도의 과정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윤청광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은 1987년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다양한 저작활동 등을 이어온 작가다. 대표저작으로 〈고승열전〉, 〈불교를 알면 즐겁다〉, 〈회색 고무신〉 등이 있으며 특히 고승열전은 근현대 고승들의 일대기를 그린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도 활동을 이어 1989년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 1990년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등을 맡아 활동을 했다. 2017년에는 월하스님 일대기를 그린 〈영축산에 달 뜨거든〉을 집필하고 최근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제작 등 뉴미디어 포교활동을 비롯한 작가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과 동국출판사 대표로서 출판인쇄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상 선정 외에 각 분야의 다양한 원력가들에게도 상이 수여됐다. 포교대상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서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 서울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 전완중 제12교구신도회장, 주윤식 제8교구신도회장, 송정숙 불자가 이름을 올렸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서울 진관사 총무국장 법해 스님, 남창현 한국세무사불자회장, 김영주 제16교구신도회 사무국장, 신기열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조계사 불교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4 무진향 031)470-3118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서울 봉은사가 조계종의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3억 원을 보태며 힘을 불어넣었다. 사진 왼쪽부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김상훈 신도회장.

서울 봉은사, 백만원력결집 3억 원 전달

11월 27일 초하루법회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문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서울 봉은사가 큰 힘을 보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1월 27일 지난 4개월간 발우저금통과 CMS 등으로 모은 백만원력 결집 기금 3억여 원을 종단에 전달했다.

이날 초하루법회를 맞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봉은사를 찾아 법문하고, 봉은사는 800여개의 발우저금통을 종단에 후원했다. 봉은사는 그동안 신도회,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 산하시설과 CMS 등을 통해 기금을 모아왔다. 특히 봉은사 신도회는 2억 원을 약정하면서 백만원력 결집에 동참했다. 전달식에서는 800여 저금통이 유리탑 속에 담겨 장관을 이뤘다.

신도회서 2억 원 약정 눈길
저금통 · CMS 등 4개월 모아
스님과 종무원도 함께 동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은 불자들의 원력을 통해 한국불교의 가장 중요한 불사를 이루는 공덕"이라며 "불자 한명 한명의 정성이 담긴 만큼 소중히 불사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원행 스님은 또한 초하루법문에서 최근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간다라지역 순례를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불자들이 성지순례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토에는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수행하고 복을 지어야 한다"며 "성지순례하면서 공덕을 기리고 함께 수행하는 기간을 갖자. 갈 수 없다면 책과 사진을 통해서라도 마음속으로 성지를 기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신도회의 적극적인 백만원력 결집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작은 원력으로 힘을 보태면 큰 원력이 된다. 그리고 끝내 모두의 원력이 이뤄진다. 사부대중 모두 원력의 중요성을 느끼고 함께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내년 예산 천태종 299억 · 진각종 221억

조계종 외 주요종단, 올해 대비 소폭 증가

천태종 올해 대비 18억 증가
종의회 분과별로 예산안 심의
진각종 인건비 등 일부 증가
운영비 · 관리비 등은 감소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이 최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총 1055억 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천태종과 진각종 등 한국불교 주요종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됐다. 천태종은 299억, 진각종은 221억 원으로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한 예산안을 수립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는 11월 22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10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0년도 총무원과 종의회, 감사원 등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금강대학교 등 산하기관, 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 예산안을 심의, 일반예산 총 299억2289만8600원을 확정했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일반예산은 219억3999만8600원, (재)대한불교천태종 일반예산은 79억8290만원으로 올해 총 일반예산 282억 원에서 약 18억 원 늘어났다.

천태종 종의회는 앞서 20일 개회한 정기종의회서 총무 · 법제 · 재무분과위원회별로 담당 부서워 산하기관 예산안을 검토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경천)는 △총무원 총무부 · 교무부 · 교육부 △기획실 · 전산국 △금강신문을,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덕해)는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천태종복지재단 △(사)나누며하나되기를,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보광)는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천태종 특별 예산안 △재단법인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등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종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난 뒤 종정 도용 스님은 "종단의 법 질서가 무너지면 인재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종의회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은 "제110차 정기종의회를 증명해주신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원장 스님, 예산안을 함께 심의한 종의회 의원들게 감사하다"며 "종의회 의원들은 천태종이 일체중생의 귀의처가 되도록 크게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 종의회(의장 관천)는 10월 24일 서울 총인원내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서 제419차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내년도 통리원 ·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의해 총 221억6000여만 원으로 확정했다. 핵심 중앙종무기관인 통리원은 131억1000만원, 교육원은 7억3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됐다. 진각종 내년 예산은 인건비 등이 소폭 증가한 반면, 각종 운영비과 관리비 등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진각종 종의회는 보궐선거를 통해 대구 낙산심인당 주교 호당 정사를 제15대 의원으로 선출했다. 호당 정사는 1990년 밀각심인당 교화보조를 시작으로 총지 · 여래 · 실상 · 득도 · 심지 · 탑주심인당 주교와 진각대 교무국장, 진선여중 주임정교, 포교 · 총무 · 기획국장, 서울교구 종무국장, 제12대 종의회 의원, 통리원 기획실장, 사회부장, 총무부장,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비로자나청소년협회장, 밀교신문 편집인, 서울교구청장, 유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종의회는 11월 18일자로 유지재단 이사 임기가 만료된 호당 정사(대구 낙산심인당 주교) 후임에 능원 정사(서울 탑주심인당 주교)를 추천했다. 또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교육)에는 덕운(수원 유가심인당 주교) · 도진(대구 의밀심인당 주교) 정사를, 감사에는 선일(대구 길상심인당 주교) · 원암(광주 영광심인당) 정사를 각각 복수 추천했다. 이밖에 서울교구 실상심인당, 전라교구 식재심인당, 부산교구 정제심인당을 신축키로 의결했다.

"총림해제, 주지 책임지고 용퇴를"

백양사 대책위원회, 주지 향해 책임론 제기

"중앙종회 결의 존중한다"
방장 문도 · 주지 측 제외한
승랍 20년차 이상 뜻 모아
지선 스님 문도 입장 발표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과 前방장 지선 스님 상좌들이 고불총림 해제와 관련해 의문을 던진 가운데, 백양사 대중이 주지의 용퇴를 촉구했다.

'백양사 총림해제 수습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중앙종회의 총림해제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이번 문제를 다루며 총림 구성원과 상의조차 없었다는 이유로 주지 토진 스님에게 사퇴를 제안했다.

백양사 대책위는 "그동안 종회로부터 총림 실사를 통해 총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나 백양사 주지스님은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지는 물론 백양사 집행부 누구도 종회의원이나 종단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마치 해제하려면 해보라는 식의 배짱과 방관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현 주지스님이 소임을 맡은 후 지금까지 대중과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지스님을 추천한 방장스님까지 원망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백양사 대중은 철저히 소외됐다"면서 "현 소임자를 제외한 백양사 대중 누구도 총림을 해제한 중앙종회에 원망하는 이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준다. 백양사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총림을 해제해 재도약의 발판을 삼자는 대중이 많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백양사 명부전의 지장보살과 시왕상을 만세루로 옮기고, 공사비를 들여 명부전을 납골당으로 변화시킨 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불선원을 재가보살선원으로 바꾼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주지스님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일부 시민단체와 장성군의회, 전남도의회 등 관련도 없는 재가에 전혀 다른 사실을 전해 탄원서를 내게 하는 웃지 못 할 행동이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엄청난 사태에도 대중과 소통한 적이 없으니 주지스님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백양사는 선대 조사스님들의 뜻을 되새겨 여법한 총림 도량으로 요건을 갖춰 새롭게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양사 총림 해제 수습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백양사 중진 스님 20여 명이 긴급히 모여 구성을 논의했다. 방장 지선 스님 문도와 주지 토진 스님 측을 제외한 승랍 20년차 이상 전 대중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이 중 11명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한편 前 방장 지선 스님의 상좌 일수 · 법신 · 석장 · 법경 · 법주 · 법구 · 법공 · 법홍 스님과 손상좌 혜장 · 혜오 · 혜광 · 혜문 · 진견 · 현광 · 자재 스님은 11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참회의 뜻을 밝히고, 총림 재지정을 기원했다.

15명의 지선 스님 상좌, 손상좌 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총무원의 개선요청 시한이 아직 남아있었고, 고불총림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소명과 협의 절차 없이 총림해제가 결정됐다. 백양사 문도들은 총림 구성 요건에 대한 미비사항이 총림해제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 아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양사의 총림 해제에 대해 참회한 스님들은 "만암 · 서옹 · 수산 대종사로 계승되는 고불총림은 백양사 문도들의 명예이며 자부심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고불총림이 복원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불교성전 초안 검토 '사업 잰걸음'

성전편찬추진위 11월 23일 양평서 워크숍

조계종이 진행하는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는 11월 23~24일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불교성전〉 초안 검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1박 2일간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임위원과 기획위원, 전문위원들이 모여 논쟁을 하며 내용의 선별과 배치,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불교성전편찬사업은 4월 18일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상임위원(16명)과 기획위원(9명), 전문위원(6명) 등이 위촉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상임위원과 기획위원, 전문위원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불교성전의 편찬 체제 및 목차 구성의 틀을 논의했으며, 각 목차에 들어갈 주제어를 선정, 주제어에 알맞은 내용을 발췌해 왔다.

편찬추진위 측은 "이번 워크숍의 결과물로 불교성전의 초안이 구성될 것이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불교성전의 초고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일상 속에서 조석으로 써야하는 필수생필품인 비누(BLOOD MATE®), 치약(ORAL MAT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ORAL MATE®(치약)는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치후 뱉어내고 구강건강을 위해 별도로 잇몸을 관리하고 있으나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으며
과식,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때 양치후 먹으면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며
특히 구강건강 (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 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장애 인식 개선 위한 특별음반 나온다

보리수아래 '꽃과 별과 시' 제작 녹음…12월 20일 발매

한일 갈등 속 지원금 반납 재능 기부로 어려움 극복 1000장 배포 후원 필요


발달장애 피아니스트 최준 씨의 녹음현장.


작곡을 맡은 장태산 · 김동식 · 지우 씨 연습장면.


음반에 참여한 장애시인들의 모습.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로의 한 작은 녹음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한 분이 들어섰다. 조용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운율이 있는 시적인 가사가 흘러나왔다. 장애인들의 애환을 삶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킨 곡이 나오자 녹음실 바깥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한일관계 경색으로 무산될 뻔한 장애인식 개선 특별음반이 연말에 발매된다. 장애 · 비장애 아티스트들의 마음을 모은 콜라보레이션 음반이어서 더욱 뜻깊다.

장애불자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보리수아래' (대표 최명숙)는 최근 장애시인 11명의 시를 바탕으로 다양한 각계각층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협업 음반 '꽃과 별과 시' 1000개를 제작해 12월 20일 중림종합복지관에서 제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리수아래는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음반에는 장애시인인 김영관, 김소영, 김준엽, 고명숙, 성인제, 이순애, 이경남, 최명숙, 최윤정, 홍현승 등 11명과 발달장애 피아니스트이자 국악인인 최준 음악아티스트. 김동식 작곡가, 진우 작곡가, 가수 박푸른숲, 장태산 음반기획제작자, 한효종 작곡가 등 10여 명이 참가했다.

세부작품으로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지닌 김소영 작사가의 '아기 할머니 품 속에서', 지체장애 1급 장애를 지닌 고명숙 상담가의 '그래도 예뻐', 뇌병변 1급 장애를 극복, 보치아국가대표로도 활동중인 김준엽 시인의 '사랑의 두려움' 등 총 11곡이 실렸다.

특히 이번 앨범은 한일 갈등 관계로 인한 영향을 극복한 결과물이어서 눈길을 끈다. 당초 앨범은 일본 장애시인과 아시아 장애시인들의 공동시집 제작과 동시에 진행하던 사업이었다. 사회적 영향으로 당초 공모사업 형태로 받기로 했던 지원금 등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며 음반과 시집 발매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장애시인 등 참가자들부터 함께 만드는 음반으로 정성을 모았다. 장애시인들은 저마다 작곡에 대한 재능기부와 함께 오히려 보시금을 전달했다. 특히 음반 기획과 작곡, 노래 등을 담당한 진우 씨의 경우 이번 음반에는 작곡가 섭외를 비롯해 녹음과 음반 디자인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재능기부했다. 갖은 어려움에도 11월 28일 현재 작곡과 편곡은 끝난 상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지원금 반납으로 사실 음반 발매 자체가 큰 위기였지만 음반 참여자분들이 오히려 조금씩 정성을 모아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다만 시집발간보다 음반 발표를 먼저 하게 됐다. 사업진행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어 발매한 음반 배포 등에 뜻있는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우리 사회의 도반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일본 장애시인들과의 사업 또한 성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현재 조계사 주지로 있는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결성된 '보리수아래'는 장애인들의 예술창작과 발표활동,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시아장애인 교류사업과 장애인불자를 위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매년 4월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는 공연을 열고 있으며 장애시인들의 시를 기반으로 한 음반과 공동시집, 미얀마와 베트남 시인들과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을 출간하고 있다. 후원문의 (02)959-2611

올해의 합창단은 '봉은사 합창단'

2019 제8회 불교합창페스티벌

조계종 문화부과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2019불교합창페스티벌이 11월 25일 더케이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1차 심사를 거친 8개 합창단이 참여했으며 합창단들은 각각 2곡씩의 참가곡을 불렀다. 이중 1곡은 2019년 제6회 신작찬불가 공모전에서 선정된 곡이다.

심사를 거쳐 그랑프리 수상 영광은 봉은사 청년합창단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7개 합창단인 인천불교회관 승만합창단, 조계사 청년회 합창단,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천수천안 합창단,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합창단, 서울 상도선원 간다르바 합창단, 국방부 원광사 바라밀 합창단, 국제선센터 합창단에게는 1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불교음악원 측은 "불교합창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연과 찬불가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환희와 감동으로 신심이 배가되는 법회와 사찰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환경 새 화두 제시한 작품"

11월 26일 '그린부디즘 연작', 불교언론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11월 26일 시상식 이후 수상자들이 환한 미소를 띄며 불교미디어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본지가 진행한 연중기획 '必환경 시대&Green Buddhism' · '키워드로 읽는 Green Buddhism'이 조계종이 11월 26일 개최한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은 11월 26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서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현대불교신문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에게 '必환경 시대&Green Buddhism' · '키워드로 읽는 Green Buddhism' (이하 그린부디즘 연작)기획에 대한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500여 불자들이 함께해 수상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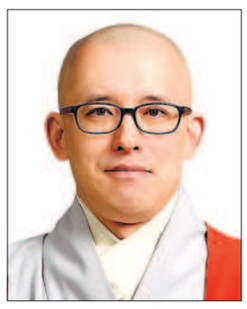
대표로 상을 수상한 신성민 기자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시대를 맞아 불교환경 운동에 대한 소중함을 되살리고, 다시금 불교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기획을 진행했다. 팀으로서 함께 노력한 결과로 더욱 보람된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한 '그린부디즘 연작'은 미세먼지, 라돈 사태 등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가 발발한 시점에서 불교 환경운동사를 되짚고 '必환경(Green Survival)'이란 화두를 제시한 연속 기획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에 BTN 다큐드라마 '사명대사'가, 방송부문 TV최우수상에는 KBS스페셜 '세계유산 대흥사-인드라망의 숲에서',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에 BBS특별기획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 등이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문광 스님, 제1회 탄허학술상 수상

11월 29일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시상식

탄허학 개창 공로 높게 평가 "〈탄허선사강설전집〉 편찬해 탄허 사상 세계에 알리겠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한암 · 탄허학술상 첫 수상자로 조계종 교육아사리이자 동국대 외래교수인 문광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제1회 탄허학술상 수상자로 문광 스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암 · 탄허학술상은 한국불교학회가 주관하고 금강선원 · 월정사 · 탄허불교문화재단 · 한암문도회 후원으로 이뤄지며, 홀수 해에는 탄허학술상을 짝수 해에는 한암학술상을 시상한다.

선정 이유에 대해 한국불교학회는 "문광 스님은 탄허 스님에 대한 연구로 최초의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탄허학' 이라는 독립된 학문을 개창했다"면서 "선교겸수의 적극적 실천으로 탄허 스님의 원융과 화해의 사상을 우리사회에 널리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탄허학술상 첫 수상자로 선정된 문광 스님은 2001년 해인사 원당암으로 출가했으며, 2002년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8년 성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문광 스님은 봉암사 태고선원, 해운정사 금모선원 등에서 수행정진했다.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문광 스님은 학문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출가 전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출가 후에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고,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스님은 2012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중국고전문학 연구로 석사학위를, 2018년 8월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탄허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특히 탄허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것은 처음이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학승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문광 스님은 지리산 칠불사에서 대강백 통광 스님으로부터 경허-한암-탄허-통광으로 이어지는 전통강맥을 전수받기도 했다.

문광 스님은 "동양학을 공부하다 출가를 했는데 탄허 스님의 강의 CD를 듣고 너무 놀랐다. 스님이 펼쳐놓은 사상이 광대해 전문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탄허 스님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탄허 스님 연구로 어른 스님의 이름이 들어간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우담 선생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건네 받아 〈탄허선사강설전집〉 편찬을 추진 중"이라며 "탄허 스님의 사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탄허학술상 시상식은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불교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인 문광 스님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신성민 기자

〈문광 스님 발표논문 요약 A7면〉

"김진표 총리지명 반대"

종교투명성센터 11월 28일 성명

종교투명성센터(상임대표 곽성근)가 개신교 편향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진표 국회의원의 차기총리 후보 지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11월 28일 성명을 통해 "김진표 의원은 지금의 종교인과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다"며 "차기 국무총리지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할 상황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낙선대상에 될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어 "올바르게 돌이킨다면 국민들은 김진표 의원의 선한 결정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드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종교투명성센터는 △2018년 종교투명성 센터가 제기한 종교인과세법 개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내놓을 것 △종교인과세법 개악과정서의 행위를 회개할 것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세금부담을 지도록하는 작업을 여당 차원서 착수할 것 등을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불교인문학, 청소년 성찰 능력 함양”

조계종 불교사회硏 ‘미래세대 포교’ 주제 연찬회

불교 교사 참여 방안 제안
“불교 고유용어 접근성 낮아 인문학적 불교로 다가가야”
불교 인성교육 개발도 필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불교 용어가 아닌 ‘인문학적 불교’로 다가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11월 22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희정 창원중앙고 교사는 ‘인문학으로서 불교 교육 가능성 탐색’ 발표를 통해 불교가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사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쉽게 괴로움을 느끼지만 이를 다른 즐거움을 찾음으로써 회피한다. 이 같은 회피전략은 대상과 상황만 바뀔 뿐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인문학으로서 불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분석, 임상심리학, 문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 등 인문학의 방식과 힘을 빌려 불교는 청소년이 겪는 괴로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회복하는 방법과 내면을 통찰하는 지혜를 길러준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1월 22일 전법회관서 미래세대 포교를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생소한 불교 용어로의 접근과 포교 목적으로 다가가는 인문학적 불교는 삼갈 것을 제언했다.

신 교사는 “불교를 포교하고 전법하려는 목적으로 다가가는 인문학으로서 불교는 청소년들과 진정성 있는 만남이 이뤄지기 힘들다. 또한 불교 고유 언어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면서 “불교는 청소년의 마음을 스스로 돌보고 올바르고 행복한 삶의 의미를 자신의 가치로 선택하도록 도움줄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진영 동대부여고 교법사는 불교적 가치관에 바탕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권 교법사에 따르면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두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1순위로 ‘인성교육’을 뽑았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종교적 인성교육은 어려움이 많다.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하는 종교자유 법령과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공교육에서 종교인성교육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게 권 교법사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권 교법사는 “불교 인성교육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불교인성교육’을 다년간 실시했다. 그 결과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다”면서 △불교적 가치관 바탕한 각종 교구·교재 개발 △불교융합교육차원의 인성교육 플랫폼 구축 △불교교육과 인성교육 목적 정립 등을 방안으로 제언했다.

이밖에도 이날 연찬회에는 김은미 한국교원대 강사가 ‘불교관련 교사용 지침서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김영래 고려대 강사, 박범석 한국인성교육진흥원장, 김태영 동대부중 교사가 토론에 나섰다.

진흥원, 군종교구 7000만원 후원

오지부대 군포교 위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26일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에 군포교 진흥 지원금 7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는 격지 및 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 및 교육, 수행, 포교자료 개발 등 군포교를 위해 사용된다.

이한구 이사장은 지원금을 전달하면서 “군승 등 군 포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장병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희망적인 군 생활을 하도록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물질·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한 장병들의 고민을 현장서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종교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설립 이후 군불교 진흥을 위해 매년 조계종 군종교구에 군포교 진흥기금 1억 원 내외를 전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생명나눔-중부대, 업무제휴 협약 체결

11월 22일 협약식… 생명나눔 문화 확산 상호협력


생명나눔과 중부대는 11월 22일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와 중부대(총장 엄상현)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생명나눔과 중부대는 11월 22일 중부대 고양캠퍼스 세종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과 중부대의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 활동과 사회봉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상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지원 및 협조 △중부대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 및 정보 제공 △중부대 신입생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널리 알리는 좋은 뜻에 중부대와 손을 맞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상현 중부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명의 귀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 김남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엄상현 중부대 총장, 김춘호 대외부총장, 신현정 평생교육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포교전선 새 일꾼, 새 바람 기대

포교사단 13개 지역단장 선출
2020년 1월 1일부터 임기시작

조계종 포교사단 13개 지역단이 재구성됐다. 포교사단은 11월 한 달간 선거를 진행하고 새로 지역단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먼저 서울지역단장에 정청현 포교사, 부산지역단장에 정분남 포교사, 대구지역단장에 장건환 포교사, 대전충남지역단장에 윤나겸 포교사, 광주전남지역단장에 강윤구 포교사, 전북지역단장에 김용수 포교사, 강원지역단장에 김효현 포교사, 충북지역단장에 김명동 포교사, 인천경기지역단장에 배동학 포교사, 경남지역단장에 박해덕 포교사, 울산지역단장에 이병연 포교사, 제주지역단장에 이명직 포교사, 경북지역단장에 강의수 포교사, LA지역단장에 이영미 포교사가 각각 선출됐다.

서울지역단장 정청현 포교사는 2000년 포교사 품수 후 서울지역부단장과 수석부단장을 거쳐 2018년부터 서울지역단장을 맡았다. 현재 포교사단 부단장이기도 하며 군포교 현장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지역단장 정분남 포교사는 2013년 포교사 품수 후 2018년부터 부산지역단장 소임을 맡고 있으며, 군포교와 경찰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지역단장과 부산지역단장은 재임이다.


정청현 정분남 장건환 윤나겸 강윤구 김용수
김효현 김명동 배동학 박해덕 이병연 이명직

대구지역단장 장건환 포교사는 2009년 품수했으며, 사찰문화해설, 대외협력 등을 담당했다. 대전충남지역단장 윤나겸 포교사는 2010년 품수하고 2018년 전문포교사도 품수했다. 대전 사찰문화해설팀장으로 현재 지역단 부단장과 총괄팀장이다.

광주전남지역단장 강윤구 포교사는 2009년 품수하고 지역 군부대와 순천교도소에서 전법 교화에 앞장서왔다. 전북지역단장 김용수 포교사는 2012년 품수한 이후 사찰문화해설과 염불봉사에 나섰다.

강원지역단장 김효현 포교사는 2006년 품수 후 어린이 포교팀을 거쳐 현재 동해총괄팀 염불봉사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북지역단장 김명동 포교사는 2009년 품수하고, 군포교 등에 매진해왔다. 인천경기지역 배동학 포교사는 2009년 품수 후 현재 새터민 통일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경남지역단장 박해덕 포교사는 사찰문화해설과 청소년 포교에 역주하고 있으며, 울산지역단장 이병연 포교사는 2013년 품수했다. 제주지역단장 이명직 포교사는 2012년 품수했으며, 교정교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지역단장 강의수 포교사는 1997년 포교사 1기로 품수했으며, 불교문화팀장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열람실’ 네이밍 동판 제막식

동국대 경주캠 11월 2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1월 26일 교내 중앙도서관 2층에서 ‘불국사 열람실 동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성타 스님(불국사 회주), 불국사 부주지 정문 스님을 비롯해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정각원장 법수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성타 스님은 불교 인재양성과 종립대학 발전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약 5억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포함해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동국대 의료원 등에 총 10억 7천만 원의 정재를 꾸준히 기부해 왔다.

성타 스님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동국대의 발전에 동참하겠다”며 “다른 사찰 및 스님, 불자들도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의 발전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인재 불사를 위한 성타 스님과 불국사의 원력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큰 힘이 된다”라며 “불교계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조계사, 봉은사 사부대중은 11월 23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을 찾아 기도와 참선 정진을 진행했다. 사진은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이 도량을 돌며 결사 대중 스님들의 무탈회향을 기원하고 있다.



법회 동참한 조계사와 봉은사 사부대중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상월선원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젊은 불자들이 소원등을 달고 있다.

상월선원 외호 정진 열기 뜨겁다

2주차 위례천막결사 주말 법회 현장을 가다

위례=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위례 신도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벌판에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울려 퍼졌다. 대중들은 결기에 찬 목소리로 다라니를 외우며 삼보에 귀의하고 삼독심을 가라앉혀 깨달음에 다다를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이 지난 11월 11일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동안거 입재를 한 후 2주차를 맞은 상월선원은 외호 대중들의 정진 열기로 뜨거웠다.

11월 23일 찾은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는 조계사와 봉은사 사부대중 200여 명이 자리했다. 또한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등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참석했다.

이들 대중들은 오후 2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봉독을 시작으로 108배와 정근, 참선 등을 이어갔다. 40여 분 진행된 참선 시간에는 근현대 선지식 전강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이 함께 이뤄졌다.

참선 후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대중은 다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이어간 뒤 도량을 돌고 선원 울타리에 소원등을 달았다. 소원등의 소원지에는 자신을 위한 내용도 있었지만, 결사 대중 9명의 스님들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안거를 회향하기를 기원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았다.

매일매일 외호 대중 정진

이 같은 외호 대중의 정진은 매일 이뤄진다. 조계사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상월선원을 찾아 정진한다. 봉은사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개최하던 상설음악회 '박범훈의 소리길 여행'의 장소를 상월선원으로 옮겼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봉은사 사부대중들의 정진 동참도 이뤄진다.

또한 조계사와 봉은사의 정진 이외에도 매일 전국 각지 사찰과 단체에서 상월선원을 찾아 기도와 참배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11월 22일 서울 구룡사, 의왕 용화사가 상월선원을 찾아 기도에 동참했으며, 특히 구룡사는 합창단 음성공양을 진행하기도 했다. 용인 대덕사의 다도반은 매일 선원을 찾는 대중들에게 차 공양 봉사를 하고 있다.

어려움 곳곳 발생… 수행 계속된다

안거 입재 후 이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원 내부의 어려움은 현재 하루 한번 공양을 위해 설치한 통로로 주고 받은 메모를 통해서 짐작을 할 뿐이다.

상월선원 외호 대중에 따르면 입재 직후 이어진 몇 차례의 비로 선원 스님들의 수행처인 비닐하우스에 비가 샜고, 오직 양치만을 위해 설치된 세면대의 다리 한쪽이 부러졌다.



울타리 넘어 굳게 걸어 잠긴 상월선원의 문.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중 스님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조계사 · 봉은사 신도 200여 명
기도 · 염불 · 참선 등 정진 이어
"9명 스님들의 무탈회향" 발원도

비닐하우스 상황 메모로 짐작만
일교차 심하고 화장실 막히기도
어려움에도 9명 대중들 정진 중

이에 외호 대중들은 비닐하우스 전체에 비닐을 한번 더 덮어 우선 조치를 취했다. 세면대는 스님들에게 공양통로로 자를 건네 수치를 재게 한 후 메모된 크기대로 부재만을 반입시켰다.

내부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는 메모도 있었다. 낮에는 비닐하우스의 특성 상 내부온도는 30도에 이르지만, 저녁이 되면 영하권으로 온도가 급감한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로 인해 감기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회에 참석한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은 "감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상 감기약을 먹고 괜찮아졌다는 메모를 전했다고 들었다"면서 "9명의 정진 대중 스님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과 비상 상비약들을 상시적으로 넣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월선원 한국불교 중흥불사"

이날 선원을 찾아 기도 정진을 이어간 대중들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가 한국불교 중흥불사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윤재웅 동국대 사범대학장은 "고려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와 근현대 성철 스님의 봉암사 결사 이래 이 같은 청정수행 풍토 진작을 위한 결사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면서 "도심포교를 위한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는 데 수행정진을 통해 터를 닦는 9명 스님들의 노력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상월선원' 유튜브 채널을 보고 선원 기도에 동참한 젊은 불자들도 있었다. 김규리(30, 서울 성북구) 씨는 "상월선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인데 흥미가 생겨서 직접 상월선원을 찾게 됐다. 오랜만에 교외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등도 달아서 기분이 좋다"면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선원 안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힘드실 것 같다. 마음을 내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존경스럽다. 무탈하게 정진을 마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온 김근영(27, 서울 성북구) 씨도 "앞으로 선원 스님들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정진을 회향하시길 바란다"면서 "젊은 불자들도 주말에 상월선원을 찾아 기도 정진하며 외호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체험수행에 대한 기대도 컸다. 상월선원 옆에 조그맣게 마련된 체험동의 첫 수행체험에는 이기흥 중앙신도회장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은 "9명 스님들의 수행에 비하면 제 수행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원래 1주일 하려했는데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서 2박3일만 수행체험에 동참한다"면서 "이곳서 발현된 수행정진의 열기가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도들도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동참하자"고 독려했다.

수행체험 동참 결의도 있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매주 이곳을 찾고 있는데 올 때마다 행복하다"면서 "곧 체험동 운영이 곧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 역시 상월선원 수행체험에 동참해 한국불교 중흥에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중들의 정진 열기에 대해 상월선원 총도감 혜일 스님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혜일 스님은 "비가 새고, 화장실이 막히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원 대중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계신다"면서 "천막결사 안거가 유례없는 일인 만큼 외호가 쉽지는 않지만, 많은 사부대중이 선원 현장을 찾아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대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한국농수산대학 불교학생회 창립

12명 회원 가입, 초대회장에 박원희 법우



전주 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불교학생회가 창립됐다.

12명의 회원이 가입한 한국농수산대학교 불교학생회(회장 박원희)는 11월 25일 수현사에서 수현사 총무국장 응묵 스님, 전북불교회관 총무국장 우림 스님, 전북대 대불련 지도법사 동찬 스님,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양원 전주부시장, 강성구 지도교수 등 각 신행단체장들과 대불련 총문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박원희 초대회장은 "마음 농사와 실제 농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불교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하고 "첫 출발하는 불교학생회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응묵 스님은 "대사회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각급 신행단체장들도 축사를 통해 "위축되어 가는 청년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대학교의 불교학생회 창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지역의 대불련은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등 활발히 활동해왔으나 현재는 전북대 1곳만 남아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韓-아세안 회의 성공 기원 문화체험

부산불교, 다문화가정 청소년 초청 행사



2019년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부산불교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전통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1월 22일 범어사 경내에서 아시아공동체학교(교장 박효석) 학생을 초청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국전통문화체험'을 진행했다.<사진> 부산불교연합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화합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전통문화 체험행사는 △전통등 만들기 △발우공양 △사찰탐방 △다도체험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팔각전통등을 만들어 부처님 전에 헌등(獻燈)하며 마무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돕고 한국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미래의 상호 우호와 협력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화엄세계 문 열다

화엄산림대법회 11월 27일 입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제49회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를 11월 27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화엄산림법회는 입재 후 한 달 동안 화엄경이 설해지며 전국에서 찾는 1만여 불자들이 동참한다.

입재법회서 방장 성파 스님은 "한마디로 화엄산림법회는 마음을 닦는 법회다. 화엄법회 시작과 중간에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냥 무쇠 쇳덩이지만 법회를 마칠 때는 용천검이 될 것"이라며 "부단한 담금질을 통해 용천검이 나오듯이 시련과 고난을 통한 담금질로 마음의 평화를 얻어 행복한 사람이 되어 나오시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뛰어난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하니 마음을 잘 닦아서 큰 복을 누리고 가시길 바란다"고 대중을 격려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12월 25일 회향하며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법회가 진행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장안사, 천년고찰 도량정비 회향

설법전 후불탱화 점안… 8년 종합정비 마무리

2013년 불광전 증개축 시작
천년고찰 사격 어울리도록
꾸준히 도량 보수공사 추진
지역발전 돕는 문화행사도



장안사 설법전 후불탱화 봉안식에서 주지 정오 스님과 내빈이 제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년고찰 장안사 설법전에 영산회상도가 후불탱화로 봉안됐다. 설법전 후불탱화 점안으로 8년 동안 이어진 장안사 도량정비 사업도 마무리됐다.

부산 기장 장안사(주지 정오)는 11월 27일 설법전에서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주지 정오 스님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후불탱화는 영산회상도로 백린 김동진 불모의 작품이다. 5개월간 작업 기간을 거쳤으며 점안식을 통해 사부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점안식에서 주지 정오 스님은 "장안사에서 진행한 도량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천년고찰인 장안사 위상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준 불보살님들과 함께 도와준 도반 및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안사는 대웅전이 2012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된 후 사격에 어울리는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정오 스님은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시대(673년)에 원효 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라며 "도량정비를 잘해 문화유산인 장안사를 어떻게 후손에게 넘겨줄까 고민했다. 보물로 지정된 후 실마리가 풀려갔고 불사에 전념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장안사는 10년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 2013년 불광전 증개축을 시작으로 2014년 종각 증개축, 2015년 해동전 불사, 2016년 천왕문 개축 및 석축 공사 등을 마무리했다. 2017년에는 불광교를 개통했으며 2018년에는 설법전을 신축하고 명부전도 보수 공사했다. 이후 설법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영산회상도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도량 정비뿐 아니라 역사에 걸맞은 문화재도 발굴해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장안사에는 보물 2점과 유형문화재 10점 그리고 민속자료 3점 등 총 15개의 문화재가 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불사를 위해 안으로는 기도 순례 모임을 이어갔고, 밖으로는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기장군에서 활동하는 농업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앞장섰다.

장안사는 1000일 기도를 이어가며 매달 관음재일에 맞춰 33관음성지 기도 순례를 진행했다. 아울러 부산 기장을 대표하는 천년고찰로서 개산대재를 봉행하며 가을국화축제 및 사진 공모전으로 문화행사도 병행하고, 불자들과 시민이 쉬어가는 힐링처로도 자리매김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회향 법석에서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설했다.

정오 스님은 "끝까지 보살도를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마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기장 불교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여러 불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끝으로 "장안사 주지로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못다 한 대웅전 개축불사를 완성하는 일이다. 공심의 마음으로 세운 원력이 완성되기를 불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방의무 다하는 젊은이 응원"

전북 순창사암연합회 민관군경 어울림마당



순창 민관군경 어울림 마당에서 경기를 즐기는 참가자들.

전북 순창사암연합회(회장 동산, 대모암 주지)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근무하는 젊은이들을 초청해 민관군경 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11월 27일 순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동산 스님을 비롯해 강천사 주지 정오 스님, 영천사 주지 종혜 스님, 순평사 주지 타홍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황숙주 순창군수, 정성균 순창군의장, 35사단 순창대대장 김수일 중령, 권혁창 순창지역대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순창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순창 적성부대, 순창 경찰서 의경, 순창 상비역중대, 순창군청 사회복무요원, 순창군 체육회 임원들은 배구와 족구 등 운동경기와 공연, 각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고향을 떠나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과 전의경,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소박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상호 우정과 화합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사암연합회 스님들은 장병여러분들을 위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관계자들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순창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참석한 장병들에게는 기념품과 간식, 음료 등이 제공됐으며, 장기자랑을 통해 입상한 장병들에게는 기념품과 지역 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순창사암연합회장 동산 스님은 1625부대 이명호 원사와 순창군 문화체육관광과 강신영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순창사암연합회는 정기적으로 순창경찰서 의경과 군부대를 지원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 부산본부 제14회 희망콘서트

11월 21일 부산시민회관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1월 21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 14회 2019 생명의날 100원 희망불씨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생명나눔부산은 한 해 물심양면 후원 봉사한 단체와 봉사자에게 봉사상과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봉사상은 한덕순 부산포교사단 前팀장과 신용숙 불자가 수상했으며, 감사패는 곽성균 부산은행 사회공헌 팀장과 사단법인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이 받았다. 또한 생명나눔 활동 지원으로 노력을 기울인 해암 스님과 성문 스님은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부산관광버스기사 불자회와 사단법인 미소원은 1년 동안 저금통을 나눠 모은 수익금 105만원과 747만5120원을 생명나눔부산에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1세기 한국학 정수, 탄허학에 있다

주제 : 한국학 새 지평으로서의 탄허학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



한국 근현대 선지식 탄허 택성(呑虛宅成, 1913~1983) 스님. 탄허 스님은 불교와 유교, 도교 등을 회통하는 사상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광대한 그의 사상은 후학 문광 스님이 개창한 '탄허학'으로 연구 지평이 만들어졌다.

탄허, 선 · 화엄 바탕으로 사상 회통
간화선 · 교학 · 노자 등은 연구 과제
김제 탄허기념관 미륵사상 연구지로

지난 2013년은 탄허 택성(呑虛宅成, 1913~1983) 선사의 탄신 1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많은 행사와 학술대회가 있었다. 필자는 탄허기념박물관에서 '탄허학의 골수와 종지' 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탄허학' 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당시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탄허학 연구 원년으로 삼자"고 역설하며 '20세기 한국학의 정수는 탄허학' 이라고 외쳤다.

필자는 한류의 뿌리가 되는 한국인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하는 한국학(韓國學)의 한 학인(學人)으로서 그 해답을 '탄허사상(呑虛思想)' 에서 찾고자 한다. 한국인의 정신을 고려시대까지의 불교역사 전체를 버려둔 채 조선 유교 500년에서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한국인의 사상을 수승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교의 선사상이나 화엄사상 하나로만 일축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한국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담보하면서 한국 정신의 총화를 죄다 함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한국사상의 정수를 20세기 한국의 실존인물에서 상징적으로 찾아본다고 할 때 필자는 그 하나의 해답으로 탄허 스님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간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탄허학은 한국불교학의 주요 테마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학의 중심 학문으로도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서고금의 학문이 착종하고 융합하면서 그 접점을 찾아가야할 21세기는 바야흐로 탄허학의 확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탄허학 정리와 저술 현황

탄허의 핵심사상은 선(禪)과 화엄(華嚴)을 바탕으로 동서고금의 모든 학술체계를 회통하는 것이다. "천하에 무이도(無二道)요 성인에 무양심(無兩心)"이라는 스님의 대표적 언명에서 보듯 그의 대표사상은 불이(不二)의 심성학(心性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탄허는 모든 학술의 근간은 이문(二門)의 일심(一心)으로의 회통(會通)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탄허의 회통사상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는 화엄의 성기(性起)와 연기(緣起)이다. 성기사상은 선사상과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탄허의 종지(宗旨)에 해당하며 이와 함께 그가 가장 중시한 화엄학의 요체는 사법계(四法界)로서 언어 ·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교학과 학술의 내용은 이 화엄사법계의 도리로 수렴된다고 보았다. 불교의 교학체계는 사법계를 중심으로 한 진공묘유의 중도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탄허가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심(心)' 과 '성(性)' 두 글자였다. 그는 모든 학문을 '성(性)자리' 라는 한 단어로 회통시키는 회통조사(會通祖師)였다.

탄허는 유 · 불 · 선 삼교경전의 현토 · 역주 · 해설 · 강설의 방면에서는 20세기 한국학의 영역에서 정액상(頂額上)의 위치를 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저술의 목록과 숫자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도 말이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그 숫자를 확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탄허의 모든 저작은 총 '20종 80권' 이다.

탄허학의 연구과제

앞으로 탄허학이 정립되고 한국학의 한 분야로까지 그 외연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탄허사상 연구에 몰입해 주어야 한다. 분야별로 간략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탄허의 선사상(禪思想)에 있어서 그의 간화선관(看話禪觀)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스님은 다른 번역과는 달리 대혜종고의 〈서장〉에 대해서는 다른 주석을 고려하지 않고 '사기(私記)' 를 직접 썼음을 밝히고 있다. 제목 자체가 '대혜보각선사서병입사기(大慧普覺禪師書幷入私記)' 로 기존 번역의 체계인 정본-조본의 주석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고찰과 인물소개 정도만 기존의 사기를 준했으나 종지(宗旨)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사기를 참조한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는 스승인 한암 선사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간화선의 종지를 몸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탄허가 스승 한암으로부터 어떤 화두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무자화두(無字話頭)를 받았다는 전언이 있으나 아직 확실치는 않다.

이와 함께 탄허는 묵조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배척하지 않고 〈묵조명〉을 강의하기도 했는데 그 강의 녹음을 발굴하여 책으로 엮을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영가집〉을 특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하면 탄허의 넓은 선사상의 스펙트럼이 밝혀질 것이다.

탄허학의 연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화엄경〉을 비롯한 치문 · 사집 · 사교의 번역본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스님은 번역과 주석의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문헌들을 낱낱이 검토하여 스님의 주해를 한 데 모았을 때 그의 교학사상이 결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엄학의 경우 〈통현론〉과 〈청량소〉를 모두 번역하여 실었고, 의상 · 보조 · 균여 · 설잠의 화엄학에도 정통해 있었으므로 탄허의 화엄사상을 다시 처음부터 심입하여 연구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1975년에 문을 열었던 '화엄학연구소' 가 다시 발족되어 탄허본 〈화엄경〉에 대한 윤독회와 연구가 이어지길 발원한다.

현재 확보된 탄허 스님의 강의테이프 400여 개의 정본화와 DB작업, 녹취와 교정작업이 활발히 지속되어야 하겠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탄허선사강설전집〉 교정의 경우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지난한 작업이다. 하지만 스님의 강의내용이 문헌화 된다면 한문불전의 강학전승과 동양학의 융합적 연구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탄허학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탄허의 회통사상 연구는 '탄허학' 의 중심 주제에 해당한다. 현재 탄허가 짓고 쓴 고운 최치원 선생의 비문이 지리산 섬진강 어느 곳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탄허는 삼교회통의 최고 대가로 최고운 선생을 거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쌍계사 진감국사 비문' 에서 밝힌 "공발기단 석궁기치(孔發其端 釋窮其致)"라는 문장은 공자와 석가를 논한 가장 적확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탄허가 직접 쓴 최치원 선생의 비문이 발굴된다면 그의 삼교회통사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문장들을 여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탄허의 노장학은 앞으로 연구할 거리가 무척이나 많다고 할 것이다. 〈도덕경〉의 경우에는 31가의 주석을, 〈장자〉의 경우에는 32가의 주석을 참조하여 번역하였으며, 〈장자〉의 경우에는 총146회에 걸쳐 자가의 주석을 설파해 두었다. 고금의 노장학 주석 가운데 선별하여 주해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밝혀둔 것이 바로 탄허의 노장사상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동양학계의 강호 제현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탄허의 역학사상은 향후 탄허학의 주요부문으로 자리 잡아야 할 분야이다. 스님이 불교의 화엄학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주역〉과 〈정역〉을 중심으로 한 역학사상이다. 〈주역선해〉의 역해에 나타나 있듯이 탄허는 유학의 핵심이 되는 정 · 주의 의리역학과 소강절로 대표되는 상수역학, 그리고 김일부의 정역학(正易學)에 이르기까지 역학방면에 깊은 안목을 갖추었던 대가였다.

4769자로 이루어진 〈정역〉에 대한 연구는 그의 미래예견의 중심이 되었던 텍스트였으며, 지구 전체와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탄허 미래학의 산실이었다. 이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서는 탄허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현재 탄허의 탄생지인 김제에 생가터를 복원하고 탄허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 불사가 완성되면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을 받은 부친 김홍규 옹과 국민훈장(문화훈장)을 받은 스님 두 분을 선양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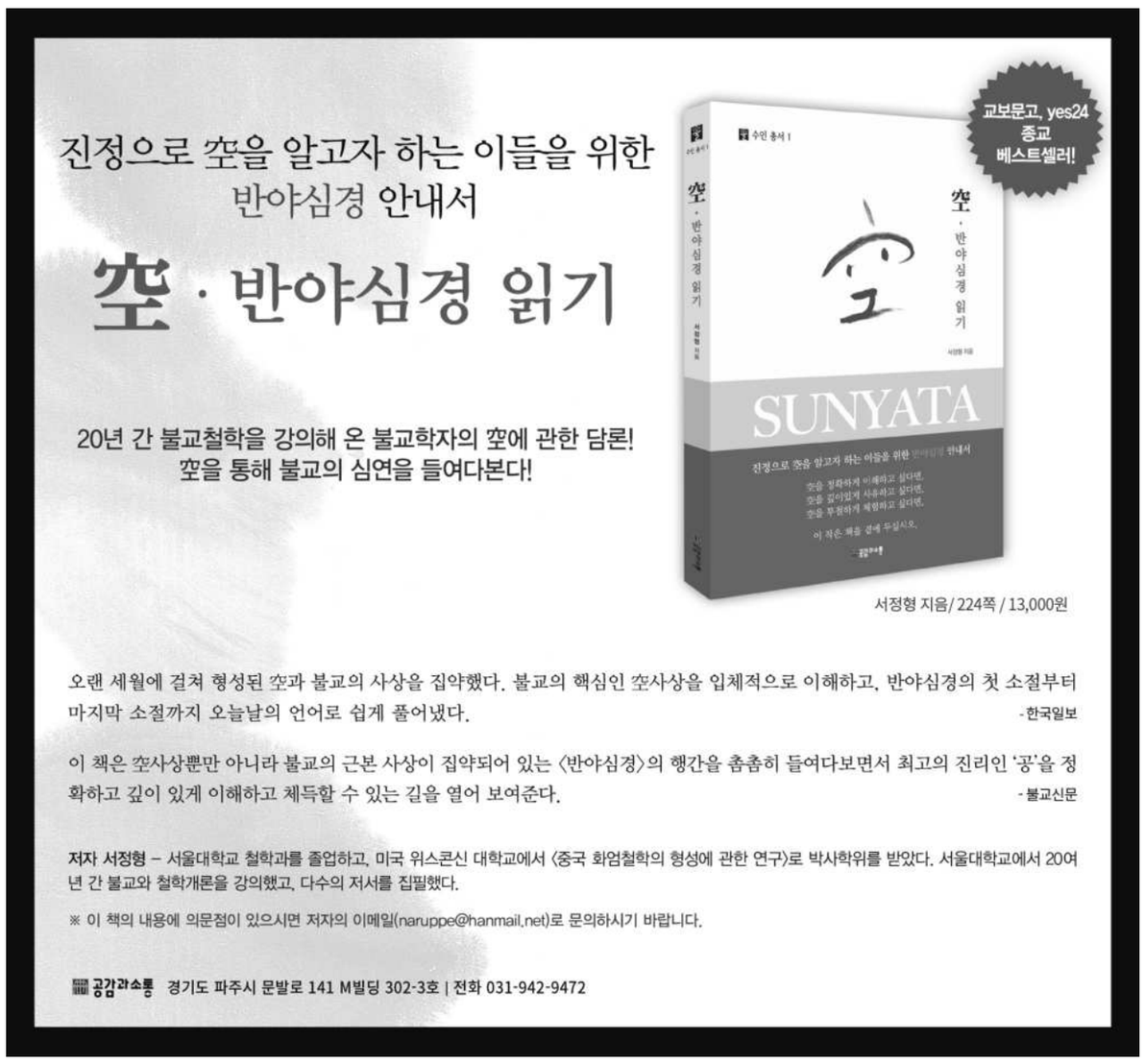
앞으로 건립될 김제의 탄허기념관은 금산사 미륵성지와 함께 한국의 미륵사상 연구의 본거지이자 후천개벽사상의 중심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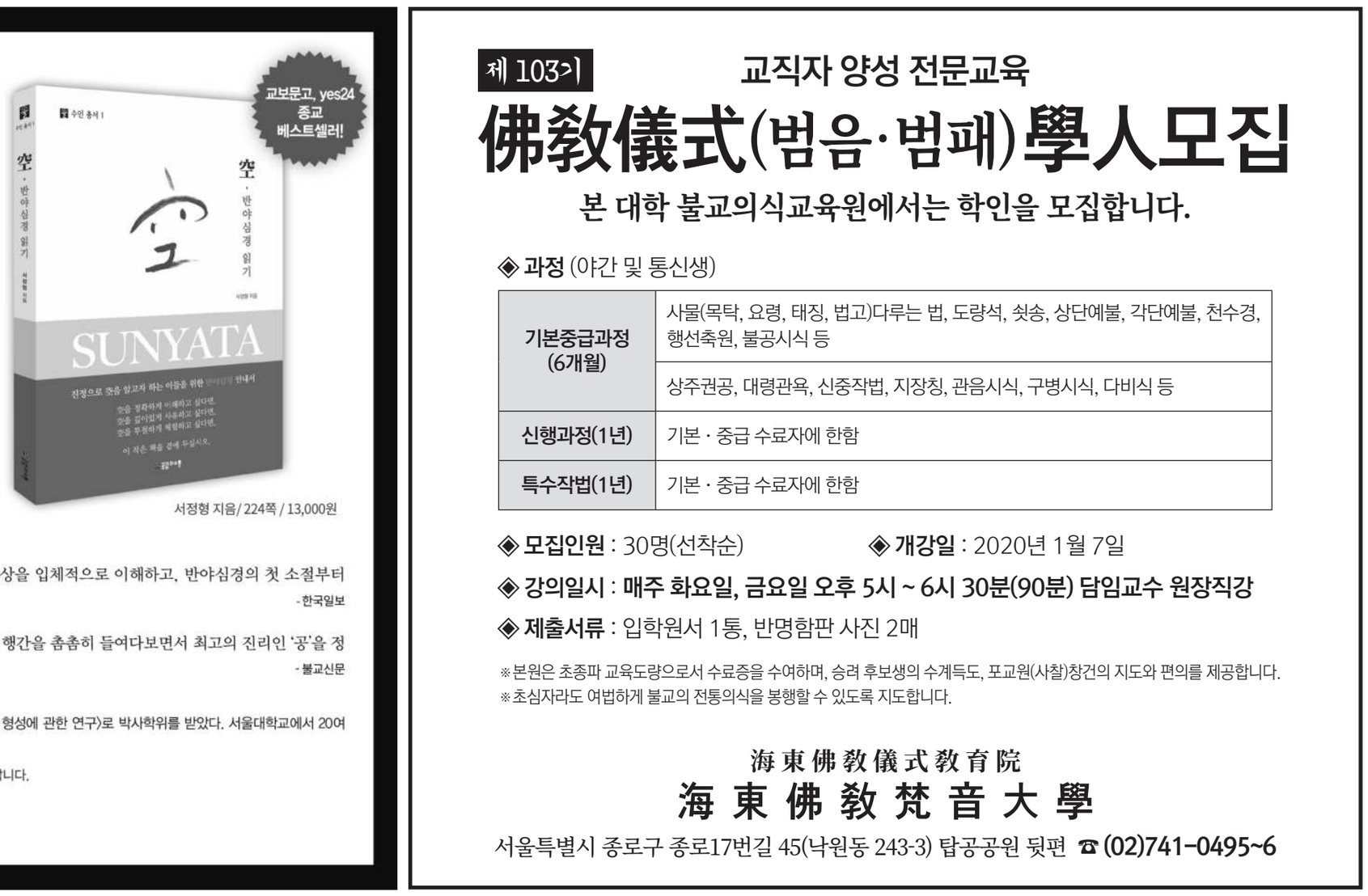
이젠 탄허학(呑虛學)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뜻 깊은 이 법연의 자리에서 감히 발원하며 제안하는 바이니 21세기 한국학을 선도할 '탄허학' 을 하루 속히 출범시키자.

문광 스님은…2001년 해인사 원당암에서 출가한 문광 스님은 2002년 통도사서 사미계를, 2008년 직지사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봉암사 태고선원, 해운정사 금모선원에서 정진했다. 출가 전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출가 후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며 수학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중국고전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서 탄허 스님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 한국불교학회 학술이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불교학회는 11월 29일 제1회 탄허학술상 시상식과 추계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첫 탄허학술상 수상자로는 탄허 스님 연구로 첫 박사학위를 받은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이 선정됐다. 시상식 직후에는 문광 스님의 '한국 새 지평으로서의 탄허학'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스님의 논문 발췌 · 정리해 게재한다.

정리=신성민 기자





방랑과 귀향, '나'를 만나는 여정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㉒ 렘브란트의 생애

17세기 네덜란드 대가인 렘브란트 반 린(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네덜란드, 1606-1669)은 생애를 통틀어 유화, 동판화, 드로잉 등을 비롯한 천 수백여 점의 방대한 작품을 남겼고, 〈니콜라스 툴스 박사의 해부학 강의〉, 〈바닝 코크 대장의 민병대〉와 같은 작품으로 그는 당대에 이미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또한 렘브란트는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나 전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화상 덕분에 다른 어떠한 천재들보다도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친숙하게 다가오는 특이한 화가이다.

구교인 가톨릭이 지배적이었던 남부 이탈리아와 스페인과는 달리 북유럽의 플랑드르 지역의 속했던 네덜란드는 점차 구교에서 탈피하여 신교지역으로 변화하던 시기였다. 그 이전 시대에는 부유한 교회나 왕실의 주문에 따라 거대한 규모의 종교화나 역사화가 흔히 제작되었지만, 렘브란트가 화가로서 활동하던 시대의 네덜란드는 무역이나 금융으로 큰 재산을 일군 부유한 평민, 즉 부르주아의 기호에 맞는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혹은 풍속화가 선호되던 시대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렘브란트는 지속적으로 종교화를 제작하였다. 비록 초상화가 자신에게 화가로서의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기는 했으나, 렘브란트는 애초에 다른 분야보다 역사화와 종교화에 더 큰 애착을 가졌다고 한다.

렘브란트 종교화가 지닌 특징은 작품이 종교적 주제를 묘사하고 있음에도,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성서에 따른 개별적 서사나 교훈보다는 보편적인 정념과 감정,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에 좀 더 주목하게 된다는 점이다.

〈욕실에서 나온 밧세바〉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약성서〉에서 밧세바는 다윗 왕을 유혹하여 자신과 음욕에 빠지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음녀이자 악녀로 흔히 해석된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 나오는 밧세바는 〈구약성서〉의 서사와 정통 기독교 교리의 해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참으로 미묘한 슬픔과 고뇌의 표정을 짓고 있다. 종교적 해석을 떠나서 감정을 지닌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렘브란트가 그린 밧세바가 보다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미술작품에서 무엇이 최고의 작품인가 하는 물음에 정해진 답은 없다. 다만 렘브란트의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돌아온 탕자〉를 가리키는 사람이 많다. 이 그림은 1661년에 붓을 들어 렘브란트가 작고하던 해인 1669년까지 그리던 작품으로, 끝내 미완성인 채 그가 남긴 마지막 유작으로 전해진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청하기를,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전부 나눠 주실텐데, 그걸 미리 저한테 주시면 안되나요"라고 하였다. 묵묵히 듣던 아버지는 말없이 둘째 아들 몫의 재산을 나눠주었다.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온갖 향락으로 모두 탕진한 후, 결국은 남 밑에서 돼지 치는 사람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라에 흉년이 들어 아들은 돼지 먹이로라도 배를 채우려 하나 그마저 나눠주는 사람이 없자, 굶어 죽을 처지에 이르러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게 된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거지꼴로 나타난 아들을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품에 안아주는 장면을 그렸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은 누더기를 걸쳤고, 갑작스런 아버지와의 재회에 한쪽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있다. 아버지는 두 눈을 지긋이 감고, 다만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의 등을 두 손으로 쓰다듬고 있을 뿐이다. 아들 또한 자책과 회한이 말문을 막은 듯,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신약성서〉에는 이 순간 아들의 심경을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전한다.

그림 속 돌아온 탕자와 그 아버지의 오른 편에는 지팡이를 짚고 사뭇 못마땅한 얼굴로 아버지와 동생의 재회를 묵묵히 지켜보는 장남이 서있다.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대목에서 장남의 불만이 폭발한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내어 주지 않으면서, 재산을 몽땅 날리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까지 잡으시나요."

아버지는 "얘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테니, 내 것이 모두 네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렘브란트, 〈사도 바울로서의 자화상〉, 1661, 캔버스에 유채, 91 x 77 cm , 레이크스미술관, 암스테르담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1661-1669, 캔버스에 유채, 262 x 205 cm, 에르미타주미술관, 상트 페테르부르크

〈묘법연화경〉 제4품 신해품(信解品)에도 기독교 성서의 '돌아온 탕자'와 유사한 '장자(長者)와 궁자(窮子)'의 비유가 전해진다. 장자의 아들 궁자는 어린 시절 집을 나갔다. 세간을 50년 동안 유리걸식하기도 하고 남의 부림을 받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던 궁자는,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떠나왔던 아버지의 집에 당도한다.

'돌아온 탕자'는 자화상 같아
회개와 신에게의 귀의 의미
본질적 자아의 깨달음 추구

자기가 떠났던 그 세월 동안 아버지는 재산을 늘려 큰 부자가 되었다. 집을 기웃거리던 궁자를 자기 아들이라고 한 번에 알아본 장자는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만, 너무 오랜 세월을 떠돌던 궁자는 이 집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권세를 지닌 왕가의 집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도망쳐 나온다.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간 탓에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걸인과 같은 아들을 합당한 자신의 아들로 되돌리기 위해 20년 동안 노력한다. 궁자는 자신의 아버지인줄도 모르며 장자 밑에서 차츰 많은 일을 익혀가며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

그는 하루하루 위태롭고 처절한 환경에서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비열하게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일이 힘든 것이 본질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비천하다 욕을 듣는 것이 고통이 아니다. 삶이란 작은 수레에 혼자 타고 가는 꽃놀음이 아니라, 큰 수레에 중생과 더불어 가는 것임을 궁자는 깨닫게 된다. 임종에 이른 장자는 마침내 궁자가 자신의 아들임을 말한다.

렘브란트가 그린 여러 점의 자화상은 사실상 붓으로 써 내려간 자서전이다. 풋풋한 젊은 시절 비범한 재능을 한 눈에 보여주는 최초의 자화상은, 등 뒤에서 빛이 비치고 얼굴은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이 무명의 젊은이가 유럽 근대 회화의 거장으로 성장할 예감을 보여준다. 화가로서의 명성이 극에 달했을 때 그려진 자화상은 미묘한 홍조를 띤 희고 건강한 피부의 젊은 화가의 확신의 찬 모습을 보여준다. 젊고 화려했던 시절의 자화상은 부유한 부르주아 상인의 초상화와 유사한 분위기이다.

〈야경꾼, 1642〉은 오늘날에는 렘브란트가 남긴 대표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그 독특한 구도와 표현기법으로 인해 초상화가로서의 그의 지위는 일거에 실추되고 말았다. 같은 해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며 작품 활동을 지속하였지만, 주문상황은 전과 같지 않았다. 재산 관리에 미숙했던 렘브란트는 1656년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사실상 렘브란트는 그 이후에는 다시 화가로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는 가족과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지만, 그림 그리기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천 몇 백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1669년 암스테르담에서 유명을 달리 했다. 그의 노년 자화상은 한편으로 차분한 느낌의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봄 꽃이 지고 무성한 여름의 숲을 지나 잎새를 모두 떨군 만추의 나목마냥 허허로운 느낌을 갖게 한다. 미술사학자 곰브리치(Ernst Gombrich, 1909~2001)는 "렘브란트의 초상화는 인물의 전 인생을 말해준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만년의 렘브란트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자화상〉을 그렸다. 서양미술사에서 사도 바울의 도상은 흔히 '칼과 서한 혹은 성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화상에서 그는 사도바울의 상징인 '칼과 문서'를 들고 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도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 곧 사도 바울의 회개와 신에게로의 귀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을 그리던 시절, 렘브란트도 계속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돌아온 탕자〉는 어쩌면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은유로서의 그림, 즉 렘브란트의 마지막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장차 유럽 화단의 거장으로 성장할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자화상은 어두운 음영에 눈이 가려져 있었다. 화가로서 최고의 지위를 얻은 밝고 당당한 모습의 자화상도 있었고, 경제적 궁핍에 찌든 노년의 자화상도 있었다. 렘브란트의 마지막 자화상은 남루한 누더기 의상에 뒤돌아 서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헐벗은 아들이다. 덧없는 삶이라는 방랑을 거친 후에 닿게 되는 귀향의 이미지, 이것이 렘브란트가 남긴 '구원과 깨달음'의 메시지이다.

렘브란트는 평생 자화상을 그려왔고, 자신이 사망한 해에 제작된 자화상도 3점이나 남아있다. 그에게 자화상을 그리는 작업은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묻고 또 묻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나를 들여다보는 일만큼 어렵고 두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나'를 벗어나 '더 큰 나'와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렘브란트의 삶과 그의 작품 〈돌아온 탕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향의 모티프는 토포필리아(topophilia), 즉 특정한 장소애(場所愛)로 국한되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성경의 '탕자', 묘법연화경의 '궁자'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모두 '돌아옴'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랜 방랑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서사는 본래적 자아에 대한 깨달음의 은유다. 본래 자기 안에 있으나 발견하지 못한 그 무엇을 찾아 떠나는 길이 방랑이라면, 귀향은 거칠고 괴로운, 긴긴 방랑을 거쳐서 비로소 도달한 고향집의 문 앞에 서서 느끼는 낯선 친밀함이다.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귀향을 '낯설고, 숭고한 존재의 상태 (Unheimlich)'라는 말로 표현했다.

에고에 바탕을 두는 삶은 끝없는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탐욕의 충족과 쾌락에 탐닉한다. 본래적 자아에서 멀어져 에고를 좇아감은 단지 목적지 없이 헤매는 방황일 뿐이다. 반면, 방랑은 본질적 자아를 찾아 매 순간 깨어, 내면적 성장을 경험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 방랑의 여정에서 인간은 에고로부터 벗어나 고요와 자유, 그리고 존재의 기쁨을 통해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인간은 생의 어딘가에서 평생 긴 그림자처럼 끌고 다니던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을 열고 나올 수 있다. 멀고 먼 방랑의 끝에 비로소 도달하는 낯설고도 친밀한 비밀의 문,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곳이 바로 본래적 자아이며, 그윽한 마음자리요, 곧 진여의 궁극적 진리의 자리일 것이다.

삶이 주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 온갖 번뇌를 지우고 마침내 청정한 지혜에 닿은 듯, 이제는 충분히 늙어버린 렘브란트가 선선한 눈빛으로 조용히 말을 건네는 듯하다. '역경이 축복이었고, 번뇌가 곧 보리였음을!'

기나긴 여행을 끝내고
근심을 떠나서
모든 속박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탐욕의 깊은 못도 건넜고
명예와 속박에서도 해방되었으며
욕망의 독(毒)도 뿌리째 뽑았기 때문이다.

〈소아함경(小阿含經)〉 중에서

〈미술학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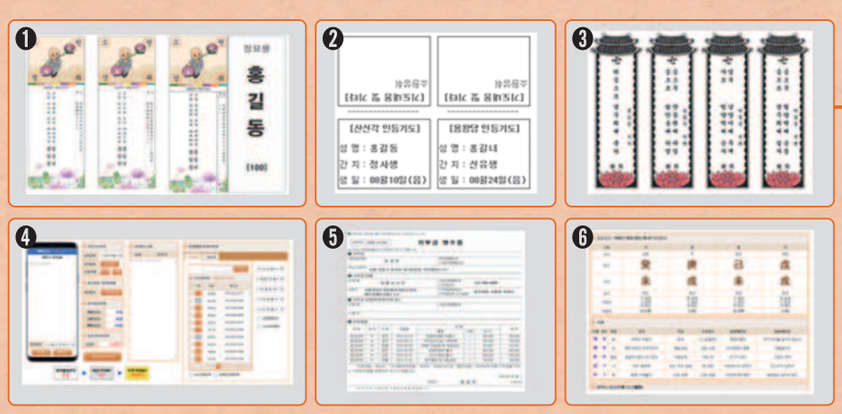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GmSoft GM since 2015 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마음 수행 이끈 추억 첫 장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㉒ 반추



그림 · 박구원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지난여름 일이 문득 떠오른다. 평소 잘 알던 사람이 남해에 내려왔다. 단순한 여행은 아니었고, 군에서 초청한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남해는 지금 한창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조언을 하고자 먼 길을 달려왔던 것이다.

그 사람은 여성이다. 나와 같은 대학을 다녔다. 1학년 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다른 대학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이 축제 때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여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 나도 이성에 대해서는 숙맥인데, 소개할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고민 끝에 같이 강의를 듣던 그녀가 떠올랐고, 어렵사리 말을 걸어 의사를 물었더니 좋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 남영동에 있는 다방(동창들끼리 가끔 만나던 곳이었다)에서 이른바 '소개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 그랬는지 친구 놈을 만나지 못했다. 두어 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왔다. 핸드폰은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연락할 길이 막연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가 그녀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닌가! 흑심을 품은 나는 우정이고 뭐고 친구가 나오지 않은 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도 나와 있었는데 중간에 있던 큰 기둥이 서로를 가려 엇갈렸던 것이다. 운명의 장난이란 참으로 얄궂다.)

그런데 여전히 숙맥이었던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막막했다. 고민하다 강의가 끝난 뒤 불러내 교정에서 더듬더듬 내 뜻을 밝혔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란(짐작하시겠지만) 싫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오래 살지 못한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거절했다.

하긴 다짜고짜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사귑시다 칼을 뽑았는데 선뜻 받아들이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게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셈이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최선책이었다.

이후 나는 이른바 '사랑앓이'를 했고, 그녀는 나만 보면 벌레라도 본 듯 피해 다녔다. 나는 더욱 안달이 났고, 고등학교까지 모범생이었던 나는 그때부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게 되었다.

거두절미하고 한 3년 동안 내 방황은 계속 되었고, 숨바꼭질은 이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갔는데, 가끔 모임에서 만나도 서먹서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친구들은 다 그녀와 말을 트고 지냈지만, 나만은 지금도 서로 존대를 하고 있다.

남해에 내려오고 7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지역 신문에서 그녀가 남해로 온다는 소식을 접했다. 반갑기도 하고, 7년 동안 어떻게 변했나 궁금하기도 해서 강연장으로 나가봤다. 좋으나 싫으나 그녀는 내 첫사랑이라고 할 터이니, 쑥스러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그새 물론 그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다. 마흔도 못 살 거라더니 지금도 쌩쌩하게 활동하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다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일 뿐이었다.

그런데 7년 만에 재회한 그녀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사업가로 성공한 그녀는, 내가 느끼기에 세상 사는 이치에 적응해버린 듯했다. 청춘 시절 보았던 풋풋하고 순수한 모습은 가려지고 대신 능력 있고 실용적인 사람이 자리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강연장을 괜히 찾았다고 크게 후회했다. 만나지 않고 그냥 추억 속의 그녀로 남겨 두었다면 좋았을 걸 불편한 상처만 남겼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한편으로 화도 좀 났다. 뭐랄까, 아름답게 간직했던 젊은 시절 고운 추억에 흠집이 난 기분이었다.

누군가 '모든 사랑은 첫사랑'이라는 놀라운 지혜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첫' 사랑이 여럿일 수는 없는 노릇일 게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낡아지기 마련이다. 아주 오래 전 추억의 기억만 안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질 뿐인가 보다.

나는 "남녀 간의 사랑이란 영원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진부한 주제로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다. 주변에 물어보니 이 물음에 대개 부정적이었다. 어떻게 영원하지 않는 줄 아는가? 당연히 경험이 내놓은 대답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호기심이란 묘한 습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켰겠지만, 때로 '모르는 게 약'이라는 구태의연한 속담이 만고의 진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게 내 '첫' 사랑의 기억은 씁쓸한 한숨으로 남게 되었다. 누가 내 아름다운 추억을 앗아가 버렸을까?

사랑의 괴로움 그대는 아는가?

사랑과 미움에 대한 조언으로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만큼 잘 알려졌고 정곡을 찌른 경구는 없을 듯하다. 부처님은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또 아내를 맞아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아셨을 것이다. 게다가 부처님은 혈육을 넘어 중생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도 말고,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어 괴롭다.

남해서 만난 첫사랑 그녀
예전과 다른 사업가 모습
실망과 함께 수행심 생겨

부처님은 소중한 것은 쉽게 상처받고 손상된다는 지혜를 터득하셨다. 그래서 무욕과 무상의 가르침을 남기셨다.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오욕칠정(五欲七情) 가운데 사람의 심성을 본연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장애가 아닌 것이 없다.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독약이 묻은 비수보다 더 아프고 치명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시들게 만든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한다.

쇠의 녹은 쇠에서 나온 것이지만, 시나브로 쇠를 삼켜버린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올바르지 못한 마음이 그 사람 전체를 삼켜버리고 만다.

여기서 쇠는 사람일 것이고, 녹은 감정이 아닐까 싶다. 감정이 없다면 그게 어디 사람이냐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감정이란 물건이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 세상살이인지라, 스스로 감정을 떨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수행은 없을 것이다.

아주 오래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난다. '백작부인의 첫사랑'인가 하는 제목이었던 것 같다. 흑백 영화로 기억되니 정말 옛날 영화일 것이다.

백작부인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백작이 죽고 과부가 되었다. 이미 나이는 초로(初老)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드는 때였다. 새로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늦었고, 그런 열정도 없어진 지 오래였다. 그때 문득 젊은 시절, 자신이 꽃보다 더 어여뻤을 때 자신에게 구애를 했던 많은 남자들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재물과 명예를 좇아 백작을 선택했다.

홀로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을 향한 사랑에 몸 달았던 그 남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직도 자신을 사랑해서 홀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뜨거운 열정으로 내게 다시 구애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빠졌다. 영화를 보던 나는 '정신 나갔군.' 했지만, 돈만은 누구보다 많은 그녀는 사람을 시켜 그들의 현주소를 알아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지금도 나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아 나섰다.

물론 돌아온 것은 실망과 연민뿐이었다. 어떤 남자는 파산해서 자살하기 직전이었고, 누구는 그녀의 돈을 보고 음흉한 접근을 하기도 했다. 젊고 아름다웠을 때의 그녀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아예 몰라보거나 유혹의 대상으로만 다가왔다.

영화의 결말이 어땠는 지는 기억에 없다. 피라미드조차도 비웃는다는 시간의 공격에 온전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쓸쓸히 백작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살았을까?

백작부인은 과욕을 부려, 그냥 두었으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잘 보듬었을 기억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 자신은 변했는데 남들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다. 이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추억이란 영영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 욕망이란 감정의 녹을 잘 닦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키워 제 몸까지 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랑을 잃고 나는 우네

중용(中庸)과 충서(忠恕)를 평생 가르친 공자긴 하지만, 내가 읽은 〈논어〉를 보면 그 역시 감정에 많이 흔들렸던 것 같다. 열강 중에 조는 제자를 보자 참지 못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백목을 집어던지면서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수제자 안연이 죽었을 때는 하늘이 자신을 버렸다며 통곡했다. 춘추시대 송나라 위령공(衛靈公)의 부인 남자(南子)가 유혹하자 자칫 넘어갈 뻔도 했다. 제자 자로가 말리지 않았다면 큰 사고(?)를 치셨을 것이다.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은 힘이 장사였지만, 첫 부인 시씨(施氏)가 딸 아홉에 불구인 아들을 낳자 새파랗게 젊은 처녀 안징재(顔徵在)를 맞아 공자를 얻었다.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공자도 첫 부인을 버렸다. 우리가 잘 아는 아들 공리는 첫 부인의 소생이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오자 공자는 초상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를 가슴 아파해 공리가 슬퍼하자 공자는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쫓겨난 여자를 위해 운다면서 호통을 쳤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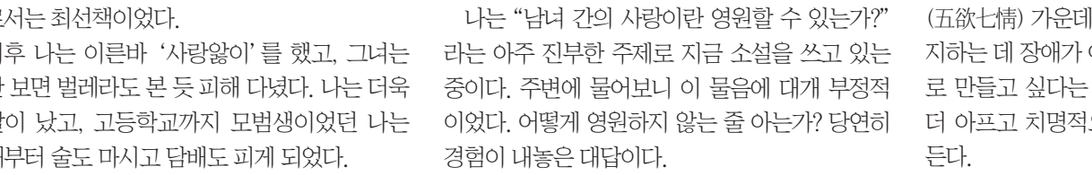
나는 공자가 이처럼 비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가 감정에 잘 흔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사와 인성(人性)의 명암을 간파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 점이 내게는 매력으로 다가왔었다.

우리는 늘 현재가 불안해 과거를 돌이켜본다. 과거를 찾는 마음은 일종의 미련일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집착하는 태도가 바람직할까? 알 수 없다. 그러나 '첫' 사랑의 싱그러운 추억을 구겨버린 나는 과거란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게 되었다.

〈소설가〉

제 56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6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는 신화랑 캠프!
자연 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기 간** : **1**월 **5**일(일) ~ **1**월 **18**일(토) 2주 (각 1주간 또는 총 2주간 신청 가능)
■ **대 상** : 초등학생 및 중학생 (각 주차별 60명)
■ **수련회비** : **1주 – 42만원 / 2주 – 84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계좌안내**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화랑수련회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sunmudoschool
■ **예약 및 문의** : **054-775-1689, 744-1689**

2020년 동해 해맞이 템플스테이 접수

호연지기와 인성 함양 프로그램	원어민과 함께하는 캠프	문화 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학습	다양한 놀이 및 체험 학습
·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승마/국궁 · 나를 찾는 108배, 예절교육(다도 등) · 불교 강의와 발우공양 지도	·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 ·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원어민 사범지도)	· 동경주 유적답사 :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왕릉. 주상절리	· 전통 과자 및 먹거리 만들기 · 놀이를 통한 마음나누기 · 효도 마사지. 호신술 배우기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

점점 힘이드는 분도 마이크와 2m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선명하게 들리고 법문시는 성우 음성이 되어 듣는 보살들이 극찬하는 특수염불시스템

(본 품은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1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특수염불 전문 시스템 구경 :
현재 전국을 돌며 시설중이며, 호출이 오면 부근 사찰 시설시에 방문! ... 소리 구경값 한잔

요즘 보살들의 시대흐름 : 세상 시설 수십억의 음향에 귀가 열려 열악한 사찰음향의 적응에 힘이 들어 말없이 가버리는 시대!

원톱시스템이란?! : 한국의 사찰들이 서투른 지역시설에 맡긴 후 염불스트레스와 땜질보수 속에 이중고를 겪으시는데 원톱시스템에 맡겨 한 번에 최고 시설만이 하자가 없어 수 천번 반복되는 염불인생에게는 오히려 큰 절약이라는 뜻입니다.

특장점! (1) 영남권 20년 1천여 시설에도 단 한번도 A/S가 없었음 (A/S 기간 10년)
(2) 초간편 간단 시설로 앰프다루기 1초
(3) 중견사찰 기존 음향시설비의 $\frac{1}{3}$정도지만 염불소리는 비교시 놀라운 차이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하게 월등함.**

※ 스피커 계속 연결시는 비용추가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HITEC 하이텍 미디어 **하이텍사운드전자**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선교융합으로 공안선 시대 열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㉒ 법안종의 선풍





법안종을 개산한 개산조 법안 문익 선사(사진 오른쪽)와 그의 법통을 이은 제자 천태 덕소 선사(사진 왼쪽)의 진영. 법안종은 선종 5가 중 가장 늦게 성립됐지만, 앞선 종파를 아우르며 중국 선종을 완성시켰다.

법안종 개산조 문익의 행적

법안 문익(法眼文益, 885~958)이 개산한 법안종은 선종 5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성립된 선종이다. 늦게 성립되었지만 앞의 4가를 아우르는 측면이 있어 선종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동시에 중국 선종이 완성되었다.

법안은 절강성(浙江省) 여항(餘杭) 출신으로 7세에 출가하였다. 월주(越州) 개원사(開元寺)에서 구족계를 받고, 아육왕사의 희각율사 문하에서 율을 익히고 유학 등을 배우며 교학에 몰두했다.

법안은 복주의 장경 혜릉을 참문하고도 수행에 진전이 없었다. 어느 해 법안은 도반들과 함께 행각하는 와중, 폭우를 만나 복건성(福建省) 지장원(地藏院)에 머물게 되었다.〈전등록〉

지장원은 현사 사비에게 법을 받은 나한 계침(羅漢桂琛, 867~928)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법안 일행은 하룻밤을 묵은 뒤 떠나려고 나한에게 인사 올렸다. 그러자 나한이 물었다.

"상좌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여기저기 행각하고 있습니다."

"행각의 의도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는 이 말에 동행들은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나한이 법안에게 물었다.

"불교에서는 '삼계(三界)는 오직 마음이고 만법(萬法)은 오직 식(識)' 이라고 하는데, 상좌는 이 뜻을 아는가? (잠시 후, 나한이 뜰의 바위를 가리키며)그렇다면 저 바위는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대는 행각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저 무거운 돌덩이를 마음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가? 얼마나 무겁겠는가?"

법안은 나한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도반들이 모두 떠나고 법안만 절에 남아 한달 동안 열심히 궁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한이 먼저 법안에게 말했다.

"참다운 불법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네."

그 후 법안은 나한의 말에 대오를 하였고, 얼마 후 법을 받았다. 법안의 나이 43세였다.

이후 법안은 강서성(江西省) 임천(臨川) 숭수원(崇壽院) · 강소성(江蘇省) 금릉(金陵) 보은원(報恩院) · 청량원(淸涼院) 등지에서 크게 선풍을 떨쳤다. 958년 74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시호는 대법안선사(大法眼禪師)이며, 저서로는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 · 〈문익선사어록(文益禪師語錄)〉이 있다.

법안의 저서인 〈종문십규론〉은 당시 선가의 병폐(문제점)를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수행 방향을 시정코자 하였다. 이 논은 모두 10단락으로 나누어 있으며, '5가' 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5가의 선사상을 요약하였다. 그들은 옛 조사가 도에 들어가는 '기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 그것을 '일로 삼아 반드시 결택(決擇)하여 분명하게 하는 것을 귀중히 여겼고' , '공안으로써 공부의 길을 채찍질했다' 는 것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간화선 이전, 수행의 길라잡이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법안의 심인(心印)을 고려에 전한 사람은 광종 때의 혜거(慧炬, ?~974)국사이다. 또 법안의 고려 제자로는 노감(露鑑)이 있다.

법안종의 선풍

법안이 화엄사상(참다운 불법은 있는 그대로)을 통해 깨달았듯이 법안종의 종풍은 화엄+선인 선교융합적이다. 〈법안록〉에 '삼계유식송' 이 있다.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며, 만법은 오직 식(識)이다./ 오직 식이며, 모든 것이 마음뿐이라면/ 눈으로 소리를 듣고, 귀로는 색을 보아야 하건만/ 색이 귀에 이르지 못하는데 소리인들 어찌 눈에 닿겠는가!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야 만법을 이루리라(일체의 존재가 식별됨)./ 만법이 인연이 아니라면 어찌 허깨비와 같은 (만법을) 관찰할 수 있겠는가!/ 산하대지에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무상한 것인가!(三界唯心 万法唯識 唯識唯心 眼聲耳色 色不到耳 聲何觸眼 眼色耳声 万法成辦 万法匪缘 岂观如幻 山河大地 誰堅誰變)"

삼계유심 · 만법유식이란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마음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함을 시사한다. 즉 우리가 느끼고 보는 모든 외부 경계는 자기의 마음을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법안의 '원성실성송(圓成實性頌)' 이다.

법안문익 개산… 5가 중 마지막
앞선 4가 아우르며 中선종 완성
'화엄+선' 선교융합 종풍 강조해
천태덕소 · 현칙 감원 등 법통 계승

"지극한 이치는 생각이나 말조차 없는 것, 어찌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가?/ 서리 내린 밤, 달이 내려와 무심히(任運) 시냇물에 떨어진다./ 과일이 익으니 원숭이와 함께 더욱 더 무겁고/ 첩첩산길에 길을 잃은 듯, 석양빛 보려고 머리를 드니/ 원래부터 서쪽인 것을….(理極忘情謂 如何有喩齊 到頭霜雪夜 任運落前溪 果熟兼猿重 山長似路迷 擧頭殘照在 元是住居西)"

여기서 원성실성은 원만히 모든 것을 깨달아 마친 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은 이런 마음을 가을 달에 비유하고 있다. 법안이 말하는 원성실성은 그대로 무심의 세계인 선의 경지인데, 모든 것은 진여의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본대로 법안의 선풍은 화엄사상과 선의 결합인 선교융합이다. 한편 법안종의 선풍은 강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북송 시대로 접어들면서 쇠퇴하였다. 하지만 염롱 · 게송 · 착어 등 법안종의 선풍은 송대 송고(頌古) 문학과 공안선 시대로 전개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법안종 2세 천태 덕소

천태 덕소(天台德韶, 890~972)는 법안의 제자로서 천태학과 선의 융합을 도모하였다. 천태는 절강성 처주부(處州府) 용천현(龍泉縣) 사람으로, 18세 때 출가하였다. 출가 후에 여러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 다녔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천태가 당시 찾아다닌 선지식이 54명이라고 할 정도로 천태는 스승과 법연이 없었다. 천태는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법안을 찾아갔는데, 인연이 되었다. 법안은 첫 눈에 천태의 근기를 알아보았다.

덕소가 법안의 도량에 머물던 어느 날, 한 승려가 법안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계의 물 한 방울입니까(如何是曹源一滴水)?"

"조계의 물 한 방울이다(曹源一滴水)."

법안이 대답을 하자, 그 승려는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천태가 오히려 법안의 말에 개오하였다. 천태가 자신의 오도(悟道) 경지를 법안에게 아뢰니 법안이 말했다.

"그대는 뒷날 마땅히 국왕의 스승이 되어서 조사의 도를 크게 빛낼 것이다. 나는 그대의 근기에 미치지 못한다." —〈법안록〉 · 〈직지심경〉

이렇게 법안은 제자 천태에게 겸손하였다. 이런 기연을 계기로 천태는 법안의 법을 받았다. 이후 천태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절강성(浙江省) 천태현(天台縣) 천태산으로 옮겨가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의 유적을 중수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선사를 '천태지자의 후신' 으로 여겼다.

당시에는 천태 교학이 거의 소멸된 상태였다. 천태는 사신을 보내어 고려 충의왕(忠懿王)에게 고려에 유통되고 있는 천태교전을 그대로 베껴 올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단절 위기에 놓여 있던 천태교학이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천태 덕소는 선종 승려이면서 천태교학에 마음을 기울여 '선+천태' 의 선교융합적인 토대를 이루었다. 이런 면은 후대 중국 근대 승려들에게도 나타난다.

971년 천태산 화정(華頂)의 서쪽 봉우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온 산천이 진동하였다. 천태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자들에게 공포한 며칠 후에 열반에 들었다. 세수는 82세, 법랍은 65세였다.

법안종 2세 현칙 감원

법안 문하에 현칙(玄則) 감원이 있다. 감원(監院)이란 사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소임으로 현 우리나라로 치면, 부주지격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칙은 스승인 법안에게 법을 묻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법안이 감원에게 물었다.

"자네는 이곳에 머문 지 23년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내게 법을 묻지 않는가?"

"스승님에게 묻지 않는 것은 별 뜻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청봉(靑峰) 선사 문하에서 한 소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자네가 얻은 경지를 말해보아라."

"제가 청봉선사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사가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선의 경지를 얻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대가 잘못 안 것 같구나. 한번 설명해보아라."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병(丙, 火의 兄)' 과 '정(丁, 火의 弟)' 으로, 모두 불을 취급하는 신을 말합니다. 화신(火神)이 불을 구하고 있는 것은 마치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너 따위가 알 리가 없지, 네가 잘못 알고 있군." 현칙은 스승의 이 말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이런 스승 밑에 있어봐야 내가 이득될 게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찰에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 그렇게 도망을 나가 양자강을 건너 멀리 떠났다. 그러다 갑자기 스승의 말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스님 같은 분이 내게 그런 말을 했다면,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법안에게 돌아갔다. 마침 이 무렵, 법안도 현칙이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현칙 수좌는 아까운 수좌이다. 다시 돌아온다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각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현칙이 돌아와서 스승에게 사죄 인사를 드리며, 법안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병정 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丙丁童子來求火)."

-〈벽암록〉 7칙

이는 '본래 모든 것을 구족하게 갖춘 부처인데, 새삼스레 다시 부처가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미이다. 실라성의 미남자 연야달다가 머리를 갖고 있으면서 머리를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머리를 갖고 있으면서 머리를 찾는다는 장두멱두(將頭覓頭)는 〈수능엄경〉4권에 수록되어 있다. 마음 밖을 향해서 부처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이들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이 말에 현칙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현칙은 이전 선사에게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고, 법안에게서 대정각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처음 깨달음이나 두 번째 깨달음이나 같은 내용이지만, 법안과의 기연으로 깨달은 것은 시절인연이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창종

– 사단법인 국제불교승가회 –
대광불교조계종

종정 보승 덕산 총무원장 도현

임원진

원로원장 원성 | 원로부원장(부산교구원장) 지현 | 종회의장 서암 | 교육원장(경남교구원장) 도엽
국제포교원장 정담 | 감사원장 원종 | 사정원장(전남교구원장) 보운 | 호계원장 혜원

법사단 회장 금강심 | 사단 이사장 김태형 | 이 사 손진구, 강유석, 이정문, 김도엽 | 감 사 진은정, 신은숙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장례문화 및 납골당
- 사업승려 등 수행자 복지사업 교정 다문화 전통문화사업

입종안내
- **구비서류 :** 승려 및 법사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사진 3매 / 법당 안 사찰건물, 사찰간판 각1매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1부
- 입종 종도는 승려증(법사증)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 한해서 위촉장 및 추대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사암의 재산권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 종단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종무행정을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운영 원장 도엽스님
- 창원문성대 출강 / 평생교육실습전문기관
- 동양 심리상담 2급 지도자 과정 http://www.boepo.co.kr

문화관광부등록 제7호 (법인등록번호 231021-0002747)

총본사 - 회룡사
경남 사천시 사남면 가천안길44-66 / 010-4001-8476

총무원 - 용주사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 634-19 / 010-4505-7435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 1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2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3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

지금은 다시 오지 않는다



新 불교사자성어

㊸ 일기일회(一期一會)

'일기일회(一期一會)'는 '일생에 단 한 번 밖에 없는 기회' 또는 '일생에 단 한 번 밖에 없는 만남'이라는 뜻이다. 주로 다도(茶道)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문구로 '이번 만남은 내 생애 단 한 번 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일이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일기일회는 법정 스님이 수필집 제목으로 쓰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사자성어다. 법정 스님은 수필 〈일기일회〉에서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때그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일 뿐이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했다.(필자가 정리한 것임)

일기일회는 다석(茶席), 즉 찻자리를 마련한 주인, 초정자의 마음가짐을 나타낸 말이다. 지금 당신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이 순간은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없는 매우 소중한 자리, 소중한 만남, 소중한 시간이므로, 정성을 다하여 차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이다. 물론 차를 대접받는 입장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구나 세 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런 기회는 한 번도 쉽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한 번의 기회나 만남은 매우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생애 단 한 번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 순간마다 정성,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성을 다한다면 무슨 일이든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날마다 찾아오는 날이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이다. 그래서 젊은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만일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두가 여한이 없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기일회'라는 말은 중국 진(晉)나라 원언백(袁彦伯=袁宏)의 '만세일기 천재일회(萬歲一期 千載一會)'에서 비롯된 말이다. '일기(一期)'란 일테면 '그는 7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한 주기(週期), 즉 일생을 말한다. 그리고 '일회(一會)'는 딱 한 번(一)의 만남(會)을 뜻한다. '천년에 한 번뿐인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남의 의미가 진정 소중하고 새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옷깃을 한 번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한다.

선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만남)를 일기일회(一期一會)로 표현하기도 한다. 선사, 스승과의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법거량과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선승들이 깨달음을 이룬 인연이나 계기를 살펴보면 거의 한 번의 대화, 즉 한 번의 선문답에서 깨달음을 이룬 경우가 많다. 깨닫기 위하여 좌선을 하지만 실제 좌선 중에 깨달은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스승, 또는 선사와의 만남은 진정한 일기일회로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찻자리 뿐만 아니라 법회에 모인 것은 매우 드문 행운의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지나고 보면 한두 번에 불과하다. 하고는 싶어도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선생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어학은 나이를 먹으면 거의 어렵다. 그러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필요 여부를 떠나서 배워야 한다.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 시간에 친구를 만나면 술이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이나 보게 된다.

지난 초봄에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제목이 선불교적인 제목이고 또 다도를 주제로 한 영화였는데, '일기일회'에 대하여 글을 쓰게 된 것도 이 영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차를 매우 좋아한다. 정식으로 '다도(茶道)'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작설차, 보이차, 말차 등 다양한 차를 마신다. 때론 차 때문에 오는 손님도 있고, 또 초청하는 경우도 있다.

다선일여(茶禪一如). 차는 곧 선의 세계이고 부처의 세계이다. 차를 마시면서 부처의 일을 논하면 부처가 되고 선을 논하면 선사가 되고 세속사를 이야기하면 중생, 세속인이 된다.

일기일회. 당신과 만나는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일생에 딱 한 번 밖에 없는 만남. 젊은 날이 다시 오지 않듯이 현재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어떤 것이 부처인가?



격절록 강설

㊸ 제16칙 무업망상(無業妄想)

[古則과 拈古와 着語]

擧, 僧問無業國師 "如何是佛" (可晒新鮮) 國師云 "莫妄想" (蒼天蒼天) 雪竇拈云 "塞却鼻孔" (知他死來多少時也) 僧又問 "如何是佛" (第二重公案) 國師云 "即心是佛" (滿口含霜) 雪竇拈云 "拄却舌頭" (啞那)

어떤 스님이 무업 국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가히 햇볕을 쬔 것처럼 신선하구나!]

국사가 말했다.

"망상 떨지 말라(莫妄想)!" [아이고, 아이고!]

설두가 염(拈)했다.

"콧구멍을 막아버렸다." [그가 죽은 지 꽤 되었음을 아는구먼.]

어떤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두 번째 공안이다.]

국사가 말했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即心是佛)." [입안 가득 서리를 머금었다.]

설두가 염했다.

"혀끝으로 떠받치고 있다(=말문을 막아버렸다)." [벙어리냐?]

[評唱 1]

無業國師 商州上洛人 母聞空中曰 "寄居得否" 覺乃有娠 生而有光滿室. 出家後講經律 并涅槃般若等論.

(분주) 무업 국사는 상주 상락 사람이다. 어머니가 공중에서 "기거득부(寄居得否, 잠시 얹혀살아도 되겠습니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태기가 있음을 느꼈는데, 태어나던 날 빛(光, 神光)이 방에 가득했다. 출가 후에는 경과 율(經律) 그리고 아울러 〈열반경(涅槃經)〉과 〈반야경(般若經)〉 등의 논서(論)를 강의했다.

及見馬祖 祖器之 乃問 "巍巍堂堂 其中無佛" 師於是問曰 "三乘等學 某粗知其旨 常聞禪門即心是佛 實未能曉" 祖云 "即今未曉底心即是佛 更無別佛"

(그리고는) 마조를 친견했는데, 마조가 그릇임을 알고 물었다.

"외외당당한데,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국사가 이에 물었다.

"삼승의 가르침은 제가 배워서 대략 그 뜻을 알지만, 듣자하니 선문(禪門)에서는 늘 즉심시불(即心是佛)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알지를 못합니다."

마조가 말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지, 달리 부처가 없다."

(마조와 무업의 문답은 다음 주 계속 이어집니다)

*분주무업(汾州無業, 760~821): 당대의 스님. 남악 문하. 분주는 주석 지명. 속성은 두杜씨. 상주(섬서성) 상락 출신. 9세에 개원사 지본스님에게 수학하고 12세에 삭발, 20세에 호북성 양주 유 율사에게 수계함. 4분율에 뛰어나고 대반열반경을 강의함. 후에 강서성 홍주의 마조 도일에게 배우고 심인을 받음. 여러 성지를 순례하고 오대산에서 대장경을 열람함. 후에 산서성 분주 개원사에 주석함. 시호는 대달大達국사.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㊸ 이해의 길 23

대승경전 붓다 말씀 아닌가?

〈서유기(西遊記)〉는 삼장법사가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를 데리고 서역으로 유람을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이 이야기는 삼장법사 일행이 손오공의 활약으로 요괴를 물리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인도로 여행을 떠난 이유는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다. 삼장법사(三藏法師)가 삼장(三藏)을 구해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중국인들이 인도어로 된 경전을 번역하는 1천년 대장정의 역사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중국인들은 근본경전, 대승경전 가릴 것 없이 구하는 대로 모두 번역하였다. 당시만 해도 경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희박했기 때문에 모든 경전이 붓다가 직접 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은 붓다가 입멸한 후 4~5백년이 지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붓다의 친설(親說)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대승경전이 붓다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는 붓다가 부활해서 설한 것이 된다. 그렇게 믿는 것은 자유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승경전이 석가모니 붓다의 친설이라고 오해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로 시작되는 경전의 형식 때문이다. 모든 경전은 '한때 붓다께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대승경전이 불설인가 아닌가 하는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지금도 남방에서는 석가모니 붓다만 인정하고 대승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대승은 붓다의 말씀(佛說)이 아니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서 부처 불(佛)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하다. 먼저 고유명사로 해석하면 부처(佛)는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가 된다. 그렇다면 대승이 석가모니 붓다의 친설이 아니라는 주장은 옳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문제다.

두 번째는 일반명사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부처(佛)는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깨친 사람(覺者)'이라는 의미의 일반명사가 된다. 그렇다면 대승은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주장 역시 옳은 것이 된다.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붓다의 말씀은 아니지만, 당시에 치열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설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붓다가 되는 길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불교가 서구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붓다가 된다고 해도 신성모독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다.

그런데 대승불교 당시 출현했던 붓다들은 왜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여 마치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쓴 것처럼 경전을 구성했을까?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해도 되는데 말이다. 여기에는 스승인 석가모니 붓다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이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일야(一也)라는 이름의 비구가 열심히 수행해서 붓다가 되었고, 자신이 깨친 내용을 엮어 〈일야경〉이란 책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다만 그는 자신이 아니라 석가모니 붓다가 저자인 것처럼 형식을 구성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어찌 보면 제자가 책을 썼지만, 너무도 존경했던 돌아가신 스승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혹자는 근본경전은 석가모니 붓다의 입으로 직접 설한 불구경(佛口經)이고 대승경전은 붓다의 뜻을 나타낸 불의경(佛意經)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대승경전은 찬불승들이 붓다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깨친 붓다가 설한 가르침이다. 그들이 설한 대승경전은 석가모니의 근본정신을 새로운 시대에 녹여낸 사상의 금자탑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 역시 대승불교를 일으킨 주역에서 결코 빠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마하야나문화원, 청소년시설 수탁

대구 청소년문화의집 '아름드리'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사장 선지)은 11월 27일 대구 동구에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아름드리'를 수탁했다. 아름드리는 동구 율하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자리하며,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설 규모는 부지 1300㎡에 연면적 2950㎡로 지하1층 지상5층이다. 37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어 문화의집 규모로는 큰 편에 속한다. 내부에는 1층 청소년카페와 미디어체험실, 2층 영어학습실과 북카페, 3층 동아리 및 회의실, 4층 밴드 · 요리 · 댄스 · 체력단련실, 5층 대강당 등을 갖췄다.

동구청에서 진행된 위탁식에서 배기철 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정책사업 역할과 서비스 허브 등을 수행하도록 애정으로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선지 스님은 "그동안 법인의 청소년시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의 문화와 정서적인 아지트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아름드리는 이번 위탁에 따라 12월 11일부터 3년간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운영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고추장에 담은 불자들 온정

진안 사찰들, 소외계층 고추장 후원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 고림사(주지 성목)는 11월 23일 진안자원봉사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진안홍삼고추장 대축제에 동참,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층 세대를 후원하기 위해 진안 특산물인 홍삼고추장을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했다.

고추장축제에는 각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해 탑사 나누우리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고림사 봉사단과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등 이웃종교단체가 함께했다.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진안 지역 4대 종단을 비롯한 봉사자들과 오랫동안 봉사활동에 동참해왔다"며 "다가올 추위로 힘들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홀몸 어르신들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길 바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남 종무원사 건립 태고종 발전 마중물"

Interview

태고종 경남교구 17대 종무원장 환명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종무원사 부지 진입로 문제
적극 소통으로 해결에 앞장
지역 강원 관리해 출가 확대
소임자 임명과정 투명하게

"태고종 경남교구 종도들의 숙원 사업인 종무원사 신축을 이뤄 터전을 잡고, 후학양성 및 종무행정 시스템을 확립해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제17대 종무원장에 당선된 환명 스님은 11월 28일 경남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태고종 경남교구는 이날 마산 관음정사에서 '제17대 종무원장 종책 발표 및 당선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환명 스님은 경남교구의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 앞에서 종책과제를 설명하며 "경남교구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환명 스님은 '종무원사 신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종무원사 건립은 종도들의 숙원사업이다. 종무원사는 공동의 과업이며 현재 경남 함안에 마련된 종무원사 후보부지 진입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활동하고 노력한 스님들과 소통해 반드시 종무원사 신축을 알리는 첫 삽을 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명 스님은 "안으로는 후학양성과 종무행정 시스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태고경남강원 학인수가 감소하고 있다. 위상과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차별화된 강원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법계고시 자동 응시자격을 중앙종회를 통해 종법으로 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환명 스님은 종무행정을 위한 시스템 확립에도 방점을 찍었다. 스님은 "종법과 행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매뉴얼을 제시해 어느 누가 소임을 보더라도 교구의 모든 종도들이 인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형화 된 업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모든 소임자의 임명도 능력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명 스님은 '포교홍보사업'과 '직할 공찰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스님은 "종무원장은 모든 종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고, 교구 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종무원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종무원 직할 공찰 관리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삼보정재가 망실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명 스님은 1969년 구미 해운사에서 출가 후 동화사 및 직지사 말사에서 수행을 이어오다 성봉 스님과의 인연에 따라 태고종으로 이적했다. 태고종 경남교구 부원장, 경남교구 종회의장, 태고종 총무원 초심원 부원장, 밀양불교사암연합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오산 약수암 주지를 맡고 있다. 무료급식과 범음범패로 지역 포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 재능 뽐낸 삼광사 도량

전국 중 · 고등학생 대상 2019 청소년 가요제 개최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청소년을 위한 가요제를 열고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펼치도록 도왔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11월 23일 경내 지관전에서 '2019 청소년 가요제 IN BUSAN'을 개최했다. 가요제 예선은 10월부터 두 달 간 전국의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총 70여 팀이 신청했다. 본선에는 10팀이 출전해 끼를 뽐냈다.

본선에 진출한 10팀 중 최우수상은 박해원 학생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GARNET, 장려상 김민서 학생, 응원상 FUNLIEST가 선정됐다. 나머지 6팀에게는 격려상이 수여됐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참가자들이 열띤 공연을 펼칠 때마다 박수와 호응으로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삼광사 청소년 가요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무대에서 갈고닦은 끼를 뽐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댄스 퍼포먼스 대회에서 우승하며 아시아챔피언 타이틀을 얻는 아너브레이커즈와 사회를 본 미스트롯 출신 강혜민 씨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입시에서 벗어나 산사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드러내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광사는 11월 25일 경내에서 부산 다문화가족 김장나눔 문화제를 개최했다. 김장문화제에는 삼광사 신도회를 비롯해 자원봉사가 등 700여 명이 참여해 김장 1만 포기를 담갔으며, 자비의 쌀 10kg 1000포를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 3000세대에 전달했다.

김장에 사용된 배추 1만 포기 가운데 일부는 천태종 단양 구인사에서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배추로 알려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호스피스 돕는 명상수련

환희불교복지대학, 환희노인요양원서 개최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산하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은 11월 21일 환희노인요양원 5층 강당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명상 수련 수처작주 입처개진'을 개최했다. 명상수련에는 학장 지현 스님과 김기호 지도법사(내원정사 템플스테이) 및 호스피스 봉사자 등 병원 관계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남 공무원 소명의식 되새겨

경남불자공무원연합회, 관룡사서 창립기념법회



경남불자공무원연합회(회장 백유기)는 11월 23일 창녕 관룡사 대웅전에서 창립 제18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백유기 경남불자공무원연합회장은 "공무원으로서 마음가짐과 멸사봉공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된다"며 "개인 수행정진과 더불어 서로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는 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환자들 쾌유 지극히 기원"

사하구불교연합회, 한우리요양병원 작은음악회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법인)은 11월 21일 한우리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매년 봄과 가을,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가족,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는 사하구불교연합회장 법인 스님과 총무 송우 스님 등 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ONIC
CAFE & BAKERY

카페 비토닉의
오리지널 블랜딩 커피,
아름다운 부산항과 하나 되다.

카페 비토닉 www.cafebtonic.com T. 051-997-448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6층 / 6F, 35, Haeyang-ro 247beon-gil, Yeongdo-gu, Busan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1호 | A13 | 전면광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한세상뿐이지만, 불경은 무수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을 제도하여 열반의 도를 얻게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재의식 속성 지도도량

49재 천도재 속성지도합니다.

사찰 포교원 암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없이 염불소리로 재의식을 여법하게 진행할수 있게 속성으로 지도합니다. 관심있는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4주완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4
중앙시장내 법공스님
010-4382-3448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세이상 가족같이 지내실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893-3705

부 전 스 님 모 십 니 다

010-2078-9595

암자에서 노스님 봉양하면서 참선을 배우고싶은 젊은 보살구함

육신의영생법 저자 **보승** 올림

010-9243-0993

전문 상담사 양성 무료교육

◎ 대상 : 종교인, 장애자, 극빈자 ◎
◈ **출장전문 무료교육내용** ◈

철학, 한의학, 심리학, 점술, 신경성질환, 성교육, 부부문제 **암, 우울증 극복, 성격분석**

◒ 본원 : 서울, 경기양주, 심리철학관 ◒

正翰 李東起 010-4078-7810

비법

구하는 게 틀림없이 얻어진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睍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

청곡 이한동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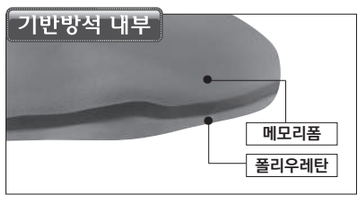
02)2004-8216 / 010-3747-8692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

지도 성낙윤 010-5282-843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불자정보

1271호 | A14 | 전면광고

명예욕과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자경문》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강남건물 안내

- 가액 : 39억 5천만원
- 위치 : 서울 서초구 논현역 1분, 신사역 5분
- 대지 : 78평(3층) 연면적 : 165평
- 규모 : 지상1층 ~ 5층 2009년식, 승강기

010-5334-9814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외
◎ 요사 : 60평,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1층-공양간 (방3개,화장실), 2층-방3,화장실, 3층-법당,3존불,지장불상,칠성,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5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별채 : 큰방1. 거실1. 화장실1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역학이나 무속신앙 하시는 분도 가능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1-5567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건물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등산로 접함
- 주차가능, 공기맑고 텃밭있음
- 건평 : 30평, 국유지 90평
- 보증금 5천만 / 월 50만

010-3885-8989

사찰·터(암자,포교당)상담전문

살분⟷팔분

- 사전문 중개한 경력이 많음
- 전국 보유하고있는 정보 많음
- 비밀보장, 일 처리가 원만합니다.
- 성심성의로 상담합니다.

(불자업소)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멋진 2층상가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총 217평

1층 : 상가 약 45평(방6개)
2층 : 주택 약 35평(방3개.거실. 화장실)잔디마당 및 조경좋음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38평 ● 요사 : 65평
- 대지 : 1천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 4층건물 2층, 30평, 법당, 삼존불, 방3개, 식당, 화장실2개
- 보증금 1천만 / 월 60만
- 시설비 500만
- 스님 건강때문에 급매

010-3884-0122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148-2번지, 북여주IC. 동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기도터로 좋은 대지.전답(650평)
- 토지 : 2148m²
- 건축물면적 : 135.49m²
- 가액 : 4억5천

010-9506-2549

포교당 안내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전세5천만원/월세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도로변 상가건물 2층
- 132m²(40평) 법당, 접견실, 방1, 주방, 화장실

010-2535-9910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지리산 청학동)
- 부동산 양도
  1. 한옥: 건평 155평, 대지 1,180평 / 15억 5천만원.
  2. 유스호스텔: 건평 230평, 대지 600평 / 9억원
  3. 전답: 700평 / 평당 35만원
- 블로그: https://blog.naver.com/ree3101

010-3835-713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 2층건물에 2층, 약 80평 쑥뜸방 약 20평 겸업, 고정수입 있음.
- 삼존불 봉안, 호신불, 108불
- 보증금 250만 / 월 35만
- 시설비 4000만
- 역학하시는 분이나 법사 환영

010-9422-1233

종교물건안내

- 영양암자, 영덕농가
- 미니폐교, 작은토지
- 사찰적지
- 컨테이너 있는 토지
- 다양한 물건

010-8899-8899

사찰 안내

- 위치: 경주 동국대에서 10분(차량) ● 대지 약250평, 하천부지(100평, 추가 사용) / 현재 100평사용하는 밭과 또 다른 밭300평은 (3년 전에 사용했던 묵밭)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 건물: 법당 30여 평/ 요사채 2층 건물 1동, 스페트 건물1동, 종무소 1동 ● 특징: 버스(20분 간격 왕래), 2차선 도로(정류장)에서 절까지 200m이며, 산 끝에 위치. 산속 생수는 1급수(가재)로서, 1년에 겨울 3달만 얼며, 9개월은 수돗물 사용 안함 (기본료) 정남향. 밭의 머우와 앞산에는 자연산고사리, 취나물, 삼주등 서식. ● 가액: 3억1천 (부동산사절)

010-9388-0215

전망좋은 암자

(청정 바닷가)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명길 82-5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10만원 또는 보증금 1천만원 / 월세20만원
- 매매도 가능함

010-8643-5235

◑ 입종 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영등포 신길역(1/5호선) 5분거리(시장 인접)
- 3층 건물 중 2층. 40평
- 상담실(데방). 스님방. 법당(17평. 시설완벽)
- 오래된 포교당. 스님 건강 상 양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7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2-848-1774
010-3167-1774

사찰(급)다용도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 대지173평, 임야(밭)39평
- 건축 : 1층식당 7평(32평6홉) 방5개, 거실1, 실내화장실3개, 실외2개, 2층다용도(삼존불)외 논17평5홉
- 상수도, 용천수, 산천수(풍족)
- 가액 : 2억9천만원(절충가능)
- 농협은행 1억7천만원 담보대출

010-9612-102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3323-700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일인 스님의 '암송시험' 합격

日법상종 1천년 전통 수의의식 도전해

박영빈 객원기자

1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법상종의 암송시험인 '수의(竪義)'를 통과한 독일인 스님이 화제다. 11월 2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유서 깊은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독일출신의 자이레 교에이(Saile 暁映) 스님과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지난 11월 13일 밤, 일본 나라시에 소재한 천년고찰 코후쿠지(興福寺)에서는 법상종의 개조인 규기대사의 유덕을 기리는 법회, '자은회(慈恩会)'에 맞춰 특별한 행시가 열렸다. 법상종의 교학을 구두로 시험하는 '수의(竪義)' 의식이다. 코후쿠지의 수의의식은 981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내려온 유서 깊은 행사다.

수의의식은 철야로 진행되며 법상종의 논서에서 총 10문제가 출제된다. 초기에는 실제 질의응답이었으나, 후대로 가면서 문제지와 답안지가 확정돼 수험자는 모든 문제의 답안을 한 글자도 틀림없이 암송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막대한 양의 한문암기가 필수이고 10문제가 무작위로 출제되기에 모든 문제를 급제한 이는 여태껏 없다.

수의의식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약 한 달간 시험의 답안지를 모두 암기한다. 단순 암기가 아닌 암송시의 운율이나 예법을 교육받는 습의도 함께 진행된다. 이 기간 중에는 오후불식과 묵언을 지켜야 한다. 누워 자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도량의 모든 전각에서 예불을 올리는 등의 수행이 이어진다.

철야로 이어지는 법상종 의식

한문논서 10문제 무작위 출제

생애 단 한 번만 응시 가능해

"외국인 출가자 합격 이례적"

이처럼 특별한 시험이기에 법상종의 승려는 노소를 불문하고 생애 단 한 번만 응시할 수 있다. 그 무게가 막중해 수험자가 불합격 시 재적사찰에서 추방된 전례도 있다. 단 합격자는 어엿한 학승으로 인정받고, 본산 산내 암자의 주지가 될 수 있는 등용문이기도 하다. 이런 수의의식에 법상종의 본산인 코후쿠지 소속의 스님이 수험자로 나선 것은 8년만이다.





법상종 수의시험에 합격한 자이레 스님. 오른쪽 사진은 흰 가사장삼을 수하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스님.

이번 시험에 합격한 자이레 교에이 스님(41)은 독일 함부르크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일본고전문학을 전공했다. 이후 오사카 외국어대학과 버클리 대학의 대학원에서 불교문학과 불교학을 공부했다. 2010년 일본중세 법상종의 유식학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교토의 류코쿠 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것을 인연으로 이듬해 코후쿠지로 출가했다.

스님은 이래로 코후쿠지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주 대상으로 불교와 법상종의 교학에 대한 설명, 대중강연 등 다양한 포교활동에 전념해 왔다. 그 가운데 더욱 깊은 교학적 이해와 스스로의 수행을 다잡기 위해 수의시험에 응시했다.

스님은 시험을 합격한 소감에 대해 "꼭 동아리나 스포츠클럽의 합숙훈련을 마친 느낌이다. 한창 예비수행과 문답 중에는 매우 엄격했지만, 끝나고 보니 뭔가 알 수 없이 쓸쓸하다"며 웃어 보였다. 스님은 "처음 수의에 응시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혹독하다며 걱정했지만, 나로서는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의 수행이었다"고 전체 과정을 회상했다.

코후쿠지 측은 "외국인 출가자가 수의에 합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자이레 스님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 "(수의시험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으리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불교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소개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중독자, 자비 명상으로 '제2인생' 찾다

英 노팅엄 불교센터, '영적 각성' 통해 중독 치료

영국 노팅엄 불교 센터(Nottingham Buddhist Centre)가 약물 또는 알콜 중독자들의 '환골탈태의 장'으로 거듭났다. 약물 · 알콜 중독자들을 위한 불교 명상법과 요가 등을 실시해 그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중독 치료를 돕는 것.

노팅엄포스트는 11월 27일(현지시간) "1993년 설립된 노팅엄 불교 센터에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약물 · 알콜 중독자들의 '파괴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었는지 알아봤다"면서 노팅엄 불교 센터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센터는 19세기 레이스 마켓(Lace Market) 지역의 낡은 레이스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다. 불교 명상, 요가, 불교 문헌 공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일주일 동안 평균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방문한다.

노팅엄 불교 센터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넘는 사카나마(Saccanama)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스님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단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라며 "우리의 불교는 조금 더 실용적"이라고 소개했다.



노팅엄 불교센터에서 명상을 통해 자신의 악습을 바라보는 내담자들.

사진출처=노팅엄포스트

그러면서 사카나마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더 긍정적이고 통합적이며 평온한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고 했다.

노팅엄 불교센터가 약물 · 알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명상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악습'을 스스로 바라보고 깨닫게 한다.

16년 전 헤로인 등 약물과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센터에 방문한 맨디 콘웨이(56 · 여) 씨는 "사고의 낡은 파괴적인 패턴을 보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된다. 나는 50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칼미크 출신 '자야 판디타' 기리다

판디타 탄신 420주년 기념 칼미크 국제불교 학술대회

불교도가 조용히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에서 뜻깊은 학술대회가 열렸다. 11월 19일 불교전문 인터넷 외신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러시아의 칼미크 자치공화국에서 열린 국제불교 학술대회의 모습을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의 칼미크 자치공화국 쿠룰시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는 11월 15~1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유라시아의 불교문화와 영적인 유산: 역사 문화적 흐름의 문헌과 구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칼미크 출신의 저명한 논사 '자야 판디타 남카이 잠초(1599~1662)' 스님의 탄신 42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미국 · 캐나다 · 독일 · 중국 등 10여 개국의 불교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칼미크 대학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측은 "이번 대회의 주요 목표중 하나는 러시아와 해외 과학계의 관심을 불교의 문학적 유산보존에 환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개회사를 맡은 러시아-몽골 달라이라마 대표부 대사인 뗄로 린포체는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철학이자 과학"이라고 강조하며 구 소련당시에도 러시아에서 불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러시아 칼미크 자치공화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의 모습.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대회에서 발표된 주제들은 대부분 칼미크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불교 전래사, 몽골어로 번역된 티베트 불전, 자야 판디타 스님의 저술과 문화적 영향 등이었다. 또한 구소련 공산혁명과 함께 역사에서 잊힌 자야 판디타의 세부적인 인물 연구는 참석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러시아의 젊은 불교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자야 판디타 스님은 몽골족이 진출한 최서단인 오이라트 지방의 코슈트 부족에서 태어났다. 1615년 티베트로 유학을 떠난 스님은, 당시 최고의 논사이자 수행자였던 4대 판첸라마의 문하에서 4년간 교학을 연찬하는 등 약 20여 년간 수행과 교학연구에 집중했다.

오이라트로 돌아온 스님은 오이라트, 칼카 등 서북부 몽골부족은 물론 칼미크 지방까지 포교에 힘썼다. 자야 판디타의 가장 큰 업적은 당시 불명확했던 몽골어 문법과 문자를 정립한 문법서의 편찬이다. 이 문법서는 1940년대까지 칼미크와 몽골에서 사용됐다. 또 186권의 불경과 논서를 티베트어에서 몽골어와 오이라트어로 번역했으며, 이 번역서들은 근대까지 칼미크 지방에서 강원 교재로 사용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 중인 로힝야족들. 사진출처=VOA

ICJ 제소된 미얀마 "총력 기울여 방어"

로힝야 학살에 감비아 소송… 미얀마 법률 검토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 감비아가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얀마를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이에 대해 총력 방어전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 25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우키아우 틴트 스웨 국가자문역실 장관과 우 키아우 틴 국제협력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감비아의 소송을 국익과 관련한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고 법률 전문가들로 법률팀을 구성해 감비아 주장에 정면 반박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소송 전 과정에서 국가 대표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스웨 국가자문역실 장관은 부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감비아는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미얀마를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통찰명상

조셉 골드스타인

〈3〉 감정과 지혜롭게 관계 맺기

감정은 내가 아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생각은 견해와 판단, 비교 등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수행에서 매우 중요하고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행에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 삶과 유연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명상 수행과 일상생활에서 감정은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함께하기가 가장 어려운 경험의 영역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기 힘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형체가 없습니다. 감정은 분명한 경계도 없습니다.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체 감각처럼 만져지지도 않고 생각처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와중에도 거기에 뒤섞인 여러 감정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는 데 깊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분노, 흥분과 슬픔 등 강렬한 느낌의 한가운데 있을 때면 '나'라는 강한 자아 감각이 그것과 함께 일어납니다. 신체 감각과 생각의 일시적이고 비개인적인 성질을 알아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감정의 비개인적인 성질을 알아보기는 신체 감각이나 생각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비개인적인 감정'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감정은 우리의 경험에서 '가장 개인적인'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풍부하고 복잡하며 각양각색인 감정 세계를 이해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감정 대처법 3단계를 통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첫 단계는 감정이 일어날 때 각각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우, 수행 중에 커다란 슬픔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슬픔은 며칠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슬픔, 슬픔…"이라고 명칭을 붙이며 슬픔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뒤 나는 이 느낌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실은 슬픔이 '아닌'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느낌에 더 가까웠습니다. 슬픔과 행복하지 못한 느낌은 매우 비슷하게 느껴지나 면밀히 살피면 아주 다릅니다. 나의 내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자 그 느낌은 더 이상 막혀 있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개별 감정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에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 꽉 막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 너무나 불쾌하고 불편한 나머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감정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회피합니다. 이것을 부정(denial)이라고 하는데 두려움, 수치심, 불안, 외로움, 분노, 지루함, 당황스러움 등 많은 느낌에 대해 우리는 부정이라는 마음 패턴을 작동시킵니다. 이 느낌들과 단순히 함께하지 못하고, 상황을 지금과 다르게 바꾸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루함과 외로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처럼 담정의 대역에 온전히 열리지 못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의 성질을 보지 못하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들을 계속 피해 다녀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에 따르는 불쾌감을 가만히 느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연습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독성 행위의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힘겨운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남을 알고 인정하면 거기에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열리면 장자가 말한 '만 가지 기쁨과 만 가지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인식할 때 알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감정이 흔히 무리를 지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의 무리에서 가장 두드러진 느낌만을 지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 밑에서 그 느낌을 키우는 다른 느낌들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커다란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가장 잘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분노에 따르는 다른 감정들, 예컨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 정당성(self-righteousness)의 느낌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감정에 따라오는 감정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면 괴로운 감정에 오랜 시간 걸리고 막힌 채 지내야 합니다.

현상으로서 형체 없는 감정
'나'라고 동일시할 수 있어
각양각색인 감정세계 알려면
미묘한 차이 관찰해야 한다

지금까지 감정을 다루는 첫 단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강렬한 느낌에 대처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현대 서구에서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유익한 방법입니다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반드시 필요한 토대입니다. 그것은 유익한 감정 또는 마음 상태와 유익하지 못한 감정 또는 마음 상태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가 나와 타인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면 유익하지 못한 마음 상태이고,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면 유익한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는 아주 분명하게 유익하거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함을 능숙함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능숙함이란 우리를 행복과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능숙하지 못함은 행복과 자유가 아닌 괴로움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탐욕, 화, 무지가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 상태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또 너그러움, 사랑, 연민, 이해가 가치 있는 마음 상태임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기가 모호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유익하지 못한 감정 또는 마음 상태가 마치 유익한 마음 상태인 것처럼 위장해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슬픔을 연민으로 잘못 아는 때도 있고, 심지어 분노를 연민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관심을 평정심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서로 비슷해 보여도 매우 다른 성질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낳는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라는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듣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에 열린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열렸다면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 마음 상태가 능숙한지 능숙하지 못한지 살피는 것입니다.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마음 상태인지, 아니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마음 상태이면 더 키워야 하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라면 지나가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선택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언제나 나에게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명한 분별력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자유는 갖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내면에 어떤 감정이 존재하는지, 또 그 감정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조건화된 패턴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조건화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심 행복을 원하면서도 계속 고통에 걸려 있게 됩니다. 이 점을 깨달을 때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자유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을 다루는 세 번째 단계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심원한 벗어남을 선사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온갖 감정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나'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나'로 동일시하는 것, 즉 감정을 자아로 여기고 감정을 '나'라고 간주하는 것은 불필요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화가 나." "슬퍼." "행복해." "불안해"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이 감정을 경험하는 마음 상태를 '나'로 강하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긴장되고 수축되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긴장되고 수축되는 이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정을 자신으로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마음에 커다란 고통을 만들어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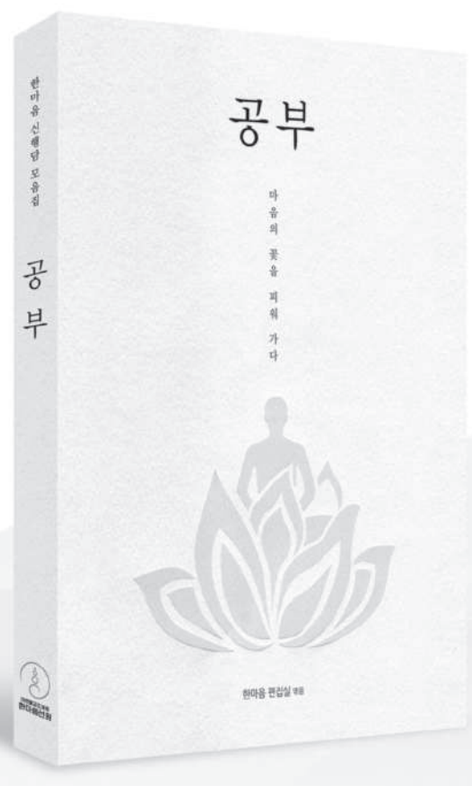
명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감정을 비롯한 다양한 마음 상태는 어떠한 본래적 성질도 갖지 않은 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감정은 특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일어나며, 또 그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감정은 누군가 본래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어나는 감정을 받는 대상, 감정을 경험하는 '누군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각각의 마음 상태와 감정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욕망하는 주체는 '욕망'이라는 감정 자체입니다. 두려워하는 주체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화났다"는 표현과 "이것이 화이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표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이 작은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커다란 원천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의 참 의미는 감정에 대한 열림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경전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 상태와 감정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감정은 분명한 뿌리도 없고, 머무는 집도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자아로 강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유유히 떠가는 구름을 한곳에 매어두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비롯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열린 하늘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유유히 사라질 때까지 놓아두는 법을 배운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글은 조셉 골드스타인의 〈통찰명상〉(마음친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모가 난 것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대인이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다름이 아니오라 부처님 뜻과 우리 큰스님 원력과 지원에 계시는 저희 스님들 힘을 빌려 광주에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그것을 짓는 것도요, 불사를 하게 되는 것도 정신계로는 일체 만 불(萬佛), 그 빈손들이 다 같이 더불어 해 주는 거고요, 산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내서 전부 같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다 만든 사람한테서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예요.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느 회사가 양회를 했다 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벽돌을 했다 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나무를 켜서 말려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죠. 뭐, 물 불 다 들죠, 거기. 그러니까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없고,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혼자 한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대신에 너희도 나한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쪽에서 준 것도 없고 이쪽에서 한 것도 없으니, 없는 가운데 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천세계의 묘법이 광대무변하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왜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했죠. 몸뚱이 속에 많은 생명들이, 보살들이 들어 있는데 보살들이 부처님하고 더불어 같이 있어요. 부처님하고 보살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처님 마음에서 한생각을 내면 보살들이 되죠. 지장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아촉이 되고, 미륵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그냥 한생각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자동적으로 수백억의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그 한마음 속에서 탄생을 해 가지고 그냥 모두 약사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거는 부처님이 애써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자동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그 많은 생명들에게 한마음으로 항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질문자2(남) 저희가 관법(觀法)을 하고 있는데 '한마음!' 하고 '한마음 주인공' 또 '마음의 선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 · 최주현

큰스님 '이 귀신 망치야!' 이래도 그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만 지극하게 했다면 '이 귀신 방귀씨야!' 이래도 되는 거죠. 허허허…. 사실은 그 이름이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먹는 뜻이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놈 저놈 한다고 해서 "아휴, 부처님더러 어쩌면 '요놈, 저놈, 너' 이러느냐." 하는데 '너' 이러는 건 그냥 보통 말하듯이 '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중하게, 너무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도 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라고 그런 거지,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라고 그런 거지 둘로 본다면 모셔야죠. 지극하게 모셔야 되지만, 둘로 보지 않는 까닭에 너라고 하는 것이니 너무나 이게, 그건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재(豫修齋)를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천도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주 법계의 일체제불 불보살님 등, 귀신까지도 전체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데, 그때의 예수재라는 거와 또 조상님 천도했을 때의 그 마음 천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큰스님 예수재는요, 지금 우리 부모가 어디 먼 데를 간다고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사십시오." 하고, 당장 가서 방을 얻고, 당장 가서 뭐, 쓸 때 쓰고 살 걸 사고 그래야 하니까, 또 뭐 사 잡숫고 싶은 거 사 잡숫고 이러라고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혼자 미국으로 보내 드린다면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사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노인네들이 금방 옷을 벗으면 혼이 벗어나서요, 지금 이런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죽어서도 감을 다 잡죠. 감만 잡는 게 아니라 인도자까지 생기죠. 이끌어 주는 인도자가 생기는데, 보살들이 이끌어 주죠.

그런데 공부를 영 모르고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혼백이 그냥 아는 집으로 떠돌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 떠돌거나 그래서 "나는 저기 가야 할 텐데 배가 없어 못 가고 있다." 하는 혼백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전에 얘기했죠. 빠져 죽을까 봐 못 가고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간다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기 때문이죠. 모습이 있으니까 타 죽고, 모습이 있으니까 빠져 죽고, 그렇게 살던 습이 있어서 죽었는데도 모습이 없이 의식적인 마음만 있다는 걸 모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떠돌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다가 잘 걸리면 좋지만…, 영혼들이 원래는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가다가, 단속을 하고 그래 가지고서 이름을 불러서 개개인을 차원대로 보내 주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떠도는 혼백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천도를 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 서너 번 해야 되는 집이 있고, '아, 저 집은 참 갸륵하다, 모두 잘들 지내고 잘들 살아서 저렇게 천도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자손들이 하겠다고 그럴 때는 '그러면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건 자손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 기리는 마음을 그대로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천도재를 안 해도 되는 집이 많아요. 덮어놓고 돈이나 벌고 그러려면야 뭐, 그저 누구나 다 그냥 하라고 하겠지만 난 어떤 땐 그래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러죠. "이다음에 벌어서 부모한테도 효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해." 그럽니다. "어려운 집에서 남의 돈 취해다가 하면 그거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 하고 도로 줍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내 행동을 볼 때는 어려운 집이니까 조금 가져와서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집에서 몇십만 원이라는 것이 큰돈이죠. 어려운 집에선요.

질문자2(남) 그리고 국내외로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뭐, 출가자도 있을 수 있고, 기복 불교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같이 이렇게 관법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국내 전체로 해서 천도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천도가 되는지, 아니면 불법만 믿어도 그냥 천도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게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의 주인을 가지고, 내 집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주인이 있다면 금방 닥쳐오는 거를 팍 대치를 해서 그냥 탁 처리하는데, 기복으로 믿는 사람은 불러서 끌어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죽고 난 뒤에 오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지은 대로 산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질문자2(남) 결국은 천도가 된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큰스님 그거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 신도님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 주인을 믿느냐에 따라서, 집주인이 얼마나 대치를 해 주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질문자2(남) 네. 그리고 불(佛) · 법(法) · 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중에 스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그 스님들 마음의 공(空)자리에 귀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발승 제자분인 그분들한테 귀의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대통령을 믿으면 비서도 믿듯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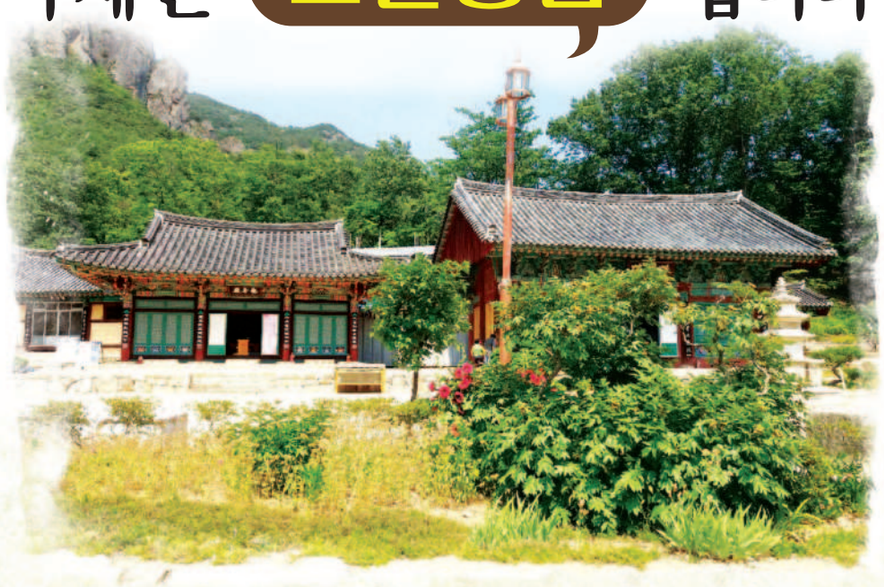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서가 이 법을

☞ A18면으로 계속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진짜로 공부하려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 A17면에서 계속

모두 배출시키거든요, 법을 향해서. 불(佛), 즉 말하자면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깨쳤다면 모두 부처님이죠. 마음에서 이렇게 그 법을 정하면 그걸 받아서 불과 승(僧)이 둘 아니게 법을 배출시킨다라는 얘기죠, 중용으로.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머리를 안 깎았더라도 공부를 해서 법이 수승하다면 스님들께서도 그 사람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지?

큰스님 그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마힐 거사 당시에 부처님도 계셨고 유마힐 거사도 있었는데 그때에 부처님도 유마힐 거사의 그 마음을 동등하게 여겨 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동등해도 유마힐 거사가 떨어지느냐 하면 벌써, 부처님 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탈을 쓰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가르쳐 주는 거는 부처님과 유마힐 거사가 동등하게 같이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유마힐 거사가 하시고, 유마힐 거사가 할 수 없는 거를 부처님이 하시고 이렇게요. 이게 마음을 깨달았으면 서로 둘이 아니게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같이 돌아갔으니까요.

질문자2(남) 저희 선원에서도 역대 조사님 같은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되겠고 또 유마힐 거사님 같은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우선 자기의 자성(自性)을 보려면 자성 화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지금 스님께서는 주인공한테 돌려놓고 또 맡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외에 자기 참회나 요런 것이 더 어떻게 겸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외에 더 할 것이 있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 외에 할 것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회장직이라든가 또 고문직이라든가 또는 총무직이라든가 부회장님직이라든가, 또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공부가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그르고 옳고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공부가 벌써 아니 되죠. 모가 난 것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대인이 되죠. 요거는 요렇게 탈을 잡고 저거는 저렇게 탈을 잡고 이런다면, 그 탈이 난 거와 탈이 안 난 거를 한데 합쳐서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다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다 초월하고 대치해서 넘기려면,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그저 둘 아니게 보고, 저쪽에서 이쪽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고 듣더라도 그건 자기가 '그러냐' 고 듣고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말을 또 저쪽에다 딱 그냥, 그렇게 잘못하고 나가느냐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부를 하려면 둥글게 말할 줄 알고, 모가 난 것도 둥글게 행할 줄 알고, 우리가 원형으로써 하면서도 찰나찰나 법이 서 있단 얘기죠.

질문자2(남) 네, 질문 다 했습니다.

큰스님 다 하셨어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하하….

질문자3(남) 법상 앞에서 이렇게 뵙긴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큰스님 네.

질문자3(남)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체험담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죽비는 제가 맞고요, 또 지금 저와 같이 잘못 가시는 분들에게도 경계가 되어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맞는 건 맞는 대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틀린 건 틀린 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의 체험담을, 공부 아닌 공부를 한 거를 말씀드리고 점검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동생의 소개로 처음 여기 법당 안을 들어섰을 때는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전날에 제가 아주 참 신비한 꿈을 꿔서 그 꿈 해몽을 해 달라고 동생 집에 갔다가 그 동생이 '아, 그렇지 않아도 오빠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던 참인데 잘 오셨다' 고 하면서 결국 선원에 오자고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생이 가자는 대로 자석에 끌리듯 이곳에 와서 그때 처음 스님께서 하시는 법문을 듣고, 바로 이 법당에 들어와서 동생과 같이 함께 잠시 참선 정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시간은 불과 한 4,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마자 이 법당 안 전체가 붉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기 벽에 원이 그려져 있는 그 부분에서는 조그마한 불빛이 일어 가지고 제게 다가왔고 그 사이에서 파란 불빛 하나가 다가오면서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그 커진 불빛 자체가 텔레비전 화면처럼 화면이 되었고, 그 화면 속을 들여다보니 나 아닌 나가 절벽 밑 개울가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절벽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 어느 한 여인이 하얀 두루마기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긴 마후라는 머리를 감싸 목 밑에 맸는데 바람에 휘날리는 게 참 얘기 그대로 선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닌 대행스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한 3미터 정도의 기다란 채찍을 들고 계셨는데 그 아래 정진하고 있는 나 아닌 나를 향해서 세 번 채찍질하시면서 "정진하라, 정진하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 찰나 그 채찍 끝이 제 옆구리에 와서 세 번 철썩철썩 와 닿는 느낌과 동시에 그때 참선에서 깨 가지고 하도 신비해서 일어나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오빠가 공부할 곳은 여기니까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지금 가서 다시 대행 스님을 뵙도록 하라' 그래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대행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나이에 같은 병이 들었어도 의사의 처방이 따로따로 나오듯이, 스님께서 저의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경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그때 당시 또 다른 절에 나가면서 가지고 다니던 『천수경』하고 『반야심경』, 「법성게」가 들어 있는 수첩이 있었는데, 그것도 빼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진으로만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의정도 없었고 사십 평생에 처음 있었던 체험이라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옷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옷 벗기 전에 이 도리를 꼭 알아 둬야 자기 2세가
또 무의 세계에서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이유로 이 공부는 안 해서는 안 되는 공부입니다.

그다음부터 일어났던 체험담은 다음으로 미루고, 경을 보지도 말고 정진으로만 일심으로 밀고 나가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스님의 말씀을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의정을 삼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뜻밖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대행 스님께서는 저에게 경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그렇게 일심으로 정진에만 몰두하라고 하셨나 해서, 도대체 경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내 자성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자성에서 이르기를 "경은 결코 씨앗이 될 수 없느니라. 경은 내 마음의 논밭을 일구고 내 마음의 잡초를 걷어 주는, 마음의 논밭에 잡초를 걷어 주는 도구와 같으니라. 또한 너희가 몸에 때가 묻었을 때 때를 씻어 주는 목욕물과 같은 것이지 결국 씨앗은 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은 도대체 뭘 보고 씨앗이라고 하느냐?" 라고 다시 또 되맡겼습니다. 그러자 내 자성에서 이르기를 "씨앗은 바로 너의 행이 씨앗이니라. 그리고 이 씨앗은 곧 업인데 너의 행이 바르지 못했을 때는 그게 악업이 되고 너의 행이 바를 때는 선업이 되는 건데, 그 업 또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바로 행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생각 내는 게 미래였고, 또 그걸 실천에 옮겨서 행했을 때가 현재였고, 그것이 끝났을 때가 과거여서 그 행이 끝난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내 자성에 "그럼 그 근본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고 다시 맡겼습니다. 그러자 내 자성에서 이르기를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밤과 낮이 생기는데 낮이 되었을 때는 밤은 어디로 가더냐?" 했습니다. 또 "밤이 되었을 때는 낮이 어디로 가며 낮이 되었을 때는 밤이 어디로 가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전으로 해서 사계절이 생기는데 봄이 되었다가 여름이 오면 봄은 어디로 가더냐? 또 가을이 오면 여름은 어디로 들어가더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장마철에 뇌성벽력이 이는데 그 뇌성벽력은 어디서 나왔다가 어디로 들어가더냐? 또한 뇌성벽력으로 인해서 천지가 진동하는데 그 진동 소리는 어디서 나왔다가 어디로 들어가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차, 바로 이거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항시 대행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자리가 바로 여기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저도 모르게 한 번 손뼉을 쳤습니다. 치면서 하는 말이 "일타만타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손뼉은 왜 쳤으며 일타만타는 뭔가 했더니, 바로 일타는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 부싯돌을 한 번 번쩍 튀겼을 때에 방 안의 모든 물체가 번쩍하는 순간에 보이듯이, 우리가 마음 한 번 내고 한마디 하고 던지는 그거는 어느 한 곳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사방 천지 두루 흐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한 번 치는 건 무슨 뜻이냐고 다시 맡겼더니 "그 손뼉 한 번 치는 속에 이 세상 천지만물을 비롯한 온 우주가 그 안에 들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길해서 '아, 그게 부싯돌 한 번 튀기는 거와 같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자성에서 다시 이르기를 "이 세상 모든 업전의 흐름은 산울림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산울림과 같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산 위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질렀을 때는 분명히 돌아오는 거는 좋지 않은 소리가 돌아오고, 또 우리가 좋은 소리를 던졌을 때는 분명히 좋은 소리가 돌아오는 것, 그 이치와 같이 "산울림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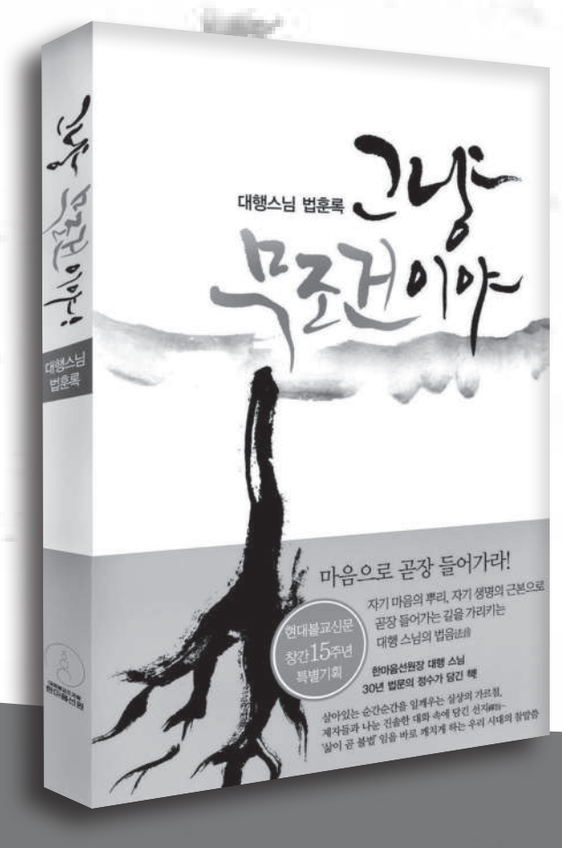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 도리는 명심해서 알아 둬야 되느니라." 하면서 얘기하기를 "경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앞서 가는 노인의 짐 한 번 같이 나누어 들어 줌만 못하고 또 염불을, 즉 말하자면 주문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절에서 절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길 잃은 노인의 길 한 번 바르게 인도하여 집 찾아 줌만 못하고, 초하루 보름에 아무리 음식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두 손이 그야말로 종잇장이 되도록 빈다 하여도 옆에 배고픈 사람과 한술 밥 나눠 먹음만 못하느니라. 이 도리를 아는 자만이 지옥으로 가는 길, 극락으로 가는 길, 또한 열반으로 가는 길이 따로 없는 줄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로 이 세계는 내 유무공(有無空)으로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락, 지옥, 열반 세계가 다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든 것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장하오다, 네. 장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할" 하고 한 번 하는 거와 손뼉 한 번 치는 거와 뭐가 다르겠소. 지팡이 한 번 쳐서 울리는 거와 뭐가 다르겠소. 하지만 한 번 손뼉을 치지 않아도 친 것과 둘이 아니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소. 그러니까 열심히들 해서 저 처사의 소리를 듣고 귀감을 삼기를 바라요. 모두가 참 지극히 잘했어요. 잘했다는 건 말뿐이지 상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 데서 받겠지. 알았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다 한 시루에서 콩나물이 잘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해요.

(합장하시며) 그럼 이제 내려가도 됩니까? 하하하…. 하여튼요, 웃으면서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옷 벗을 날이 얼마들 안 남았어요. 옷 벗기 전에 이 도리를 꼭 알아 둬야 자기 2세가 또 무의 세계에서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위 법문은 1994년 12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이게 '나'입니다

이미령
칼럼니스트



회색 · 빛바램 합성한 '그롬브레'
'염색 않고 흰머리 살기' 유행

염색 필수 시기엔 흰머리 불편
주위서 염색 조언 · 권유 이어져
'나'인채로 있을 용기 필요했다

은퇴, 가치있는 삶의 기회이며
흰 머리는 이를 알려주는 신호
건강 위해서 '그롬브레' 권한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인기 연예인들이나 유명 정치인들을 영어로 '셀러브리티(celebrity)'라고 한다. 간단히 줄여서 '셀럽'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무엇을 입고 먹느냐는 언제나 화젯거리다.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느라 바쁘다.

염색하지 않은 흰 머리카락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 시대 최고의 셀럽이 아닐까 한다. 머리가 하얀 채로 다니는 중년들을 아주 많이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더 이상은 염색하지 않고 흰머리 그대로 살기'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회색인 그레이(grey)와 빛바램의 뜻을 가진 옴브레(ombre)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 '그롬브레(grombre)'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머리카락이 허연 여성들 사진이 등장한다. 당장이라도 "염색할 때 됐네"라는 잔소리가 튀어나올 만한 사진들이지만, 요즘은 이게 유행이어서 일부러 빛이 바랜 듯한 톤으로 염색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 유행은 반가워서 나도 따르고 있다. 나도 동년배들보다 일찍 머리가 세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끝없이 염색하라는 조언과 권유를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염색이 그리 반갑지 않았다. 아무리 천연염색제라고 해도 그게 내 머리에 과연 좋을지 의심스러웠고, 거울 앞에 서면 흰 머리카락이 올라왔는지를 습관적으로 살피는 것도 피곤해졌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세는 대로 그냥 지내는 건 어렵지 않다. 문제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다. "어? 이제 보니 흰머리였네"라는 소릴 들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나기까지 했다. 엄살이 아니다. 그건 용기였다. 실제로 머리 염색을 멈추고 흰 머리카락 그대로 다니다보면 "용기 있네요"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기 때문이다. "그렇지요"라고 웃으며 대답하지만 나는 속으로 말한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인 걸요"라고. 내가 나인 채로 당신을 만나는데 용기가 필요할 것까지 뭐가 있는가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게 인생일진대 머리는 염색해서 젊어 보이고는 싶고, 지하철에 자리 나면 먼저 앉고는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흰머리는 청춘의 대열에서 완벽하게 떨어져나가는 걸 뜻하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내 인생과 세월이 내게 준 훈장이 아니겠는지….

〈중아함경〉 '대천나림경'에는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린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내 머리를 손질하다가 단 한 올이라도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

어느 날 아침 신하는 백발 한 올을 발견하자 황금 족집게로 뽑아서 왕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백발을 보고 왕이 노래했다. "내 머리에 백발이 났네/수명은 갈수록 줄어드는구나/천사는 이미 이르렀거니/나는 이제 도를 배울 때로다."

천사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생로병사 이치를 의인화한 것이다. 왕은 이렇게 노래한 뒤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왕좌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그 수행을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그 길을 나선 것이다.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검고 왕성한 힘을 자랑하던 시절은 세속에서 지내지만 그 시간은 얼마나 힘이 들던가. 경쟁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쌓아야 하고 모아야 하고 올라가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빼앗겨야 하고…. 그 끝없는 투쟁의 쳇바퀴에서 언제나 하차하게 될까? 왕은 그 날을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는 순간으로 정했다. 은퇴는 패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흰 머리카락은 그 시기를 알려주는 천사가 아닐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롬브레를 권하고 싶다.

社說

소외이웃 돌봄이 佛法 실천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불교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홀로사는 노인이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자녀를 비롯해 저소득계층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비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쌀과 연탄, 김장김치, 방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실천이다. 서울 조계사는 최근 김장김치 6500㎏을 담가 지역 돌봄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봉은사도 12월 7일 김장축제를 열고 약 90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제선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찰, 단체들이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홀로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나기가 큰 걱정이다. 난방에 필요한 연탄 구입마저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10년 넘게 전 기장판을 쓰며 화재에 노출되기도 한다.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사회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불황으로 불자가정 경제가 팍팍한 형편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눔과 협동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이 현실에 실현돼야 함을 설하셨다.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의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여, 그리고 헌신이다.

보살행은 입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인간을 위한 불사, 이웃을 위한 불사를 진심으로 할 때 바로 스스로 정진하는 과정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적은 금품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나누는 자비의 행렬에 동참해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도록 하자.

쉬운 문화재 안내판 개선 환영한다

"이 비의 비갓은 팔작지붕형이고 지대석(地臺石)은 땅에 묻혀 있다. 비문(碑文)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다." 이는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안양 삼막사 사적비의 안내판 내용이다. 팔작지붕, 지대석 등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안내가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문 안내판을 만들었을 터이니 외국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같이 문화재 안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안내판들이 쉽고 재미있게 개선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문화재청은 전국 1,392건의 문화재에 설치된 약 2,500여 개의 안내판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 중에 있다.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은 정부혁신 사업으로 2022년까지 약 3,500여 건의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문안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간 문화재 안내판은 전문 학술서나 교과서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왔다. 한문 위주의 전문 용어들로 현재 한글 세대가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문화재 안내판에는 문화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으며, 지역 설화 등을 반영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했다. 상상도나 도상으로 문화재의 이해를 돕는 것도 눈길을 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리 좋은 문화재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불교계 역시 어려운 불교미술용어를 대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의 대중화는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걷자! 푸른 하늘 위해

출퇴근길, 1시간을 걷는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차를 이용하지 않으니 교통비가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다고 했다. 무엇보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져서 차로 출퇴근할 때보다 여러모로 마음에 여유도 생겼다고 했다. 매일 "빨리 빨리"를 반복하며 아이를 등교 시킨 뒤, 숨 가쁘게 차를 몰아 출근하는 나로서는 어쩌면 힘겨울지도 모르는 그의 출퇴근길 걷기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차를 이용할 때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걷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건강과 사색, 교통비 절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의 걷기는 '환경'이라는 네 번째 토끼까지 잡는 소중한 걷기가 아닐까 싶었다.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해 환경 보전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실천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의 환경 주제는 대기오염 퇴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의 날 슬로건으로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을 정했다.

지구상 92%가 오염되거나 위험한 수준의 공기를 흡입하고 있고, 매년 대기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5조에 달한다고 하니 나의 한걸음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한걸음의 보시, 한걸음의 자비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해도,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오늘의 한걸음을 시작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봄만 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로 학교마다 체육시간 바깥 운동이 금지되어 아이들을 슬프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중국 탓을 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11월 발표된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공격해 왔다.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황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중국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 3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2%, 대(對)일본 영향은 25%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대전, 부산의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체 기여율이 51%로 나타났다.

중국의 영향보다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이 보고서대로라면 이제 중국 탓을 멈추고 우리 스스로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더욱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11월 23~24일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제21차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를 연 까닭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다 함께 힘을 모아 동북아의 맑은 하늘을 되찾아야 한다는 자각에서다.

3국 환경장관들이 모여 앉았다고 당장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할 때 장관들의 만남이 힘을 얻을 것이다.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 지인이 환경장관보다 힘 있어 보이는 이유다. 나도 낙엽 떨어진 가을 끝자락의 길, 푸른 하늘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뎌 봐야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탈 종 공 고

• 법 명 : 천 공 (속명 / 김성식)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37-5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존하는 간다라시대 최대 사원인 '탁트이바히'를 참배하는 조계종 대표단. 큰 돌과 작은 돌을 빈틈없이 쌓아올려 만든 사원은 순례자들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사원이 자리한 산자락 아래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헬레니즘 꽃핀 간다라 '환희의 불교'

특별기획 동서 문명 교차로 파키스탄을 가다

① 간다라문명 발상지, 페샤와르

② 아소카왕의 고향, 탁실라

③ 목숨 건 전법 여정, 길기트

대한불교조계종은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했다. 싯다르타 고행상을 간직한 라호르박물관을 시작으로 히말라야와 힌두쿠시 · 카라코람산맥이 만나는 훈자, 아소카왕의 고향 탁실라, 간다라의 옛 수도 페샤와르까지 파키스탄 북부를 중심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과거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가 된 파키스탄. 알렉산더와 아소카왕, 마라난타 스님의 발자취가 깃든 파키스탄 구법 순례기를 간다라문명과 불교가 퍼져나간 페샤와르-탁실라-길기트 · 훈자 순으로 3회에 걸쳐 지역별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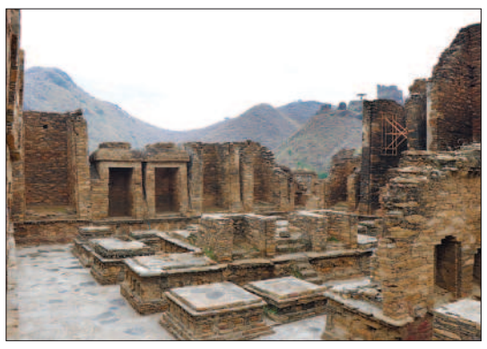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근대 영국 식민지를 거친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4일 독립을 선포한 신생국가다. 펀자브(Punjap), 아프간(Afghan), 카슈미르(Kashimir), 신드(Sind), 발루치스탄(Baluchistan)의 글자를 딴 파키스탄(Pakistan)은 '순수한 땅'을 의미한다. 이슬람국가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한 이름이자 2억 명의 인구 중 97%가 무슬림인 나라. 얼핏 불교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 이곳에는 고대 불교 역사가 인더스강을 따라 면면히 흐른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불교도의 손길이 좀처럼 닿기 어려운 국가라는 점은 파키스탄에 대한 신비감을 더한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출장이 확정된 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혹시 모를 '위험'이었다. 이슬람국가에 대한 정보가 워낙 부족하고, 탈레반과 IS, 알카에다 등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소식을 뉴스에서 많이 접해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 없었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파키스탄을 '여행자제' '철수권고' 등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파키스탄에 대 한 국내 인식이 이러하니 우리나라 직항 비행기는 없다. 인천공항에서 방콕으로, 그리고 라호르로 총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파키스탄에 도착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발을 디딘 파키스탄의 첫인상은 안타깝게도 '대기오염'이었다. 공항 밖을 나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자동차 매연이 후각을 괴롭힌다. 과장을 조금 보태 공장 굴뚝 위에 서 있는 느낌이다.

현지시각으로 밤 11시가 넘어 도착한 파키스탄 라호르. 피곤한 심신과 숨쉬기 어려운 부정적인 인상을 안고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숙소로 향했다. 모든 캐리어는 호텔에 들어가기 전 검색대를 거쳐야 한다는 안내에 한숨이 쏟아졌다.



탁트이바히 사원 경내. 불상을 모셨던 감실과 크고 작은 탑들의 기단부가 남아 있다. 사원벽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물도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현재 페샤르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탁트이바히는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복원기술력이 좋지 않아 원형과 복원부분의 차이가 느껴진다.

간다라 최대 사원 '탁트이바히'

순례의 시작점은 라호르였지만 간다라문명의 발상지인 페샤와르는 일정이 다 끝나갈 때쯤 방문할 수 있었다. 위아래로 길쭉한 땅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이기에 순례 동선을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걸 새삼 느꼈다. 순례 말미에 방문한 페샤와르를 파키스탄 순례 연재의 첫 순서로 정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곳이 간다라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불교도로서 간다라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성인이 된 알렉산더가 BC 335년 동방원정에 나서면서 페르시아를 정벌하고, 힌두쿠시산맥을 넘어 인더스강까지 진출하면서 중앙아시아 곳곳에는 고대 그리스의 정신과 문화를 잇는 '헬레니즘(Hellenism)'이 탄생한다. 특히 간다라는 알렉산더에 의해 점령당한 뒤 그리스계의 지배를 받으며 헬레니즘이 깊게 배어들었다. 이후 BC 80년 무렵 흉노에 쫓겨 피난 온 대월씨국이 자리를 잡고, 쿠샨왕조를 형성하면서 세계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다라미술'이 발전했다. 국내 교과서에 실리는 고타마 싯다르타의 고행상이 대표적이다.

페샤와르는 라호르에서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약 4~5시간을 달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닿은 뒤 서쪽으로 2시간가량을 더 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그 멀다는 서울-부산보다도 더 멀기 때문에 한국인에겐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물론 중국여행에 비할 바는 아니다. 페샤와르는 페르시아어로 '고지대의 요새'란 뜻이지만 이곳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푸르샤푸라(Purushapura)'라는 도시였다. '인간의 도시'란 의미인데 페샤와르가 푸르샤푸라에서 이름을 유래했다는 설도 전해진다.

페샤와르까지 가는 길은 제법 멀었지만 큰 불편은 없었다. 국가 경제력에 비해 도로가 비교적 잘 정비된 파키스탄이었다. 무엇보다 대우건설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라호르를 잇는 왕복 6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한 게 도움이 됐다. 파키스탄 GDP의 절반이 해외원조라는 말을 실감했다.

페샤와르 인구는 약 2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넘는 라호르나 350만 명이 사는 이슬라마바드에 비하면 인구대비 지역 개발이 꽤나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12〉

B4
출판
강행원의 〈금까마귀 들락날락〉

B5
문화
'미얀마의 불교미술' 展



페샤와르박물관에 소장된 대형 간다라불상 앞에서 조계종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고 있다. 페샤와르박물관은 1907년 빅토리아기념당을 고쳐 개원했다.



페샤와르박물관이 소장한 싯다르타 고행상. 라호르박물관의 고행상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궁극의 예술로 태어난 부처님 '傳法 향기'

세계미술사에 획 그은 '간다라'
간다라 수도였던 페샤와르엔
헬레니즘 반영된 불교유적 多
규모 가늠키 어려운 사원부터
부처님 일대기 담긴 조각상도

선배 수행자들의 노고 마주한
조계종 스님들 '환희'와 '감동'
"우리도 이곳에 살아보고 싶다"
각종 유물, 대승불교 형태 예배
간다라에 있었다는 증거로 추정

'파키스탄 페샤와르'

B1면에서 계속

도심 곳곳이 1970년대 우리나라 지방도시를 연상케 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이 드문 것이다. 라호르 · 이슬라마바드에서 수많은 여성이 편하게 거리를 활보했다면, 이곳은 도심에서도 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은 시골일수록 보수적인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페샤와르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어지는 '키베르 패스'의 관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으니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페샤와르는 간다라왕국의 수도였던 만큼 간다라문명 최대 사원을 간직한 지역이다.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198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탁트이바히(Takht-i-Bahi)가 있다. 이 사원은 1세기에 건축돼 7세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페샤와르를 떠나 탁트이바히에 근접하자 제주도 오름처럼 낮지만 수많은 초록빛 산봉우리가 반겨준다. 라호르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강줄기를 낀 너른 평야를 감상하다 만난 산지는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난 것처럼 반갑다.

300여 개의 계단을 올라 마주하게 된 탁트이바히. 건축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1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돌 사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원은 탑을 비롯해 벽, 감실 모두 같은 양식으로 지어졌다. 큰 돌과 작은 돌, 두 가지를 얼마나 빈틈없이 쌓느냐가 핵심이다. 간단한 원리지만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한 탁트이바히는 인간의 한계를 되묻게 한다.

사원은 비록 많은 훼손으로 인해 지붕이 없고, 탑들도 기단부밖에 남지 않았지만 능선을 이어가며 대규모로 지어져 순례자에게 더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불상을 모셨던 감실, 매일 같이 기도를 올렸을 대탑, 스님들의 수행공간, 공양간과 화장실까지. 선대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정진했을 이곳에서 몇몇 순례단 스님들은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이곳에 살아보고 싶다." 천년도 더 되는 시간을 훌쩍 넘어 이곳을 찾은 후배 수행자들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선배들의 고행을 가슴으로 느꼈다.

탁트이바히 경내에는 대탑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탑들의 기단부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 탑 주위에는 감실이 줄을 지어 들어섰으며, 사원 동쪽에는 강당과 수행자를 위한 개인 수행공간이 함께 있다. 한구석에 마련된 화장실은 주변에 석회를 발라 오염을 예방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탁트이바히는 4개의 연대로 나눠 증축을 거듭했다. 첫 시기는 건축 당시인 쿠샨왕조의 첫 통치자 쿠줄라 카드피세스, 즉 카니슈카왕의 증조부 때다. 이후 카니슈카왕의 후원으로 사원이 유지됐으며, 3~4세기에 대탑과 집회장이 들어서는 제2차 건축기를 거친다. 쿠샨왕조 후대인 4~5세기 제3차 건축이 이뤄지고, 6~7세기 대형 복합사원으로 거듭났지만 이때부터는 훈족의 통치를 받았다.

탁트이바히는 지금도 꾸준히 복원이 진행 중이다. 선조들의 옛 기술을 모방해 다시금 돌을 쌓아올리고 있는데, 확실히 기술력은 옛것만 못하다. '이렇게 복원해도 괜찮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나마 복원하면서 원형과 복원부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얀 천을 끼워놓아 다행이다.

사원 곳곳을 한참 둘러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경찰이 파키스탄에 대한 감상을 묻는다. 짧은 영어로 더듬거리며 인상적이라고 답하니 같이 사진 찍길 권한다. 그가 들고 있던 소총이 무서워서 찍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은 경찰만 10명이 넘는다. 물론 일반인도 많다.

이방인을 향한 파키스탄인들의 관심은 어딜 가든 비슷하다. 그리고 재가자보다는 평소 더욱 만나기 어려운 스님들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간다라 寶庫 '페샤와르박물관'

탁트이바히에 이어 순례단이 찾아간 곳은 1907년 개원한 페샤와르박물관이다. 빅토리아여왕 기념당을 박물관으로 고친 이곳은 간다라문명의 예술품을 비롯해 고대 토착부족 유품, 각종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다. 2층으로 지어진 페샤와르박물관은 탁실라박물관과 함께 세계에서 간다라문명의 예술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탁트이바히를 비롯해 사흐리바흐롤, 자말가르히 등 이 지역 간다라 사원에서 출토된 석조물이 대거 소장돼 있다.

수많은 간다라 예술품 중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카니슈카왕이 봉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리용기다. 사리용기 뚜껑에는 부조로 불좌상을 표현하고, 범천 · 제석천을 따로 주조해 붙였다. 용기 옆에는 카니슈카왕으로 전해지는 북방민족 복식의 귀인상과 나형동자가 꽃줄을 멘 형상이 표현돼 있다. 오랫동안 간다라미술을 연구해온 유근자 동국대 불교미술학 초빙교수에 따르면 카로슈티 문자로 카니슈카 초년 유부(有部)의 고승을 모시기 위해 대탑을 건립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는 대승불교 형태의 불상 예배가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외에도 페샤와르박물관에는 1907년 탁트이바히에서 발견된 싯다르타 고행상이 있다. 안타깝게도 파손된 채 발굴돼 머리 · 가슴 · 하반신밖에 남지 않았지만 라호르박물관의 그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온전하게 보존됐다면 라호르의 고행상과 함께 싯다르타의 6년 고행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간다라 예술품으로 평가될 작품이다.

기자 개인적으로는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전 선정을 표현한 초선상 마음에 와 닿았다. 싯다르타의 초선은 12세 되던 봄, 부왕 숫도다나와 함께 농경제에 참석해 힘겹게 쟁기를 끄는 농부와 채찍을 맞는 소, 새들에게 잡아먹히는 벌레를 보며 약육강식을 체험한 뒤 잠부나무 밑에서 명상에 잠긴 걸 의미한다. 다양한 장신구를 걸친 채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를 방해하지 않으려 잠부나무 그림자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초선상 대좌에는 채찍을 든 농부와 밭을 가는 소, 불이 피어오르는 향로, 합장한 두 사람이 양각돼 있다. 그 옆에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감탄해 무릎 꿇은 숫도다나왕이 합장하며 경배하고 있다.

페샤와르박물관에 들어선 순례단은 박물관 1층이 전부 간다라 불상으로 채워진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라호르박물관은 싯다르타의 고행상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간다라갤러리 규모가 크진 않다. 반면 페샤와르박물관은 간다라왕국의 수도임을 자랑이라도 하듯 크고 작은 간다라석불과 부처님 일대기를 표현한 조각으로 순례단의 눈을 사로잡았다.

박물관 내부를 장식한 대부분의 불상은 사람보다 조금 작은 크기이고, 구석의 일부 대형 불상은 3m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였다. 커다란 눈과 오똑한 코, 기다란 귀, 섬세한 육계, 주름진 가사자락은 전형적인 간다라양식을 보여준다. 순례단은 역사적인 불상들 앞에서 조용히 예불을 올리며 간다라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다. 다만 불상을 설명함에 있어 미륵불과 관세음보살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은 옥에 티로 남았다. 페샤와르박물관은 이미 일본과 한국학자들이 조사를 마친 곳이었지만 왼손에 정병을 들어 관세음보살로 추정되는 불상에 미륵불이라는 이름을 붙인 연유는 알 수 없었다.

박물관을 둘러보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평소 우리가 보는 부처님보다 사실화된 모습이다. 종교성이 강화된 우리나라 불상과 많은 차이가 있어 새롭게 느껴진다"며 "동서양이 만나 한편으로는 신비감을 더해주는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점심식사는 페샤와르가 소속된 카이버팍툰콰(KPK)주 고고학부가 대접했는데, 그 장소가 박물관 내부여서 순례단을 당혹케 했다. 고고학부는 순례단을 위해 유물이 전시된 전시관 한쪽에 간단한 뷔페를 차렸다. 이색적인 경험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유물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졌다고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다. 그렇게 몇몇 스님들은 선 채로 접시를 들고 식사를, 일부는 박물관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식사를 했다.



싯다르타의 출가 전 초선상. 어린 나이 때부터 인간의 생로병사와 약육강식에 번민한 모습이 잘 표현됐다.



카니슈카왕이 봉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리용기.



페샤와르박물관 내부. 간다라불상이 박물관을 가득히 메우고 있다.

탁발 행렬 '장엄'… 발우엔 '행복' 담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㉒ 빠옥 총림에서 생활 〈12〉



빠옥 총림서 수행한지 보름만에 체험한 탁발 행사. 스님과 발우를 든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행렬을 이뤄 걸어간다. 이는 축적되는 식량인 쌀을 스님이 직접 받지 않게 하는 배려다. 율에는 축적되는 식량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오늘은 빠옥 선원에 도착한지 14번째 날(2012년 2월 4일)이다. 간단히 씻고 올라갔다. 새벽 좌선에 집중이 잘 되어 끝나고도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다시 아침 공양 후 오전 좌선 1시간 45분도 금방 지나가 버렸다.

이후에는 인터뷰 시간이다. 수행 점검 스님께 14일째 호흡관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마음은 안정되고 고요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아직 맑고 명료해지지는 않았음을 이야기했다. 그래도 스님은 계속 호흡관을 닦으라고 한다.

빠옥 선원에서는 선정 시 나타나는 '니미따(nimitta)'를 중요하게 여긴다. 스님께 가끔 코끝 주변이 아닌 눈앞에 '푸른 색 원(bright circle in blue colour)'이 나타났다 사라진다며, 이것이 '니미따'인지 물었다. 이에 스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니미따'의 시작 단계라고 했다.

인터뷰 중간에 태국 스님이 무슨 용무가 있어 들어오자 말을 중도에서 마치고 "아마 자신보다 법랍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다. 법랍이 많음이 확인되자 기다리는 많은 요기들 앞에서 바로 삼배를 올린다. 이에 덩달아 수행점검을 기다리는 다른 스님과 나도 태국 스님에게 삼배를 드렸다.

내 인터뷰 이전의 차례는 미국인 출가 스님이었다. 그런데 점검해주는 스님에게 비구계를 반납하는 환계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수행 점검 스님이 이유를 묻자 이곳의 생활은 운동부족이 문제라는 것이다. 돌아가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란다. 스님은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물으니, 수영, 달리기, 자전거 등을 말한다. 이를 들으며 속으로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점검 스님이 그러한 이유라면 여기서 요가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말해 준다. 하지만 미국인 스님은 어찌할지 모르겠다.

생각해보니 마하시 선원 때에는 '알아차림 명상'으로 눈, 귀, 코 등 모든 감각 기관을 열어놓고 주변의 자극에 대해 따라 알아차렸다. 시간이 지나니 굉장히 주변과 사물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감수성이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이곳의 빠옥에서는 호흡에만 주의를 모으고 외부나 다른 자극과 대상을 개의치 않으니 갈수록 사물 인식 폭이 좁아지고 감수성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대신에 한 곳에 몰입해 가는 수준은 높아진다. 이것이 마하시와 빠옥의 중요한 차이처럼 여겨진다.

빠옥 선원에 도착한지 15번째 날(2012년 2월 5일)이다. 3시 30분전에 일어서 씻고서 선방에 오른다. 같은 방의 요기는 나보다 약 1시간 전에 일어나 올라 간 것 같다. 열심이다. 오늘은 스님들이 마을로 탁발을 하기 위해 내려가는 날이다. 나도 따라갈 작정이다. 이러한 특별한 일정으로 전체 아침 공양 시간이 앞당겨 이루어졌다. 평소보다 15분 전에 공양을 마치고 출발한다. 급히 아침을 먹은 후 카메라를 챙겼다. 따로 교통편이 없어 간신히 스님들이 탄 차 뒤쪽에 매달려 갔다. 중간 절과 아랫절을 거쳐 총림을 완전히 벗어나 도로로 빠져 나왔다. 파옥선원에 입방한지 보름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와 본다.

도착하여 보니 같은 건물에서 보았던 거의 모든 재가 요기들도 이미 이곳에 모여 있다. 집결지가 총림 밖의 커다란 파고다인 것이다. 먼저 신발을 벗고 파고다에 들어가니 많은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여기저기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0여 명의 우리나라 비구 스님들도 도착해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동안 뵙지 못한 스님도 있다. 저쪽에서는 연세 드신 한국 비구스님이 5~6명의 비구니 스님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 멀리서 사진을 한 장 찍고서 다가가 인사를 드렸다.

드디어 스님들은 대열을 정비하여 파고다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는데 맨 선두에 한국 상좌부 스님이 위치해있다. 인사를 드리고 따라갔다. 모두 맨발이어서 나 또한 신발을 비닐로 싸서 가방에 넣었다가 마을에 도착해서는 다시 꺼내 신었다.

그런데 이번 탁발은 좀 다른 모습이다. 스님들이 직접 발우를 들지 않는다. 대신에 교복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행렬하는 스님들 옆에서 대오를 형성해 발우를 들고 같이 행렬한다. 이러한 탁발 모습은 처음 본다. 그러면 도로마다 길게 늘어 선 사람들이 쌀포대를 옆에 두고 다른 큰 통이나 그릇에 쌀을 부어 넣은 뒤 기다리고 있다. 탁발 행렬의 스님과 학생들 그리고 재가자가 자기 앞을 지나면 그들에게 한 주걱 또는 한 숟가락씩 쌀을 일일이 덜어준다. 이전에 보거나 듣지도 못한 굉장히 이채로운 행사 현장을 목격하였다.

수행 15일째 체험한 탁발 행사
스님 옆에 학생들이 발우 들어
축적되는 식량 안받게 한 배려
韓 금지된 탁발 다시 되살려야

왜 이러한 특별한 행사를 하는지는 얼마 뒤 바로 알게 되었다. 원래 율장에 의하면 출가 비구의 탁발 시 생쌀을 바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율의 조항에서 탁발은 그날 바로 먹고 끝낼 수 있어야지 축적이 가능한 곡류는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에 계율을 어기지 않고 탁발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스님들은 발우 없이 위의만 갖추고 그냥 지나가면 곁에 함께하는 재가자가 대신 지참한 발우에 쌀을 보시하는 방편을 쓰고 있는 것이다. 계율을 어기지 않으려는 고육책이 느껴진다. 이곳에서는 이모작의 벼농사 첫 수확에 따라 일 년에 두 번 이 같은 행사를 펼친다고 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보시 방법처럼 여겨진다.

쌀을 보니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이 정반왕(淨飯王)으로 어원상 '좋은 쌀'을 의미한다는 것이 떠오른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대륙 북부는 현재에 쌀농사보다는 밀농사가 더 많고 주식이 쌀밥보다 밀가루 음식이다. 반대로 인도 남부나 동부는 쌀밥이 주식이다. 이로보아 부처님 시대의 석가국이나 미얀마가 모두 쌀이 주식이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치점이 있다.

마을 골목 구석구석을 탁발의 장엄한 행렬이 계속 진행되었다. 스님들은 모두 맨발로 행진하였고, 마찬가지로 정인 재가자도 맨발로 스님을 대신한다. 스님의 발우로 쌀을 받아 발우가 가득 차면 중간 중간에 뒤 따르는 또 다른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쌀을 전달한다. 길 군데군데에 큰 통과 자루에 쌀이 모아지면 계속해서 차로 실어 나른다.

어떤 이는 가족 전체가 맨발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합장을 한 채 이러한 행사에 참여한다. 어떤 집은 아들과 아버지가, 어떤 집은 어머니와 딸이, 또는 부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한다. 쌀을 퍼 주는 보시는 주로 젊은 사람을 시키고 노인들은 합장하고 바닥에 앉아 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젊은 사람이 공덕을 짓게 하려는 것 같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곳에서는 항상 적은 보시에 감동한다. 많은 이들이 발우에 소소한 과자나 사탕 하나씩을 보시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또한 어디쯤의 도로 중간에 불구자이면서 거지가 앉아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 스님들은 받은 쌀을 거지에게 다시 나누어주기도 한다. 한국 스님들은 재가자가 부족해서인지 직접 가지고 온 발우로 생쌀을 받았다. 원래 계율 상에는 어긋나지만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았다. 절과 마을이 어우러진 완전한 축제 분위기이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다. 이왕에 이처럼 보시할 것이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들이 수고롭지 않게 바로 쌀을 모아 가마니채로 절에 배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개인 개인의 스님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공덕을 짓는 것으로 신앙적으로 더 만족감을 갖는다. 나아가 업보나 인과설에 더 적합한 보시 방법인 것이다.

덕분에 동네 구석구석을 다 둘러볼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은 한가롭고 여유롭게 느껴진다. 길고 긴 그리고 장엄한 탁발행사가 끝나고 다시 한 곳에 집결하여 차례차례 탑승하여 사찰로 돌아왔다.

모두가 행복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참관하는 사람도 모두 행복했다. 일종의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외국인과 미얀마사람들 모두 하나가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뻐하며 가끔 웃음소리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마침 10여 명의 한국 스님들이 차를 기다리며 모여 있다.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결같이 모두 이곳 생활에 만족했다. 어떤 스님은 4년이 넘게 이곳에 머물렀다.

하루하루, 어떻게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다. 나 또한 이와 같다고 뜻을 모았다.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다. 그러면서 스님들께 한국에서 이렇게 마을에 내려와 탁발을 해보셨는가를 물으니, 여기서가 처음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단적 차원에서 부활하면 어떻겠느냐 말을 해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아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내내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탁발행사를 복원하거나 부활해 보는 방안을. 그래서 적어도 집단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큰 절은 사하촌 가게들을 시작으로 주변 마을별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도회지 등에서는 지역사암 연합회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또는 동이나 구별로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때 사적 또는 개인 탁발은 기존처럼 금하고 집단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인 탁발방식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본다.

마찬가지로 축적 가능한 현금은 받지 않고 그날 그날 소비할 수 있는 생필품과 조리된 밥만을 받는 것으로. 원래 탁발 정신에 따라 남은 음식물(밥, 떡, 빵, 과자, 사탕 등)을 모아 서울의 경우, 서울역 광장이나 시청 앞 광장 등에서 장엄한 무차대회의 장을 열어 본다면 하는 상상을. 나아가 노숙자나 거지 등과 함께 나누어 시식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요즘 대도시에서는 여기저기서 남아도는 음식이 많아 음식이 처치 곤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루 세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음식물을 모아 한편에서는 스님들이 줄 맞추어 발우공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반인들 또한 배급 받아 대중공양하는 무차의 밥회가 법회로 이어지는 상상을 해본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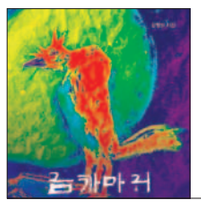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7~1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당신의 마음에 답을 드립니다 (목종스님 상담에세이)	목종스님	담앤북스
3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밝은 사람들 총서 14)	권석만 외 4인	운주사	8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 (홍파 스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	홍파스님	모과나무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9	틱낫한 불교	틱낫한/권선아	불광출판사
5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10	지금 이순간 자비롭게 살아가기	아남 툽텐/임희근	담앤북스

행복 위한 불교식 마음 지혜 찾기







불교 철학적 메시지 작가 특유의 감정과 감성 담아 시어로 풀어내

시집엔 삶을 맑고 진솔하게 살고 싶은 저자 마음이 간절히 묘사돼

금까마귀 들락날락
강행원 지음/노북 펴냄/1만 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평생을 화가와 문인이며 불교인으로 살아온 강행원 화백〈사진 위〉의 5번째 시집 〈금까마귀 들락날락〉이 새로 나왔다. 이 책은 화가로 꾸준한 집필 활동을 해온 강행원 화백이 그림과 함께 담백한 시어로 그려낸 시화집이다. 책 속에는 불교인으로서의 시각과 언어가 그림과 시로 잘 버무려져 있다.

한 동안 불교에 귀의해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민중 미술을 이끌고 늘 인문학을 가까이 하며, 인문화를 즐긴 화가 강행원의 삶을 시화집 형식으로 담았다. 존재의 이치를 터득하는 불교 철학적 메시지를 작가 특유의 감정과 감성을 담아 시어로 풀어냈으며, 그의 폭넓고 깊은 불교 사상과 사유에 바탕을 둔 그림도 담겨 있다.

평소 불교인이라면 불교에 이르는 진리를 생각해 보고 참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일반인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한번쯤 되짚어 볼 수 있는 생과 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햇살의 뜨거움을 당당히 마주한 작가가 이제 석양을 바라보며 담담히 써내려간 글과 그림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하듯이 엮어 냈다.

한국화, 서예, 인문화 등 한국 회화(繪畵)의 전반적인 분야에 조예가 깊고 진보적인 생각을 좇아 문화 운동에 참여해 민중 미술을 이끌었으며, 특히 인문학을 가까이 한 화가의 다방면의 역작을 한 권 시집에 담기엔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가가 꼭 원하는 부분을 위주로 간추려 담았다. 시집에는 삶을 맑고 진솔하게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이 간절하게 묘사돼 있다. 그는 아직 맑은 웃음으로 삶을 당당하고 진솔하게 마주하고 살아간다.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붓다의 사상이 그의 삶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으며, 불교를 기반으로 한 평소의 사색 습관이 발양해 그의 예술 세계 심층엔 늘 영원성에 대한 정신 세계의 갈망이 드러난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불성으로 해석하고 특히 이 시집에서는 불자 입장서 보게 된 존재의 이치, 불교 일색의 철학적 내용에 감정을 담아 감성적 언어로 풀어냈다. 정제된 시에서는 접할 수 없던 저자만의 솔직하고 담백한 감성이 오롯이 담겨 있다.

저자의 그림과 함께 붓다의 가르침을 신앙하는 마음 수행을 통해서 그간에 느낀 저자의 자유스러운 시 감성을 담담한 시어로 담았다. 부록인 사색의 상념은 세계 3대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탄생사를 한 눈에 살펴보고 작가의 눈으로 담담히 써내려간 각 종교에 대한 해석도 관심거리이다.

시문학이라는 예술 형식이 철학적 종교적인 사고에 접합돼 있다는 점 때문에 종교적 배타성을 가진 이들에겐 흥미가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그가 누구라도 종교를 가진 자 즉, 신앙하는 자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모른다는 것은 나의 종교를 모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고 말한다. 또한 그는 진리라고 해서 고정불변한 어떤 교리가 아니며,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아니다. 우주 본체가 바로 진리임으로 따라서 진리는 과거도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이 언제나 그대로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그의 시상은 글로벌한 오늘의 문명에 우리 인류가 결합한 현대의 병이 유물주의에서 비롯된 자본주의 사상에 젖어 끝없는 물욕서 헤어나지 못함을 주목했다. 이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불행에의 문제들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삶은 극락(천당)이 되기도 지옥을 만나기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불교를 통해서 명상이라는 사색의 길인 선사상이 집약된 선시인 점이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녔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왜 종교를 찾고 시를 읽는가를 한번쯤 생각하게 만든다. 무위한 자연으로부터 오는 감성을 느끼고 더 나아가 마음수행을 강조한 붓다의 말씀을 한번쯤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붓다 원형 가르침 만난다



〈아함전서〉16권
김윤수 지음
운주사 펴냄
세트가 15만원

〈아함경〉은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경전이다. 따라서 후대에 가공되거나 각색되지 않은, 부처님 당시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과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초기불교경전은 빠알리어로 기록된 남방불교의 5부 니까야와 한문으로 번역된 북방불교의 4부 아함경 두 종류가 있다. 이들은 초기 불전이라는 측면서 당연히 서로 상응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지만, 한편으로 체제나 내용 등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근래에 니까야에 대한 번역과 관심이 늘고 있다. 그리고 니까야가 가지는 역사성과 정통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함경〉이 갖는 중요성이 폄하돼서는 안될 것이다. 〈아함경〉은 우리가 오랜 세월 사용해서 익숙한 한자로 번역되고 기록되고 개념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교의 기본 용어와 개념들, 즉 사성제 오온 육입 십이처 십팔계 연기 해탈 삼명 육통 열반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이 〈아함경〉서 정리되고 산출된 것이다. 4부 아함 중 〈잡아함경〉은 상응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들을, 〈증일아함경〉은 법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들을, 〈중아함경〉은 중간 길이의 경들을, 〈장아함경〉은 긴 길이의 경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한역 4부 아함 전체의 체제와 용어들을 통일하고, 이해하기 쉽고 현대적인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상세하고 방대한 주석을 단 대역작이다.

특히 4부 아함 중 〈증일아함경〉의 번역 및 주석서는 이해하기 쉽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과 치밀하고 방대한 주석이 특징이다.

〈증일아함경〉은 상응하는 〈앙굿따라 니까야〉와 대조할 때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경의 수이다. 〈앙굿따라 니까야〉의 경우 9,557개의 경이 수록된 반면 〈증일아함경〉은 670개의 경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로 내용이 일치하거나 대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들을 가려보면 150개 경 정도이다.

둘째, 〈증일아함경〉 전반에 대승불교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보살' 이라는 용어가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일반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적 의미로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육바라밀, 삼승, 소승 등의 용어까지 등장한다. 셋째, 〈증일아함경〉에는 길이가 상당히 긴 경이 다수 포함돼있고, 이는 대부분 본생담이나 인연담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저자 김윤수는 1951년 경남 하동서 태어나 197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부터 10년간 판사로, 1990년부터 10여 년간 변호사로 2001년부터 다시 판사로 일하다가 2011년 퇴직했다. 저서로는 〈육조단경 읽기〉 〈주석 성유식론〉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래장 경전 모음〉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500질 한정판매

가까이 두고 하루에 단 한 줄만이라도 읽고 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미얀마 불교미술 국내 첫 전시

부산博 '미얀마의 불교미술' 展
11월 19일~2020년 1월 12일

미얀마 불교미술품 엄선 110여 점
'석조 항마촉지인 불상' 최초 반출
역사·문화·전통불교미술 한자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미얀마의 불교미술을 처음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부산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2019년 국제교류전 '미얀마의 불교미술'을 개최한다. 부산박물관 개관 41주년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세안 10개국 중 대표적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엄선된 불교미술품 110여 점을 국내 최초로 일반에 선보인다.

미얀마 불교는 5세기에 인도와 스리랑카로부터 미얀마 남부 몬족들에게 전래된 상좌부불교로 11세기 바간 왕조 당시 미얀마 전역으로 전파됐다. 불교미술 역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바간 왕조 때 활발했다. 바간 사원의 티베트풍 벽화 등에 미얀마 미술이 잘 드러나 있다.

부산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미얀마 현지 박물관의 자료를 조사하고, 미얀마 종교문화부 고고학국립박물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미얀마 국립박물관 4개 (양곤·네피도·바간·스리 크세트라) 처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 유물 110여 점을 전시하게 됐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 미얀마의 불교미술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시인 만큼 불교미술을 통해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를 통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장 '에야와디강의 여명, 뿌와 몬'에서는 미얀마의 선주민인 뿌족과 몬족의 불교유적과 유물을 통해 미얀마 불교문화의 원형을 조명해 본다.


싯다르타의 삭발, 바간시대,11~12세기,바간고고학박물관


붓다의 첫 설법, 바간시대,11~13세기,바간고고학박물관

△2장 '공덕의 평원, 바간'에서는 최초의 통일왕조인 바간 왕조의 상좌부불교의 수용과 발전상을 소개하고, 이 시기에 화려하게 꽃피운 불교미술을 살펴본다.

△3장 '분열과 통일, 생성과 소멸의 시간'에서는 왕조의 분열과 소멸, 통일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불교문화의 모습을 다루었다.

△4장 '일상속의 불교'에서는 마지막 불교 왕국 꼰바웅의 불교미술과 미얀마인의 일상 속에 꽃 피운 불교문화에 대해 소개한다.

주요 전시유물은 미얀마 초기불교 문화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스리 크세트라 유적 출토 '은화', '봉헌판'을 비롯해서 '붓다의 탄생', '싯다르타의 삭발', '고행하는 붓다',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붓다' 등 부처의 팔상을 표현한 단독 조각상과 '보살상', '범천상', '낫' 등 미얀마 불교의 다양성과 문화혼성(文化混成)을 보여주는 유물도 같이 전시된다. 특히 부처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팔상 장면을 담은 단독조각상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불교미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상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 전통불교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미얀마에서 해외로 처음 반출되는 네피도 국립박물관 소장 '석조 항마촉지인 불상'을 비롯하여 미얀마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불교미술을 대규모로 선보이는 전시로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식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4시 부산박물관 부산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에는 부산시 및 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한 문화계 및 학계 인사, 각국 영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 개막식에 앞서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는 특별초청 강연회도 진행된다. 식전공연으로 미얀마 전통문화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12월 13일에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와 공동주최로 '미얀마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도 예정되어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중 도자 진수 만난다

한중도자문화교류전 도연유정
12월 5일~내년 2월 2일 문화정품관갤러리

김억주 전통 찻잔 등 1500여 점
중국 이싱 자사호 130여 점 전시
'불교와 자사예술' 이야기 마당도

한국차문화협동조합과 중국 이싱 용덕당, 문경 황담요는 1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에서 2019년 한중도자문화교류전 '도연유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경 황담요의 문경 전통 찻사발과 찻잔 1500여 점과 장작가마 소성 자사호, 이싱 자사호 작가 10인의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된다.

문경은 한국 찻사발의 재료와 조형 및 소성 방식 등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찻사발 축제를 열고 있다. 이싱은 중국 도기(陶器)의 수도이면서 자사차호(紫砂茶壺)의 고향이다. 자사차호는 차를 우리는 주전자로, 차 도구 시장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

도자의 도시인 문경과 이싱은 도자 관련 학술과 기술을 비롯하여 문화와 경제 등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교류를 10년 째 이어오고 있다.

두 도시간의 이번 도자문화교류전은 문경과 이싱의 도자명인 김억주 명장과 판저펑 대사의 초청전이기도 하다. 문경의 김억주 명장과 이싱의 판저펑 대사는 연구와 작업 활동뿐만 아니라 두 지역의 도자


판저펑의 자사호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인사로, 이번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두 도시간의 문화교류에 또 한 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문경 도자기 명인으로 선정된 김억주 명장은 문경 지역 도자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1년 문경도자기협회 회장직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문경도자기협동조합 이사장 직을 수행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경 찻사발축제 추진위원장 직을 역임했다.

최연소 장쑤성도자예술대사가 된 판저펑(范泽锋)은 현재 자사(紫砂)도예는 물론, 청자(青瓷)와 여자(汝瓷), 천목잔(天目盏) 등 자기(瓷器) 공예에도 능통하다.

자사호 관련 재료(자사)와 제작 과정에 대한 현대적인 정리와 자사와 다른 도자기 영역의 융합 발전 등의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이싱시 인민정부는 2014년 그를 학술기술선두주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불교를 소재로 한 자사작품을 전문적으로 창작하고 있다. 그는 불교와 자사를 결합하고, 자사를 통한 불교적 참선을 생활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많은 도자 전문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와 함께 판저펑 작가의 사상과 예술의 특징이 되고 있는 자사호와 불교예술 세계에 대한 이야기 마당도 열린다. 12월 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두 작가가 자신의 예술 세계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마련되고, 12월 6일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조계사다도회 주관으로 판저펑 대사의 '선심호운(禪心壺韻)', 즉 불교사상과 자사예술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02)747-5634. 박재완 기자


김정은 作, 운문사

김정은 개인전 '물들다'展

12월 18~28일 나무아트
옻칠회화 10여 점 전시

옻칠화 전시가 열린다. 김정은 작가는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나무아트에서 개인전 '물들다(absorb)'를 개최한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옻칠을 이용한 회화 10여 점을 선보인다. 옻칠화는 기원전 1~3세기 전부터 활용됐던 옻칠기법에서 파생된 회화로, 장인의 기술과 재료적 가치를 인정받는 전통공예와 회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장르다.

옻칠은 화학물감과 달리 생명력을 지닌 천연물질로 건조과정이 화학물감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옻칠의 민감한 반응을 다루고 의지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통한 숙련이 필요하다. 그림을 그린 후 칠장에서 적정 습도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섬세하고 까다롭게 작품을 말려야 한다.

색을 얹었을 때에는 앞서 말린 옻칠에 사포를 이용한 수작업이 있어야 새로운 색을 더할 수 있다. 때문에 여러 차례 말리고 갈아내고 색을 입히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옻칠은 여러 차례 칠을 더할수록 맑게 빛나고, 향균, 방습, 방오뿐 아니라 원래의 물질보다 훨씬 단단해지는 성질을 지닌다. 옻칠의 까다로운 제작기법과 옻빛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김정은 작가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오랜 시간을 수행으로 삼고 있다.

이번 전시의 그림은 운문사 명성 스님의 구순을 기념해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기도 했다. 박재완 기자

당선공고문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교구선거관리 위원회는 서기 2019년 9월26일 교구지방종회에서 신설 제정한 경남교구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경남교구종무원장선거법에 의거하여 경남교구 산하 유권자(사찰 대표자)에 의한 직선제로 제17대 종무원장 선거를 추진하여 왔던 바, 경남교구종무원장선거법 제 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선자를 확정 공표합니다.



■ **선거내용** :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교구 제17대 종무원장 선거
■ **투표일시** : 2019년 11월28일
■ **실시결과** :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 **당 선 자** : 환명법인 스님 (승번: 101-0184 / 법계: 종사)

서기 2019년 11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월명 종민**



문화재 안내판 이젠 '쉽고 재미있게'

문화재청 내년 3월까지 2500여 안내판 개선 추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려시대에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 이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애불상 중의 하나로 미륵불로 추정된다. 지상 3.3m의 높이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불상의 15.6m, 폭이 8.48m가 되며, 연꽃무늬를 새긴 계단모양의 받침돌까지 갖추었다. 머리 위의 구멍은 동불암이라는 누각의 기둥을 세웠던 곳이다.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은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불상으로, 신체 높이가 약 15.7m, 무릎 너비는 약 8.5m이며 연꽃무늬를 새긴 받침돌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마애불의 양식으로 보면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성 시기는 신라 말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으로 의견이 다양하고 백제 위덕왕 때 검단 선사가 새겼다는 전설도 있다.

보물 제1200호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문화재 안내판 내용이다. 앞선 것은 기존 안내판의 내용이며 후자는 새로 개선된 안내판이다.

개선된 안내판은 확연히 달라진 것이 보인다. '마애불' 이라는 전문용어 대신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불상' 이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검단 선사와 같은 설화를 넣어 흥미를 유발했다. 또한 마애불을 조성했던 당시의 상상도를 삽화로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올해 전국 1,392건의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534건 · 시도지정문화재 858건)에 설치된 약 2,500여 개의 안내판을 알기 쉽고 보기 쉽게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시작한 안내판 개선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약 3,500여 건의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지자체 · 시민자문단 의견 청취
쉬운 문안 · 지역문화사 반영해
개선 사례 50건 우선 공개도
2022년까지 3500개 정비 목표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을 위해 문화재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문안, 지역 고유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문안을 개선 방향으로 정했다.

이어 국문과 영문 안내문안 작성 지침서 배포, 시민자문단 운영, 감수 체계 구축, 상시 점검과 주기적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바꾼 사례 50여 건을 모아 12월 2일부터 국가문화유산포털 누리집(heritage.go.kr)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연말까지 총 30여 건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례를 실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개될 문화재 안내판 중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안양 삼막사 사적비, 사적 제67호인 함안 성산산성, 등록문화재 제111호 태백 장성이중교도 있다.

삼막사 사적비의 경우 "이 비의 비갓은 팔작지붕형이고 지대석(地臺石)은 땅에 묻혀 있다. 비문(碑文)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등 설명이 어렵게 풀이됐다. 하지만 개선된 안내판은 "삼막사 창건과 그 이후 연혁을 기록한 비석이다. 사적비(事蹟碑)는 사찰이나 서원, 사당, 성곽 등의 역사를 기록한 비석을 말하며, 기적비(紀蹟碑)라고도 한다" 등 사적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관람객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비석 구조를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올해 추진된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례는 시민자문단 · 전문가 감수를 통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물인만큼 학교 교육이나 문화재에 흥미가 있는 국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며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에게 친숙한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물 제1200호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문화재 안내판. 사진 위쪽이 개선 전, 사진 아래쪽이 개선 후이다. 설명은 쉬워졌고, 상상도를 넣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중론' 주요품 강독 중관학당 겨울캠프

12월 6~8일 지리산 실상사서

초겨울 용수의 대표 저서 〈중론〉의 주요품을 강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공성의 배움터 중관학당은 오는 12월 6~8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2019 겨울캠프' 를 개최한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겨울캠프에서는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와 함께 〈중론〉의 '제25관열반품(觀涅槃品)' 을 중심으로 '제24관사제품(觀四諦品)' , '제2관거래품(觀去來品)' 을 다룰 예정이다.

강사로는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가 참여한다. 신상환 대표는 인도 비스바 바라띠대학 인도-티베트학과에서 티베트학 석사 및 산스크리트어 준석사 학위, 캘커타 대학의 빠알리어과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후 조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2013년 귀국해 중관학당을 열고 역경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겨울캠프 정원은 30명이며 2박3일과 1박2일 일정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박3일 30만원, 1박2일 15만원이다. 중관학당 후원회원과 학인 스님은 할인된다.

중관학당은 "〈중론〉의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티베트역, 한역의 특징을 함께 다룰 이번 강좌에서는 〈중론〉의 주요품을 통해 '공사상' 의 형성, 논리적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티베트 불교와 '공사상' 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3회 성운학술상 공모

한국불교학회, 내년 2월 28일까지

염불신앙에 대한 학술 연구 진흥을 위해 제정된 성운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내년 2월 28일까지 제3회 성운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논문 주제로는 △경전 상에 나타난 염불신앙에 대한 고찰 △염불신앙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연구 등이다. 가피 사례는 지장신앙, 관음신앙, 미타신앙, 주력신앙, 사경신앙, 경전독송신앙, 기도신앙도 가능하다.

수상자로는 대상 1명(500만원), 우수상 1명(2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만원)이 각각 선정된다.

시상식은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춘계대회 발표 후 한국불교학회 학술지 〈한국불교학〉 기획논문으로 게재된다.

한편, 성운학술상은 제22대 한국불교학회장을 역임한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의 발의와 재정지원에 따라 한국불교의 염불신앙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 학문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신성민 기자

성철 스님 소장 불서 면면 살피다

동국대 ABC사업단 · 백련암
11월 22일 공동 학술세미나
소장書 조사 완료 기념으로

한국불교 근현대 선지식인 성철 스님이 소장했던 불서의 면면을 학술적으로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단장 정승석, 이하 ABC사업단)과 해인사 백련암(감원 원택)은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철 스님의 수행과 공부' 를 주제로 '백련암 소장 불서 조사 완료 기념 학술세미나' 를 개최했다.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2017년 11월부터 백련암 소장 고문헌 조사를 시작했다. 백련암 고문헌은 성철 스님이 생전에 소장 · 연찬했던 것으로 대부분 1947년 김병룡 거사에게 증여받은 책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백련암 소장 문헌의 현황과 가치(서수정, 동국대)' 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증여 계약을 기록한 증여목록 1책과 장서목록 2책이 확인됐다. 또한 김병룡 거사가 증여한 책에서 여러 장서인(藏書印)이 발견됐다.



동국대 ABC사업단과 해인사 백련암은 11월 22일 백련암 소장 불서 조사 완료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굴된 〈증여계약서목〉에 따르면 증여계약은 1948년 9월에 증여자 김병룡 거사와 수령자 성철 스님 그리고 입증인으로 김낙인(金洛仁)과 자운 스님의 참관 하에 체결되었다. 증여서목에는 총 25부로 분류한 1,773책이 기록돼 있다.

증여받은 불서에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불교계에서 활약한 혜월거사 유성종(劉聖鍾), 인허 성유(印虛性維), 박선묵(朴銑默), 최취허(崔就墟), 권상로(權相老) 등의 장서인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중국 가흥대장경과 명 · 청대 간행 일반 불서들, 중국 각경처 불서 1200여 책도 확인됐다.

조사를 진행한 서수정 전임연구원은 "백련암 소장 문헌은 19세기 불서 간행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면서 "특히 중국 불서들이 어떻게 국내로 유입됐는지 중국과의 서적 교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인사 백련암 소장 한국본 불서의 서지적 분석(남희권) △퇴옹 성철의 불서 인용과 유필 노트(최원섭)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성철 대종사께서는 평생 선수행을 통해 실참을 강조하셨지만, 수행의 여가에 틈틈이 〈선림고경총서〉 37권을 출간해 수행자들에게 밝은 길잡이가 되도록 하셨다"면서 "백련암 소장 문헌에 대한 학문적 연찬은 조계종과 한국불교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인사말에서 "성철 스님 학술세미나는 2009년 이후 10년 만이어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성철 스님의 원력과 위신력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주요 불교학술단체 첫 연합워크숍 연다

불교학연구회 등 12월 20일

불교학술단체 연합으로 학술단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불교학연구회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불교학연구회, 인도철학회, 한국불교학회, 한국선학회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1시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불교학술단체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주요 학술단체들이 연합해 학술워크숍을 여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서 눈길을 끈다.

'한국 불교학술단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 을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불교학술단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짚는 발표들이 이뤄진다.

주요 발표로는 △불교관련 학회 현황 및 상호 발전방안(이병욱, 고려대) △불교학술지 편집 동일안 모색(차상엽, 금강대) △불교 국제학술지 정보 및 투고방법(조은수, 서울대) 등이다. 토론자로는 김희(울산대), 강형철(동국대), 고승학(금강대)가 나서며 발표 이후에는 권기현 · 김방룡 · 김성철 · 안성두 · 임승택 등이 참여한 총평 자리도 마련된다. 신성민 기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㉒ 소설(小雪)
무말랭이장아찌 · 청국장찌개 · 우엉전

찬바람 말려 칼슘 많은 무말랭이

소설은 음력으로 시월이지만 바람이 점차 차가워지는 것을 보니 겨울이 다가왔음을 절감하게 한다. 예부터 소설무렵에는 바람이 세지고 차가워진다고 하였다. 밭에 남아 있는 배추를 모두 뽑아서 김장을 하고 저장음식을 만들어 놓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말랭이는 햇살 고운 날 찬바람에 말려야 칼슘성분도 많아지고 맛도 좋아진다. 같은 무말랭이도 써는 방법에 따라 모양을 달리한다. 무는 직근이라서 칼질을 할 때 무가 세워진 방향을 따라 썰어줘야 말린 후에도 돌돌 말아 올라가지 않는다. 무말랭이장아찌를 '오그락지'라고도 하는데 말리면서 수분이 사라지고 주름이 잡히면서 오그라지는 형상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텅 빈 들녘을 바라보면서 황량한 바람을 마주하고 서보니 성주괴공의 이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무릇 모든 만물은 생겨나면 머무르고 그 형태를 점점 변화시키면서 공으로 돌아가니 그 무상함을 어찌 때때로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푸르던 빛을 잃고 그 본분만 지닌 나무의 모습이 스님들의 동안거 정진력만큼 다리를 꺾고 다니는 일을 삼가고, 이 겨울 은인자중하라는 가르침과 상통하는 뜻일 게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강의를 다니지 않는 철칙을 세운 이유도 나 역시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한 나름의 약속이었다.

사찰마다 메주 만드는 일손이 바쁘다. 얼기 전에 잘 말려 두어야 장 담기 전에 잘 띄워서 정월장을 담글 수 있기 때문이다. 메주콩을 푹 삶아서 황


무말랭이장아찌


청국장찌개


우엉전

토방에 72시간을 띄우면 진득한 진이 나오는 청국장이 만들어진다. 방 온도를 20도에 맞추어야만 적당한 진이 만들어진다.

잡균을 통제한 청국장은 냄새가 구수하기만 하다. 경상대 유충호 교수님은 평생 발효 공부를 한 분으로 청국장박사이신데, 청국장 기계를 발명해서 연구실에서 청국장을 만들어 나눠주신다. 냄새는 나지 않으나 맛은 구수한 청국장이다.

금수암 황토방도 그래서 만들게 되었다. 겨울철 메주도 말리고 청국장도 실컷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물 쓰기도 불편하고 매번 날라서 옮겨야 하는 어려움으로 사실 자주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거기다가 띄운 청국장을 나무절구에 일일이 빻아야 하니 남의 손을 빌리게 되고 품삯이 많이 드는 청국장이 되어버린다.

겨울철 잘 숙성된 우엉 역시 사찰의 좋은 부식거리이다. 늘 밑반찬으로 등장하는 우엉조림은 이제는 김밥재료로 더 유용하기도 하다. 국일암의 우엉전은 노스님께서 출가 전 범어사에서 맛보신 후 재현한 음식이다. 아무래도 진주 월명암과 정취암에 사신 까닭에 우엉을 구하기도 수월하셨고, 우엉을 찌고 두드려서 넓게 편 다음 양념을 묻힌 후 밀가루물에 조금씩 떠서 묻히는 우엉전은 밀가루가 소량 들어간 멋진 부침개이다. 고임새로 높이 쌓아서 불공 후 내려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전래음식중 하나이다.

그동안 모은 약재를 손질하고 법제하면서 약초 국물 샘플을 만들어 시식을 해보고 있다. 단순한 간기를 맞추던 조리법에서 조금이나마 채식하시는 분들에게 기운 내라는 응원의 차원으로 나름의 맛국물이 좀 더 풍부해지기를 염원하면 만들고 있다. 하지만 사찰음식을 배운 젊은이들의 이탈이 점차 늘어나 한편으론 걱정이 앞선다.

사찰음식을 배운 많은 재가 젊은이들이 이 계통에서 발을 빼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찰음식 강의나 방송에서 스님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리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15년 공부한 조교를 놓치고 말았다. 스님만 강의를 할 수 있는 형편이고 실제로 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오래 배웠어도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어시스트 수준에 머물러야 하니 답답하기도 할 것이다.

더러 창업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고 채식의 문화가 좀 더 확산되어야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지 염려도 된다. 금당연구회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뿌리를 내려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사찰음식을 등지지 않고 생활의 활력이 되는 요소를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무말랭이장아찌
재료: 무 5개, 집간장 1컵, 양조간장 5컵, 조청 2컵
1. 무는 썰어서 말린다.
2. 간장과 조청을 섞어서 한 번 끓인다.
3. 항아리나 유리병에 무말랭이를 꾹꾹 눌러서 가득 담고 장물을 붓는다.

청국장찌개
재료: 청국장 100g, 무 30g, 애호박 30g, 두부 반모, 배추 2잎, 소금 작은술, 건표고 20g, 다시마 20g
1. 물 5컵에 다시마와 건표고를 넣고 7분간 끓인 후 불을 끄고 건더기를 건져내 국물을 만든다.
2. 각 재료를 사각썰기로 썬다.
3. 배추는 끓는 물에 데쳐낸다.
4. 청국장은 채수 1컵에 개어놓는다.
5. 냄비에 맛국물을 붓고 무와 두부를 넣고 끓인다. 끓어 넘치려 하면 호박과 배춧잎을 마저 넣는다.
6. 개어놓은 청국장을 넣고 한번 끓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고 불을 끈다.

우엉전
재료: 우엉(중) 2~3대, 밀가루 ½컵, 고춧가루 ½t, 집간장 1T, 참기름 1T, 참깨가루 ½t 부침유(식용유 1T, 들기름 1T)
1. 우엉은 껍질을 칼로 살살 긁어내고 15㎝로 잘라 찜기에 쪄낸다.
2. 고춧가루, 집간장, 참기름, 깨가루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든다.
3. 밀가루는 체에 치고 물 ½컵과 집간장 1t를 넣고 반죽옷을 만든다.
4. 찜기에서 쪄낸 우엉을 반으로 칼집을 내어 살살 두드려 편다.
5. 우엉에 수저를 이용해서 2에서 만든 양념장을 골고루 바른다.
6. 팬에 불을 올리고 우엉을 놓고 반죽을 수저로 조금씩 펴 바른다.
7. 부침유를 두르고 지져낸다.



류재환의 건강 100세
⑧ 비만과 성인병

'식단관리 · 운동' 생명 지킨다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질환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심하면 질환은 우리를 극한상황으로 몰아간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각 연령별 질환에 대한 대비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성공적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노화란 육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인지 기억이 유지되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데 첫 번째 각종 암질환과 두 번째 뇌심장 혈관질환이다.

이 두 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 1,2,3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각 나이에 맞는 검진과 진료가 필요하다.

뇌 ·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비만의 정의는 우리 몸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몸 전체무게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체지방량)이 남자 25%, 여자 30%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보다 쉽게 체지방량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체중표 즉 연령 및 성별, 키에 따른 이상적 체중을 이용하여 상대적 체중을 계산하거나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여 비만을 진단한다.

비만인 사람의 문제는 보통 외모에 관련되어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비만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사망률은 물론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 관절염 통풍 담석증 유방암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체중을 줄여야 하고 실제로 많은 비만 환자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체중조절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체중 조절을 위해 식욕 억제제를 먹는다. 적은 음식량에도 포만감을 느끼는 약물 또는 향정신 약물을 복용하거나 단식법 금식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방법에 의존하게 되면 체중 감소는 일시적으로 올 수 있으나 방법을 중단 시 체중이 쉽게 증가하게 되고 다시 반복되게 된다. 약물이나 단식 금식에 대한 의존이 높아져 상기 방법을 남용하게 될 위험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체중조절에 실패한 경우 우울증이나 기초대사량의 감소, 식욕 불량과 같은 식사장애에 빠지게 된다.

비만은 만병의 시작과 끝
지방질 음식 제한이 핵심

그러므로 비만 사람이 체중을 줄이려 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말로 체중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비만치료는 비만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가 위험 수준이거나 체중 감소 시 건강 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시도돼야 한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식사량과 활동량을 분석 후 체중감량계획을 세운다. 우선 2주 동안 자신이 먹는 모든 음식을 기록해 자신이 먹는 음식량을 알아본다. 체중을 줄이기로 결정했으면 식사요법과 운동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계획한다.

세 번째 식사요법으로 1주일에 0.5kg체중 감소를 위해 여자는 1200Kcal, 남자는 1500~1800Kcal의 열량만 섭취하면 된다. 무게를 일일이 달아서 조리해 식사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가장 쉽게 열량을 줄이는 방법은 식사에서 열량이 많이 나가는 음식 즉, 지방질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로 고열량음식인 사탕 청량음료 술 버터 초콜릿 마가린 햄버거 튀긴 음식 도넛 감자칩 등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고열량음식을 절제한 후 주식의 양을 75%정도로 섭취하면 체중감량이 시작된다. 더 원하면 주식의 양을 점진적으로 50%까지 줄여 나가면 된다.

이때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한다. 식사조절을 하면서 배가 고픈 경우 섬유소가 풍부하고 열량이 적은 토마토 오이 당근 양배추 미역 김 다시마를 섭취하고 술은 과도한 음주시 체중감량을 방해하며 안주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술만 과음하게 되면 저혈당의 위험도 발생하므로 체중 감량시 절주하는게 좋다. 며칠 식사조절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실천해야 한다.

네 번째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비만환자에게 가장 권장하는 운동은 걷기다. 그 외로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등산, 에어로빅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적어도 주3회 걷는 걸 권장한다.

예를 들어 1km뛰기, 2km걷기,4km 자전거 타기, 300m 수영하기 등은 약 150Kcal의 열량이 소모된다. 이는 밥 반 공기 열량에 해당되므로 운동을 지속하더라도 식사조절에 세심한 노력을 해야 한다.

끝으로 체중감량에 힘이 들지 않고, 고통도 없고 운동도 필요 없다는 과대광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 해준다는 선전, 검증되지 않은 약물에 의존한 체중 감량 선전 등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을 위한 올바른 체중감량을 의사의 도움으로 실행해야 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



GREEN EARTH

녹색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생명들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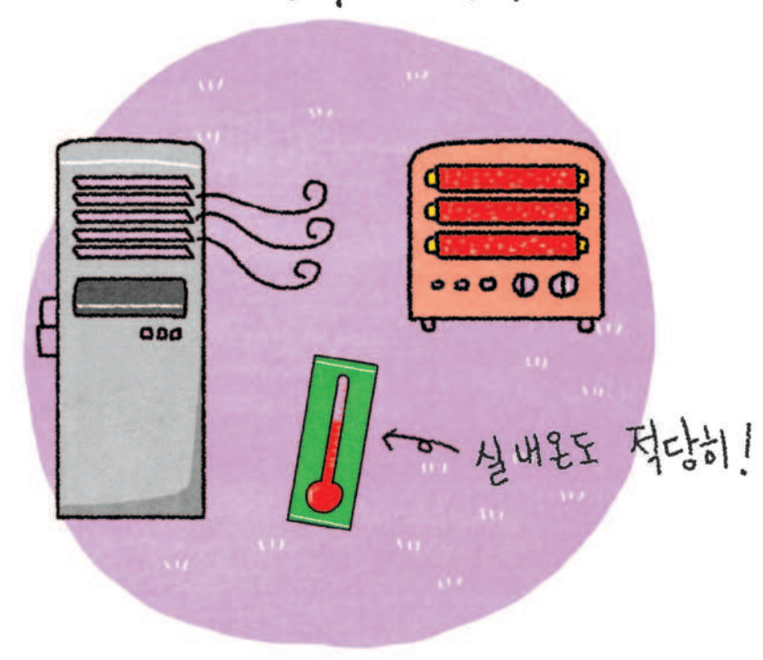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에너지 절약은 쉬워요!



'분리수거하기' 약속해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